

야스코가 말하는 주위의 사정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교제를 정리하는 하나의 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한다든가, 동정하다든가 하는 위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철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그 위로가 완전히 체념하지 못하고 있는 명철에게 일말의 여전히 미련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7

한 달 남짓 드물게 맑은 날이 계속된다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찬비가 쏟아졌다. 뒷마루의 미닫이를 열자, 냉랭한 바깥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요즘 명희가 정성껏 손질하고 있는 붉은 장미 한 그루가 좁은 마당 한 구석에서 비를 맞고 있다.

명수는 근 사오 일 동안, 웬지 모르게 누이의 태도가 변한 것을 어렴풋이 눈치 채고 있었다. 농담도 전혀 하지 않고, 우쭐해서 큰 소리도 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음악 얘기를 하지 않았다. 어젯밤에도 히비야(日比谷) 공회당(公會堂)에서 ‘제9회 교향악’ 연주가 있다고 피었으나 결국 명수 혼자 갔었는데, 돌아와서도 명희는 연주 결과를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명수는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후 형과 야스코의 얘기가 허사가 된 게 아닐까 생각했다. 명철이 보낸 편지를 혼자 읽고 명희가 자기 방식으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 달쯤 전에 야스코와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쁜 일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그러니 결국 일이 틀어져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명철이 편지 한 통 안 보냈을 리가 없다. 엽서는 두 장 보냈지만, 그저 간단히 줄임이 압박하니 바빠서 도쿄에 좀처럼 나갈 수 없을 듯 하다고 써어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명수는 자기도 그 사정을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명수는 사오 일이라 뚜껑이 닫힌 채로 있는 피아노 쪽을 보다가, 어젯밤 음악회 얘기를 꺼냈다. “너는 안가길 잘 했어. 어젯밤 교향악은 시시했어.”

명희는 비를 맞고 있는 마당의 장미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랬어?”하며 멍한 얼굴을 들어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 가까스로 정신이 돌아온 듯,

“노래가 별로였어?”하고 물었다.

“응. 특히 코러스가.”

“성량(聲量)이 부족했어?”

명희가 조금 관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라 명수는 웃으면서,

“성량은 지나쳤지. 그것도 상당히. 모두들 내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기를 쓰던 걸. 콩쿠르(concours)라도 되는 것처럼.”

명희는 슬며시 웃으려고 했다.

“게다가 소프라노 솔로가 히스테리컬해서 말이야. 실러(Schiller)<sup>26</sup>는 환의의 송가(頌歌)를 작곡했을

텐데, 노래는 올드미스의 비애의 영창(咏唱)이었고.”

명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래서 명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꺼냈다.

“형한테 그 뒤 뭔가 편지라도 왔었니?”

“경성에서?”

“아니, 자마(座間)에 있는 형.”

“아니, 왜?”

명희는 수상쩍은 듯 오빠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그날 밤, 불현듯 명수는 어떤 소리에 잠을 깼다. 귀를 기울여보니, 화장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애써 억눌러 참으며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는데, 구토를 참는 것 같기도 했다. 명수는 철렁해서 누이의 방을 돌아 보았다. 반쯤 열려 있는 문 사이로 빛이 흘러나오고 있다. 명수는 윗몸을 일으키고 얼이 빠진 듯 멍멍히 있었다.

새벽 무렵까지 명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명희가 임신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이 뇌리에서 소용돌이치며, 일체의 과거가 뒤집혀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이 밝자, 누이의 감정과 약간 부딪혀 가면서 하루 종일 일의 진상을 캐물었다. 예상대로 명희는 임신이었다. 사오 일 전에 진찰을 받고 의사로부터 임신 삼 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 뒤로는 무엇을 물어보아도 계속 울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누이의 흥분이 진정될 때까지, 이삼 일 동안 명수는 그 이상 물어보는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볼 일이 없는데도 매일 밖으로 나갔다. 근처의 빈터를 어정거리거나 아니면 도쿄에 나가 공원 안을 걸으면서, 누이의 상대가 누구일지 생각해보았다. 피아노 선생은 여자고, 그곳에 드나드는 남자 제자 중 하나일까. 누이의 행동을 보아 그 상대를 싫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자기에게 털어놓고 상의했을 터였다.

명수는 문득 야스마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언젠가 야스마사에게 편지가 왔던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것을 손에 받아든 명희의 태도도 짐작하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간 명희가 안절부절 했었다. 명희가 야스마사와 언제 그 정도로까지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상대가 야스마사라면 신경 쓸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누이를 범한 남자가 야스마사라는 사실이 명수를 안심시켰다. 명수는 일이 아무리 성가시게 될지라도 상대가 야스마사이기를 바랐다.

흥분상태가 다소 회복된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명희가 피아노 뚜껑을 연 것을 보고, 명수는 오늘은 한번 상대를 확인해보자고 생각했다. 명수는 하얀 건반을 내려다 본 채로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명희의 뒤에 가만히 다가가서 한 손을 뺀어 피아니시모(pianissimo)<sup>27</sup>)로 천천히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26) 독일의 시인이며 극작가.

연주했다. 두세 번 반복하고 있는 동안, 명희의 뺨에 차분한 미소가 떠올랐다. 명수는 일부러 태연하게 얘기를 꺼냈다.

“상대가 야스마사 씨 아니니?”

명희는 머뭇거리는 얼굴로,

“왜?”하고 물었다.

명수는 묵묵히 동생을 응시했다. 명희는 의자에 앉으면서 결국은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랬구나.”하며 명수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 “그렇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사정을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명수는 말했다. 명희는 그래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잠시 후 중얼중얼 의미가 분명치는 않았지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고마쓰바라 씨는 너와 결혼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거네.”

“응.”

“넌 고마쓰바라 씨가 싫지는 않고.”

“응.”

“그럼 왜 만나서 얘기하지 않는 거지?”

“.....”

“오늘이라도 나하고 같이 만나자.”

“아니, 안돼.”

“왜 안돼?”

“고마쓰바라 씨는 집을 나올 게 틀림없어.”

“.....”

“그렇게 되면 명철 오빠 일은 어떻게 되지?”

말끝에 명희는 울기 시작했다.

“역시 형 때문인가” 명수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피아노 뚜껑을 닫았다.

명철과 야스코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모르겠다는 편지를 받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명희를 생각하면 무리는 아니라고 수궁은 하지만, 사태가 이 정도로 절박하다면 문제는 또 저절로 달라진다.

“어쨌든 너는 고마쓰바라 씨를 만나야 해.”

“.....”

“네가 만나지 않겠다면 내가 만나마.”

“하지만 오빠.”

“명희야!”

명수는 조금 단호하게 말하며 동생의 어깨를 흔들었다. 뭔가 심한 얘기를 영겁결에 내뱉었지만, 자체하고 애가 타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난 고마쓰바라 씨하고 결혼 같은 거 안 해.”

---

27) 매우 여리게.

명희가 약간 냉랭한 얼굴로 분명하게 말했다. 명수는 한숨을 내쉬고 그 얼굴을 바라보며 압도하듯,  
“넌 고마쓰바라 씨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돼.”

“나 사실은 고마쓰바라 씨가 싫어.”

“난 거짓말 하는 놈은 싫다.”

“거짓말 아니야.”

“고집 센 놈도 질색이다.”

“나는.— ”

“명칭이!”

애가 타서 명수는 호통을 쳤지만, 명희는 조금도 주눅 드는 기색 없이 고집스럽게 오빠의 눈을 쏘아보았다. 명수는 때로 이런 일면을 드러내는 누이의 성격을 알고 있기에 자기가 양보하려고 안색을 누그러뜨렸다. 그러자 명희는 점점 더 흥분하면서,

“오빠가 고마쓰바라 씨를 만나는 건 상관하지 않겠어. 그 대신 난 편지로 분명하게 거절할 거니까.”

“어린애구나, 너.”

“그래, 난 어린애야.”

“아니, 넌 어린애가 아니다, 이제 엄마라구.”

명희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멍해졌다. 차츰 차분해져 고개를 숙이더니,

“어떻게 오빠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잖아.”

명수는 누이와 떨어져 의자에 앉으면서,

“이쪽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

명희는 묵묵히 얼굴을 들었지만, 시선은 오빠의 무릎 근처에 두었다. 명수는 감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대수롭지 않다는 어투로,

“너는 태어날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어서는 안돼. 그 아이의 몸 안에는 고마쓰바라 야스마사와 남명희의 애정이 섞여있어. 그 아이는 너의 아이지만, 너 혼자만의 아이가 아니야. 그 아이 신변에 일어나는 하나의 기쁨, 하나의 슬픔이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울음을 가져다 줄 날이 올 거야.”

“.....”

“너도 과거에 실패한 많은 실례를 알고 있겠지. 그건 엄마가 태어나는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야. 혹은 아빠의 애정부족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너는 지금 상대의 올바른 이해와 애정 속에 있어. 일부러 물러설 필요가 어디 있지? 너는 이겨내야 해. 적어도 너에게는 그래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명희는 점점 깊게 고개를 숙인 채 꿈쩍 않고 있었지만, 마침내 다다미 위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며,

“고마쓰바라 씨와 만날게요.”라고 했다.

명수는 드디어 누이를 데리고 역 앞 레스토랑에 가서 전화를 빌렸다.

명희가 직접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고마쓰바라 씨 계십니까? 저, 야스마사 씨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네, 남명희라고 전해주세요. 아, 야스마사 씨세요? 저 명희예요. 네, 아니오,—실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두 시쯤 긴자에서 만나 뵈 수 있을까요?—아, 신주쿠의 ‘다카노(高野)’에서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시에 다카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아닙니다, 그럼.”

상대가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서둘러 끊고 나서,

“오신다고 하네.”하고 명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럼, 준비하고 나가자. 나도 같이 갈게.”

집에 돌아오니 아직 시간이 있어서, 명희는 거울 앞에서 파우더와 볼티치만 사용해 열게 화장을 했다. 명수는 두 벌 있는 양복 중에서 감색의 수수한 것을 고르고, 넥타이도 어른스러운 것을 매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나갈 채비를 끝내고 신주쿠로 나섰다. ‘다카노’는 후르츠 팔러(fruit parlour)<sup>28)</sup>로 일층과 이 층이 찻집이었다. 명수는 대충 아래층의 칸막이 좌석을 훑어보고 나서 이 층으로 올라갔다.

구석에 있는 탁자에 쥐색 신사복을 입은 야스마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명수는 오래간만의 인사를 나누었다. 야스마사는 평상시의 무표정한 얼굴로 명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입주위의 근육에 이따금 경련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갑자기 오시라고 한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누이의 일로 꼭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하고 명수가 말을 꺼내자, 야스마사도 그 일에 대해서는 작정을 하고 온 듯 미간에 결의의 빛을 띠며 긴장한 얼굴을 했다.

“저는 사오 일 전 누이에게 처음 사정을 들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 고마쓰바라 씨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마쓰바라 씨, 누이와 결혼하실 의지는 있습니까?”

“명희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야스마사는 명희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여러 가지로 야스마사 씨 집안 쪽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그렇겠지요.” 야스마사는 탁자 위로 시선을 떨어뜨리며,

“하지만 결국 제 의지 문제니까요.”

“그렇습니까?”

명수는 흘깃 누이 쪽을 돌아다보고,

“명희는 야스마사 씨의 뜻에 따를 결심을 했습니다.”

“명희 씨 부모님께서서는 찬성해주실까요?”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

28) 과일을 주로 파는 가게.

“그리고.—”

명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주저하다가 간신히,

“명희는 지금 홀몸이 아닙니다.”했다.

야스마사는 입을 다문 채 약간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명수를 쳐다보고 나서 명희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집에 돌아오자 야스마사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저녁에 평소와 다름없이 다실에 내려와서 모친과 식사를 했다. 부친도 나중에 함께 했다.

방에 돌아와서 잠시 야스마사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이윽고 책상서랍을 열어 필요한 물품들을 꺼냈다. 선반 위에서 트렁크를 내려 그 안에 책과 소지품, 오오시마(大島)산 아와세(裕)<sup>29)</sup>와 바오리(羽織)<sup>30)</sup>를 한 벌씩 채워 넣었다.

한창 채비를 하고 있는데, 문을 노크하고 야스코가 들어왔다. 야스코는 오빠의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다가, 얼굴이 새파래져 잠시 말을 잃고 있었다.

“집 나간다.”하고 트렁크의 뚜껑을 누르면서, 야스마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

“명희가 임신했다.”

“어머.”

“조금 전 명희를 만나고 왔다. 네가 언젠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질 작정이다.”

“그럼, 아버지께 그 얘기를 했어?”

“아니.”

“그럼 일단 말해보면 어때?”

“인사는 드리고 가지.”

야스마사는 양복 장롱에서 봄 코트와 모자를 꺼내 들고 오른손에 트렁크를 들었다.

“기다려요.”하고 야스코는 이제야 정신이 든 듯 오빠의 팔을 붙잡았다.

“네게는 나중에 만나서 천천히 사정을 이야기하마.—쓸데없는 말은 하지말자.”

“나는 결코 반대하는 게 아니야. 다만 명희 씨 사정이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다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내가 일전에 고백한 건 허락을 얻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 반대야. 너는 명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장차 무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건 그렇지만.—”

“이 집안에는 선조 대대의 중요한 가계도가 있다. 명희가 끼어들면 그 가계도가 약간 곤란해지겠지.”

“그런 걸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 나에게는 지금,— 명희가 더 중요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고 해도, 폐적(廢嫡)<sup>31)</sup>해주시

29) 겹옷.

30) 일본옷의 위에 입는 짧은 겹옷.

지 않는다면 소용없어.”

“하지만, 그러면 오빠는 어떻게 하려고?”

“내 걱정은 내가 해.”

야스마사는 야스코를 상관 않고 트렁크를 들고 방을 나갔다. 야스코는 그 뒤를 쫓아 계단을 내려 오면서,

“어쨌든 이삼 일 더 생각해보고 나서 나가면 어때? 정말이지 나는 뭐가 뭘지 모르겠어.”

그러나 야스마사는 대답하려 하지 않고 척척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야스코는 도중에 오빠와 헤어져 다실로 들어갔다. 야스마사는 부친의 방에 들어가서 트렁크를 내려놓고 다다미 위에 앉았다.

부친은 책상 앞에서 요즘 들어 보기 시작한 요가쿠(謠曲)<sup>32)</sup> 책을 뒤적이고 있다가 뒤돌아보며, “뭐냐?”하고 물었다.

곧 야스마사의 차림새를 보고 잔뜩 눈살을 찌푸리고 일어서려 했다.

“일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야스마사가 침착하게 말하자,

“바보 같은 자식!”하고 부친은 일갈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향해, “하지메(初)! 하지메!”하고 불렀다. 복도에 쿵쿵 발소리를 내며 들어 온 것은 모친이었다. 모친은 달려오자마자 야스마사를 마주보고 앉아,

“야스마사, 안 된다.”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스마사는 모친의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있었다.

“나나 아버지에게 의논 한 마디 없이 집을 나가다니,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게냐?”

야스코가 들어오고 뒤이어 가정부가 들어왔다. 부친은 가정부를 향해,

“하지메는 됐다.”하고 말했다. 그리고 “내버려두세요.”하고 다시 모친이 말하자, 책상 앞에서 노래 책을 펼쳐들었다.

야스마사가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났다. 부친은 다시 뒤돌아보며,

“앉아라.”하고 말했다. 야스마사는 그대로 서 있었다.

모친은 부자(父子) 사이에 서서 잠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조금 안정을 되찾자 부친 곁으로 다가가 야스마사와 명희의 사정을 작은 소리로 털어놓았다.

부친은 충격으로 아연실색했지만, 곧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괴었다.

모친은 그러한 부친의 모습에 약간 안심하고 야스마사 쪽을 향해,

“넌 잠시 네 방으로 돌아가 있어라. 내가 아버지와 잘 의논해서 네게 좋은 쪽으로 조치해 볼 테니까.”

“안돼!”하고 부친이 모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버려.— 자기가 저지른 일은 남자답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물론 그럴 생각입니다.”

31) 적자(嫡子)로서의 신분(상속권)을 폐지함.

32) 일본의 대표적인 가면 음악극인 노가쿠(能樂)의 시가(詩歌)에 가락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

“그 대신,— 난 네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저 역시 안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시 기어들어오면, 그때야말로—확실하게 의절이다.”

야스마사는 트렁크를 들고 방을 나갔다. 야스코가 그 뒤를 쫓아갔다. 모친이 쫓아나가려고 하자, “당신은 여기 있어.”하고 부친이 불러 세웠다.

“하지만 여보,—”

“돈은 저런 놈에게 주어선 안돼.”

모친은 그래도 자식의 일이 걱정이 되는 듯 다시 방을 나서려 했지만, 거들 부친에게 저지당하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함께 살게 해줘도 되잖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체면보다도 내 자식이 중요해요.”

“.....”

“요즘, 눈에 띄게 저 아이의 기질이 바로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겠어요, 내가 가서 불러올 테니.”

부친은 묵묵히 있었다. 이윽고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자, 모친은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첩퍼덕하고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

야스마사는 집을 나와 행길까지 배웅 나온 야스코에게 자리를 잡으면 주소를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택시를 잡아 탄 후 곧 바로 세다가야(世田谷)로 갔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것뿐이야.”하며 야스코가 억지로 쥐어 준 지갑을 차 안에서 열어보니 십 원짜리 지폐가 다섯 장 들어 있었다.

명희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8시가 다 되어서였다. 명희는 현관에서 야스마사를 맞이하며 창백한 얼굴로,

“와주셨네요.”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그맣게 말했다.

야스마사가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비로소 그 사실을 실감한 듯 입술만 움직여 조금 웃으려하다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처럼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명수군은?”

“있어요.”

명희는 야스마사의 손에서 트렁크를 받았다. 안에서 명수가 새로 갈아입은 메이센(銘仙)<sup>33)</sup> 아와세(袷) 위에 헤코오비(兵児帯)<sup>34)</sup>를 두르면서 나오다가, 야스마사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잘 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야스마사를 명희의 방으로 맞아들였다. 세 사람은 거기서 잠시 쉬면서 서로의 얼굴을 관찰했다. 누구도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33) 비단실로 짠 천의 한 가지. 옷이나 이불 천으로 씀.

34) 흔히 남자가 유카타(浴衣) 등에 걸어로 매는 한 폭으로 된 허리띠.



명희는 야스마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명수는 일의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야스마사에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 것이 두려워 묵묵히 있었다. 야스마사는 별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윽고 명희가 부엌에 가서 홍차를 내왔다. 차를 마시면서 세 사람은 차차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다.

“이게 염치없는 부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명희와 생활해가는 것에 대해서도 시작할 때만은 고마쓰바라 씨가 양보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보면 아무래도 명희가 여러 가지로 단점이나 결점을 보일 것이 분명해서.”

잠시 잡담을 나눈 후, 명수가 그 분위기를 이어 평정한 어조로 말했다.

“가능한 서로 도와가며 해나가겠습니다.”

야스마사는 명희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명수를 향해 약간 웃으며,

“저는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명수 군은 어떤 일에 대해 선입견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입견 말입니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며 명수도 웃으면서, “하지만 처음으로 비평을 들으니 왠지 기쁘기도 합니다. 대다수가 비평을 하기 전에 먼저 동정부터 하니깐요.”

명수는 그 얘기를 피하려는 듯 화제를 두 사람의 생활 쪽으로 돌렸다.

“우선 당면한 문제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아파트로 옮긴다 해도 당장은 안정하기도 힘들 테니 이삼 일 정도 어딘가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행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을 취하고 나서 돌아오십시오. 그동안 제가 적당한 아파트를 찾아두지요.”

“.....”

“그만한 돈은 제게 있으니 모쪼록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야스마사는 약간 웃었지만 곧 진지해져 생각에 잠겼다.

실 명수는 두 사람을 여행 보내고 그 사이에 정리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다. 자마(座間)에 있는 형에게 두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일이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가 독단으로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명수는 털어놓고 난 후의 일이 다소 걱정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도쿄에 없는 편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오전 열시, 야스마사와 명희는 도쿄역에서 아타미(熱海)를 경유해 하코네(箱根) 온천으로 향했다.

명수는 이등석에서 두 사람을 배웅하며 플랫폼에서 혼자 기분이 들떠 있었지만, 열차가 떠나고 전승객들이 술렁거리며 지하도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 속에 섞여들며 이제부터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명희가 엄마가 되는 내년 5, 6월까지는 어떻게든 양쪽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두 사람을 정식으로 결혼시키고 싶다고 생각했다. 야스마사의 부친 쪽은 잠시 제쳐두고서라도 정작 부친이 둘의 결혼을

찬성할 것인지. 게다가 명희가 형식상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는 그야말로 불처럼 화를 낼 게 뻔했다.

편지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테니, 일단 자기가 그 전에 경성에 가야 한다. 그리고 야스마사의 부친과도 명희의 오빠로서 일단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게다가 야스코와 형의 문제도 있다. 또 야스마사가 취직할 때까지 두 사람의 생활비 같은 것도 생각해둬야 한다. 당분간 음악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수는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중요한 일을 하나씩 메모하며 정리해나갈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다. 첫 번째 일은 명철에게 둘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었다. 명수는 우선 편지에 그간의 사정에 대한 자초지종을 적어 내려간 다음,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뜻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삼 일 내로 학교로 면회를 갈 테니, 그때 다시 사정을 얘기하자고 적었다.

이튿날 저녁이 다 되어서 하코네에 도착한 명희로부터 편지가 왔다. 뜯어보니, 여관 이름이 찍힌 편지지에 가는 만년필 글씨가 유유히 이어져 있었다.

하코네 온천에 있는 ‘유모토칸(湯本館)’이라는 여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타미에서 오랜 시간 버스를 타느라 쌓인 피로를 대리석 욕조에서 풀었습니다. 졸지에 이려고 있으니 뭐랄까 신혼여행이라도 온 듯한 착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할 거 없다는 기분도 들지만, 웬지 그 행복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입장에 처해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빠에게는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만, 부족한 누이를 위해서 부디 힘이 되주세요.

야스마사 씨는 무엇을 보아도 놀라기만 하는 저에게 매우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담당 종업원이 식사 시중을 거절해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제가 뭔가 쓸데없는 일을 적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예정대로 도쿄에 돌아갈 생각이니,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다 읽고 나서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군.”하고 중얼거렸다. 자못 행복한 듯한 모습이 편지 행간에 어른거렸다. 명수는 일어나서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 사람을 꼭 결혼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명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자마(座間)에 있는 사관학교로 명철을 방문했다. 면회시간은 수업이 끝나는 오후 네 시부터 저녁식사 점호가 있는 여섯 시까지였다. 명수는 교문의 수위가 있는 곳에서 서명을 하고, 두세 번 가본 적이 있는 면회실로 가서 명철을 기다렸다. 그리고 형이 자기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생각해보았다.

무엇보다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처리한 것에 마음 상해할 것이 틀림없다. 명수는 형에게 어떠한 질책을 듣더라도 감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명철이 들어왔다. 평소와 같은 얼굴로 명수 쪽을 보고, ‘여어’하며 웃었다. 명수는 뭔가 착오가 생겨서 형이 자기의 편지를 읽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명수는 형이 자기 앞에 앉기를 기다려,

“내 편지 읽었어?”하고 먼저 물어보았다.

“그래. 읽었다.”

명철은 조금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편지에도 쓴 것처럼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혼자 결정하고 처리했는데, 뭐라 할 말이 없네.”

명수는 형이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사과를 했다. 명철은 방 한 구석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시골 출신으로 보이는 노부부의 몸짓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대로 “괜찮아.—잘 되지만 하면 그걸로 된 거지.”하고 간단하게 말했다.

“명희는 아직 하코네에 있니?”

“응. 어제 저녁에 편지가 왔어.”

명수는 벗어 둔 코트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명철은 묵묵히 그것을 받아 다 읽고 나서, 후훗, 하고 웃었다.

“그 녀석이—별써 한 사람의 아내라니.”

하면서 조금 눈을 가늘게 뜨고 창 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네가 지금부터 큰일이겠다.”

“응. 음악 공부는 당분간 쉬고, 분투해보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잘 부탁한다.”

“응. 내년 봄 일찌감치 나도 경성에 한번 가야하는데, 그때까지 형도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알았다.”

“도쿄에 있는 동안 시기를 봐서 야스마사 씨 부친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해 볼 생각이고.”

명철은 묵묵히 명수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다가,

“야스마사 씨 부친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하고 말했다.

“아니,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돼.”

“음. 그래도 만나지 않는 편이 좋아.”

“그럴까?”

명철은 느긋하게 웃으며,

“서로 흥분하는 건 그만두자.—명희는 야스마사 씨 인격에 맡겨둬. 너는 적당한 때에 경성에 돌아가 아버지를 설득시키도록 하고.”

명수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약간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별 관심 없는 듯 화제를 바꾸어 물어보았다.

“형은 그 뒤 야스코 씨하고 어떻게 되가고 있는 거야?”

“야스코 씨?”

명철은 웃으며,

“야스코 씨하고는,—뭐, 늘 제자리지.”라고 대답했다.

야스마사와 명희가 하코네에서 돌아오기 전에 명수는 두 사람의 아파트를 시부야(澁谷)구 도키마쓰(常盤松) 부근에 얻어 두었다. 국철 시부야 역에서 미야마스(宮益) 언덕길을 올라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조용한 주택단지였다.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명희의 가재도구 일체를 옮겨놓아 바로 생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피아노는 필요 없어. 오빠가 써요.”

명희는 건반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당분간 음악 공부 중지하기로 했으니까 됐어.”

명수가 그렇게 말하며 피아노 위에 있는 모차르트의 액자 위치를 바로잡고 나서, 야스마사에게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뭔가 상의할 일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저도 이삼 일 내에 아파트를 찾아 이사하려고 합니다.”하고 돌아갔다.

두 사람은 시부야 역까지 명수를 배웅했다.

역사(驛舎) 안으로 들어오자 명수는 야스마사에게 잠깐 실례하겠다고 말하고는 명희만 매점 옆으로 데리고 왔다.

“이거.”하며 명수는 흰 봉투를 명희의 손에 건네주려 했다.

“뭘데?” 명희는 내밀던 손을 다시 거둬들이며 오빠의 얼굴을 보았다.

“많지는 않아. 당분간 생활비로 써.”

“아니야, 됐어.”

명희는 그 손을 뿌리치며 야스마사 쪽을 흘끗 보았다. 명수도 그 쪽을 보고,

“고마쓰바라 씨가 폐라고 생각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힘들잖아.”

“그래도 이제 곧 취직된다고 하니까.”

“취직은 아직 모르잖아. 일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 입장이 곤란해. 이거 받으면 분명히 뭐라 할거야.”

명희는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명수는 아직 약간 흥분하고 있는 듯한 누이의 모습을 불안스럽게 보고 있다가, 또 그 땀 그때라고 생각하며

“그런가.”하고 돈을 집어넣었다.

“명철 오빠도 졸업하려면 여러모로 돈이 필요할거야. 그 돈 괜찮다면 오빠한테 줘요.”

“음. 형 문제도 있으니.”

“명철 오빠에게 내 일 얘기 했어?”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 형 일은 신경 쓰지마.”

명수는 주먹을 입가로 가져다 대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어쨌든 예정대로 일이 잘 안 되면 나한테 와.”

그리고 명수는 두 사람과 헤어졌다.

야스마사는 이튿날부터 아는 사람을 통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수가 우려하던 바대로 잘 되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어떤 형태로든 모두 부친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런 곳은 어떤 일인지 처음에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나중에 거절했다.

하지만 야스마사는 취직에 실패한 날도 그다지 비판하지 않았고, 아파트에 돌아와서는 “또, 내일 가보지.”하며 평소처럼 책을 읽거나 명희의 피아노 연주를 듣거나 했다.

명희는 그런 야스마사를 보면서, 취직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이 어찌면 부친 쪽에서 지인들에게 어떤 통지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면 야스마사가 좌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삼갔다.

여러 날이 지나면서 그 의혹은 점점 더 짙어져 갔지만, 명희는 평소대로 야스마사를 격려하며 활기 차게 배웅했다. 그런데 그날은 야스마사가 유난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저녁 무렵 아파트로 돌아왔다. 코트와 모자를 벗어 명희에게 건네고, “물 한 잔 줘.”하고는 의자에 가서 앉았다.

“차를 끓일까요?”

“아니, 물이면 돼.”

명희는 수도꼭지를 틀어 컵에 물을 받으면서, 오늘은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은 데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했다.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야스마사 앞으로 명희가 다가가서, 손에 든 컵을 눈가로 들어 올려 생글생글 웃으며 비쳐보는 시늉을 했다. 야스마사는 묵묵히 그 행동을 보고 있더니, 마침내 느긋하게 웃음 지었다.

“뭘 하는 거야?”

명희는 그 미소에 안심이 되어서 컵을 든 채로,

“내 얼굴 상당히 요상하죠?”하며 웃었다.

“상당히 재미있는 얼굴이군. 이런 즉흥시가 있어. 안약을 눈에 넣고 보는 간호사의 얼굴은 로랑생<sup>35)</sup>의 그림처럼 이그조틱(exotic)하다.”

“자, 상(償)이요.”

명희는 컵을 내밀었다. 야스마사는 그것을 받아서 다 마시고는 다소 진지한 얼굴을 했다.

“로랑생은 프랑스 화가지요?”하고 명희가 물었다.

“응.”

“어떤 화풍을 구사했나요?”

“네 앨범을 보면 알 수 있을걸.”

“어머, 그 정도였어요?”

야스마사는 웃으면서,

“이제 괜찮아, 고마워.”

“천만에요.”

35) 마리 로랑생(Marie Laurencin) : 1883~1956, 20세기회화의 가장 큰 흐름이었던 입체파와 야수파 중심의 파리에 술계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추구하던 화가로 남성중심의 화단에서 거의 유일한 여성 화가였다.

명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취직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

“그래요?”

“아버지가 이미 손을 쓰고 계셔.—그걸 알았다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을 텐데.”

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내일은 학교 선배한테 가보려고. 아버지가 그러시면 나도 생각이 있어.”

“.....”

“하지만 앞으로 네 일은 조금 힘들겠어. 나는 어떻게든 너를 내 호적에 올려놓고 싶은데.”

“이제 그 일은 얘기하지 말아요.—때가 되면 둘이서 어떻게든 해봐요.”

“그래.”

그날 밤 역시 야스마사는 울적해했다. 명희도 혼자 근심에 잠겼다.

이튿날 야스마사는 학창시절의 지인을 방문했지만, 결과는 역시 좋지 않았다. 두세 명을 방문했는데, 모두가 아버지 곁을 떠나 혼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야스마사는 취직 때문에 명희와의 사정을 밝히는 것이 불쾌해서 거절했다. 지인 쪽에서도 그다지 애석해하지도 않고 받아 들였다.

야스마사가 돌아와 보니, 명희는 책상 앞에서 한지(半紙)<sup>36)</sup>에 붓으로 몇 장의 이력서를 쓰고 있었다.

“뭘 하고 있어?”하며 야스마사가 엿보니,

“나 심심풀이로 일해 볼까하고요.”하며 명희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일을 하다니, 몸을 생각해야지.”

“그래도 이삼 개월 정도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는 동안 당신 취직도 결정될 테고.—”

명희는 오늘 처음 영겁결에 입 밖에 낸 당신이라는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음.”

야스마사는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다.

“당신, 또 내일이지요?”

“그래.”

“누가 빠른지 취직 내기해요.”

“그거야 내 쪽이 빠르겠지.”

“그럴까요? 그건 모를 일이죠.”

“당신은 신문광고인가.”

명희는 역시 오늘 처음 당신이라고 불린 것이 기뻐지만, 신문광고라고 가볍게 취급받는 것이 다소 뜻밖이어서,

“신문광고로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을까?”

---

36) 주로 붓글씨 연습할 때 쓰는 일본 종이.

야스마사는 웃었지만, 그리고 나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희는 야스마사가 암묵리에 자신의 취직을 허락한 셈이라 안심했다.

야스마사의 취직이 그렇게 손쉽게 되지 않을 것임을 명희는 알고 있었다. 지인이라고 해도 부친의 배경을 벗어던진 야스마사에게 친절을 베풀 리가 없었다. 명희는 매일 두세 통씩 이력서를 써 냈지만, 그 전부가 반송되거나 돌아오지 않았다. 한 통 정도는 면접일을 통지해올 만도 했는데, 맥이 풀렸다.

학력은 요구 조건을 갖추고 있어 사진을 동봉했는데, 용모가 마음에 안 들었나 싶어 거울을 들여다 보곤 했다.

“신문광고는 확실히 소용없나 봐요. 이렇게 되 돌아왔어요.”라고 명희는 책상 위에 이력서 뭉치를 올려놓았다. 야스마사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내 약간 침울한 얼굴로 손을 뻗어 명희의 머리 위를 두세 번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묵묵히 이마 위에 얼굴을 가까이 대었다.

명희는 뜻밖의 부드러운 태도에 놀라면서도 행복한 듯 눈을 감았지만, 곧 자기가 취직 애길 꺼내서 야스마사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스마사가 얼굴을 떼자 명희는 웃으면서,

“일은 내가 좋아서 하려는 거예요.”하고 변명을 했다.

야스마사는 묵묵히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야스마사는 한 통도 남김없이 이력서가 되 돌아오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또 그것은 야스마사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리하여 명희는 야스마사의 취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야스마사는 명희의 취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던 중 무슨 요행인지 명희에게 면접 통지서가 한 통 왔다. 긴자에 있는 소가와(相川) 부인양품점의 여점원 자리였다.

“그것 봐요. 내가 먼저잖아요.”하고 명희가 득의양양해했다.

“아직 예선(豫選)이니, 가봐야 아는 거지.”하고 야스마사는 웃었다.

명희는 약간 입을 뻐죽 내밀었지만, 곧 가슴을 내밀고 “걱정 없어요.”하고 으스댔다.

“면접이 내일인가?”

“네. 내일 오후 두 시예요.”

“그럼, 나는 책이나 읽으면서 집이나 볼까.”

“당분간 그러셔도 괜찮아요. 초조해하지 말고 조건이 좋은 데를 찾으세요.”

“그동안은 어떻게 살고?”

“제가 어엿하게 취직하잖아요.”

야스마사에게 얼굴을 바짝대고 집게손가락으로 코 앞을 쓰윽 문질렀다.

“음.”

야스마사는 그 코끝을 향해 웃었다. 명희는 새침을 떨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뭐가 음, 이에요?”

“아니야, 난 감탄하고 있어.”

“제 용기예요?”

“응. 옛날 속담에—”

“어떤 속담인데요?”

“장님이 뱀 무서워할까.”<sup>37)</sup>

“너무해요.”

명희는 등에 뱀이 스멀거리며 타고 올라오는 듯해 어쩐지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뱀이 동정해주지 않을까요. 불쌍한 장님에게.”

명희는 눈을 감고 처량하게 기가 죽은 얼굴을 했다. 그리고 약간 응석을 부리는 듯이 아래턱을 약간 쳐들었다.

“뱀은—그 가련해 보이는 얼굴을 좋아할거야.”

“너무해요. 당신은 날 좋아하면서도 이따금 그렇게 놀려대서 정말 싫어!”

명희는 얼굴을 돌리며 이제부터 말 안할 테니까, 하며 토라진 척 했다.

이튿날 점심 무렵부터 몸치장을 한 명희는 긴자로 나갔다. 소가와(相川) 부인양품점은 6정목에서도 유명한 가게여서 바로 찾을 수 있었다. 대기실에 들어가 보니, 먼저와 기다리고 있는 사오 인의 응모자가 있다. 명희는 눈에 띄지 않게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았다. 나중에 차례차례 또 다른 오륙 인의 응모자가 들어왔다.

드디어 시간이 되자, 응모자들을 한 사람씩 응접실로 불러들였다. 다소 불안한 기분으로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여자들의 안색을 살펴보았지만,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무표정했다.

그러는 동안에 명희 차례가 되었다.

“미나미(南) 씨.”하고 안내하는 소녀가 부르자 명희는 조금 망설였지만, 곧 자신의 성을 일본식으로 부른 것임을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응접실에는 마담으로 보이는 삼십 남짓의 오버 블라우스를 입은 온화한 풍모의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선선히 명희를 맞으며 의자를 권했다.

명희는 한번 사양하고 나서 차분히 의자에 앉았다. 마담은 가볍게 미소를 띠고는 이력서의 사진과 명희의 얼굴을 비교해보다가,

“남명희 씨죠?”하고 확인했다.

“네.”하고 명희는 끄덕였다.

“부모님은, 본적지에 살고 계신가요?”

마담은 조선이라고 말하려다가, 본적지로 고쳐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네. 경성에 계세요.”

“도쿄에는 누구 친척 분이래도 계신가요?”

그렇게 말하면서 마담은 명희가 입고 있는 정장을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네, 오빠 둘이 함께 와 있습니다만.”

37) 우리나라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와 같은 뜻.



“오빠께서는 어딘가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직 두 사람 다 공부 중입니다. 둘째 오빠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이고, 막내 오빠는 음악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안 사정으로 송금이 끊겨서 일을 해보려고—”

“그러세요?”

마담은 묵묵히 이력서로 다시 눈길을 주었다.

잠시 후 마담은 명희에게 가게의 정황과 근무시간 그리고 보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명희가 이의가 없다고 말하자 다소 격의 없는 얼굴로,

“도쿄에 온 지 오래되었나요?”하고 물었다.

“아니오. 재작년 봄에 왔으니까, 햇수로 삼 년입니다.”

“그래요?”

마담은 상냥한 얼굴로, 그런데도 일본어를 곧잘 하는군요, 라고 칭찬했다. 명희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만일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 이름을 바꿔 보는 게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예를 들면, 미나미(南) 양으로 부르다거나.—”

마담은 명희의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눈치 채고 웃으면서,

“그냥 단지 내 의견을 말해 본 것뿐이에요. 손님들 사이에서 이름을 부를 때도 남(南) 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나미(南) 양으로 부르는 게 친숙할 테니까.”

“그렇겠네요.—그럼,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채용 여부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해서 명희는 양품점을 나왔다. 마담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한 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없었지만, 웬 일인지 명희는 영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6정목에서 오와리초(尾張町)를 향해 인파와 뒤섞여 걸으면서, 마담의 웃는 얼굴에 안도해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들거나 대답하지 못한 대화는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뭔가 예의에 어긋난 대답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대화를 더듬어 가는 동안, 명희는 예기치 못한 한 마디 말이 떠올라 당혹했다.

“손님 사이에서도 남 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나미 양으로 부르는 게 친숙할 테니까.—”라고 웃으면서 마담은 얘기했었다. 명희는 자기 성(姓)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일종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무엇 때문에?

뒤라 표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명희는 공허한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이력서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되돌아 온 이유가 이제야 비로소 수궁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저 마담의 부드러운 미소에는 조롱이, 친절한 눈길에는 냉랭함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 진심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도쿄! 엄마와 같은 애정으로 품어주고 있다고 믿어왔던 도쿄! 그들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을 명희는 가까스로 이해했다. 그들의 애정 어린 비호(庇護) 속에는 결국 그만큼의 경멸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명희는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스키야(數寄屋) 다리를 건너서 히비야(日比谷) 공원으로 들어갔다. 연

못가 벤치에 손을 짚은 채 멍하니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명희는 느닷없이 야스마사를 끌어안고 엉엉 하고 울어버렸다. 야스마사는 취직 건이 틀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내심 안도하면서, “울긴 왜 울어. 조만간 내가 뭐든 하게 되겠지.”하고 위로했다.

명희는 잠시 동안 야스마사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은 채로 울고 있다가, 이윽고 울음을 그치고는 아무런 말없이 저녁식사를 준비하려고 옷을 갈아입었다.

야스마사 역시 물어보려 하지 않고, 창가에 기대어 저녁놀이 진 하늘을 응시하면서 내일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야스마사의 눈이 한 순간 번쩍하고 빛났다.

야스마사는 그 자세 그대로 꼼짝 않고 있다가, 곧 명희의 곁으로 다가갔다. 명희는 갑자기 엄숙해진 야스마사의 얼굴을 이상한 듯 쳐다보았다.

야스마사는 말없이 손을 쥐고 명희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명희 또한 처연하게 야스마사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반짝하고 끝내 눈물을 보였다.

“힘들지.—”하고 야스마사는 한 마디 했다.

명희는 흐느껴 울면서, 크게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야스마사는 명희를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 9

2월도 다가오고 점점 졸업시기가 임박해 옴에 따라, 명철의 초조함은 날로 더해갔다. 경성은 태어난 고향이고, 또 햇수로 5년여 동안 떨어져 뵈지 못했던 부모를 만나는 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없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만 커다란 부담으로 명철을 바짝 죄어올 뿐이었다.

이십 며칠이 졸업날이었다. 정식 졸업식은 원대(原隊)에 부임해 3개월 동안의 견습사관 기간을 마치고 다시 상경한 후 치러진다. 소위(少尉) 임관도 그때 비로소 받게 되는 것이다.

경성으로 돌아가는 날, 명철은 요도바시(淀橋)구 가시와기(柏木)에 있는 명수의 아파트에서 간단한 신변 정리를 하고 있었다.

“명희를 잠시 만나보고 갔으면 하는데, 아파트에 같이 가 주겠니?”

명철은 트렁크에 명수가 건네 준 서적을 꾸러 넣으면서 말했다. 오늘 떠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도 명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명수는 묵묵히 생각하고 있다가,

“명희는 형을 만나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명철은 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다. 명수는 화제를 돌려,

“그래도 야스코 씨에게는 기차 시간 정도는 알려주는 게 도리가 아니었을까?”

“.....”

“야스시게 씨가 알고 있으니, 알려주기는 하겠지만.—”

아홉시 반 급행으로 도쿄역을 출발하기 전에 명철은 명수와 야스시게를 긴자에 있는 ‘송희(松喜)’에서 만나 석별의 저녁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야스시게 씨가 야스코 씨를 데리고 나올지도 모르겠네.”

“야스코 씨는 오지 않을 거야.”

“오지 않을까?” 명수는 침묵하고 있다가,

“그렇다면 더 잘 됐네. 편지 한 장 쓰는 게 더 나으니까.”

“쓰기는 했었는데 찢어버렸다.”

명철은 침울한 어조로 말하며 얼굴을 돌렸다. 명수는 형의 시선을 좇아 서가 쪽의 시라무라(白村)의 연애관이라는 배경 글자를 바라보면서, “찢었다고?”하며 약간 웃었다.

“뭐, 도리어 잘 된 것일지도 몰라.—체념이라.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 상실로써 자신을 확대하여 완성할 수 있는 건 행복하다고.”

“.....”

“또 브라우닝<sup>38)</sup>시에도, 그녀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그녀를 얻었네. 그녀의 혼은 나의 것. 이리하여 완전한 하나로 나는 여생을 보낸다.”

“너는 경험도 없는 주제에 잘도 지껄이는구나.”

“소설이 가르쳐 주거든.”

“소설이 어떻게 인생을 다 아니?”

“인생은 소설을 모방한다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지.”

“자연은 예술을 모방하고.”

“누가 그랬지?”

“와일든였던가?”

명철은 일어나서 외투를 입었다.

“나가자.”

“응.”

아파트를 나와 두 사람은 천천히 신주쿠역까지 걸어가 국철 전차를 탔다. 좌석은 비어있었지만, 명철은 짐만 선반에 올리고 손잡이를 잡고 섰다. 명수도 그 옆에 나란히 섰다.

“야스코 씨는 결국 안 오나?”하고 말하며 명수는 형의 옆얼굴을 보았다. 명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화제를 바꾸어,

“내년 봄 내가 돌아갈 때까지 잘 하고 있었으면 해. 형도 형이지만, 아버지 심기가 불편하면 명희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알았다.—그런데 어째서 명희를 만나게 해주지 않니?”

명수는 입을 다물고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은 채 유라쿠초(有樂町)역에서 내렸다. 오와리초에서 중앙의 시계를 올려다보니, 여섯시 십분 전이었다. 아직 약속 시간

38)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 :1812~1889. 영국 빅토리아조를 대표하는 시인.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독백하는 극적 독백의 수법으로 〈안드레아 델 사르코〉등의 명작을 남겼다.

에 여유가 있었다. 두 사람은 7가에 ‘송희(松喜)’로 갔다.

이층 테이블에 야스시게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명철은 그 앞에 앉으면서 야스시게 옆의 비어있는 좌석을 잠깐 보았다.

“명희 씨는 안 오나요?”하고 야스시게가 말했다.

“명희요? 명희는—”하고 중얼거리며 명철은 명수 쪽을 돌아보았다.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밥 먹고 나서 명희를 만나러 가죠.”하고 야스시게에게 말했다.

전골 요리라도 함께 들면서 즐겁게 헤어지자고 약속한 모임이었는데, 요리가 들어와도 세 사람은 웬지 모르게 침울해 있었다. 명수는 야스시게에게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적당한 화제가 없었다. 명철과 야스시게는 군무에 관련된 일에 대해 조금 얘기를 나누었다.

명수가 태연한 어조로 “야스코 씨는 그 후 어떻게 지내십니까.”하고 물었지만, 야스시게는 마찬가지로 “건강히 지냅니다.”하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자,

“자, 그럼 명희한테 가보자.”하고 명철이 일어섰다. “혹시 모르니 전화를 해보고 가는 게 어때? 아파트 주소는 알고 있니?”

계단을 내려와 명철은 전화를 빌리러 휘장이 쳐져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자 명수가,

“전화 걸 필요도 없어. 명희는 이 근처에 있으니까.”

명철은 멈춰 서서 수상쩍은 얼굴을 했다.

“명희는, 일하고 있어. 가면서 말해줄게”

‘송희’를 나오자 명수는 변명하는 듯한 어조로,

“실은 그 후 야스마사 씨의 취직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명희가 자발적으로 이삼 개월 정도 그 일을 하기로 했던 건데.”

“그래서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요 앞에 있는 프롤라인(Fraulein)<sup>39)</sup>이라는 찻집이야.”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일할 만한 데는 있잖아?”

“음.”

“뭐가 음, 이야.”

“으음.”

명수는 약간 기운 빠진 얼굴을 하고 야스시게 쪽을 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 생활비 정도도 네 힘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었니?”

“명희는 나한테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어. 나중에 나도 꾸짖었지만, 명희 얘기로는 자기 들어서 보란 듯이 잘 해나가고 싶다고.— 오히려 본인은 재밌어해.”

“.....”

“프롤라인은 레코드를 주로 틀어주는 가게여서 조용한 곳이야.”

---

39) 영어로는 Miss로 미혼여성에 대한 높임말.

6정목 근처에서 긴자 뒷길로 가는 길을 몇 번 굽어 들어간 곳에 명희가 일하는 찻집이 있었다. 안에서 심포니가 들려오고 있었다. 명수는 문 앞에서 서서 생각난 듯이 명철을 돌아보며, “명희는 여기서, 흘 네임을 쓰고 있으니까 명희라고 부르면 곤란해.”하고 말했다.

“뭐라고 부르는데?”

“미와코(美和子)라고 불러.”

“미와코?”

명철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흘 안은 그다지 넓지 않고, 벽의 색도 상들리에의 형태도 모두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차분하게 안정된 느낌이 드는 가게였다. 학생이 두 커플 구석 테이블에서 속닥이고 있을 뿐, 다른 손님은 없었다.

검은 우단 옷을 입은 삼십 줄의 마담이 스탠드에서 세 사람에게 “어서오십시오.”하고 말했다. 명철은 이러한 찻집 분위기는 처음이어서 어색한 듯 자리에 앉으며, 축음기 앞에서 있는 여급들의 얼굴을 대충 훑어보았다. 명희는 없었다.

그중 한 사람이 메뉴판을 들고 다가 왔다. 명수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오늘 미와코 씨는 오전 근무인가요?”하고 물었다.

“아니요. 있습니다.”

“그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자는 구석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일본옷을 입은 명희를 데리고 왔다. 명희는 세 사람을 보고, 손에 든 레코드 앨범을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신의 복장을 살펴보는 시늉을 했다.

“잘 오셨어요.”하고 명희는 테이블로 다가와 야스시게에게 인사를 했다. 기모노를 입은 탓인지 갑자기 어른스러워보였다.

명철은 무표정한 채로,

“너, 내 편지 읽었니?”하고 성난 어조로 말했다.

“네.”하고 명희는 고개를 숙이며 발끝으로 조리(草履)<sup>40)</sup> 끈을 만지작거리면서, “미안해요.”하고 사과했다.

“형이 꼭 만나고 싶어 해서 데려 온 거야. 미와코 씨가 친구해서 역까지 배웅해주시지요.”

명수가 아주 진지하게 ‘미와코 씨’를 약간 힘주어 말하며 웃었다. 명희는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명철을 보고는 명수에게 “네에. 제가 배웅해 드리지요. 마담에게 얘기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라고 대꾸했다.

구석 쪽으로 들어가려는 데 “잠깐.”하고 명수가 멈춰 세우고는 명철에게,

“어때. 미와코 씨는 기모노가 잘 어울리지?”하고 말했다.

명철은 기분이 좀 풀려서,

“그래.”하면서 기모노 입은 누이의 모습을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

40) 일본의 짚신.

세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명희는 립스틱을 바르고 코트를 걸치고는 밖으로 나왔다. 유라쿠초(有樂町)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명수는 명희에게 “그래, 인생 공부 좀 되었니?”하고 말했다. 명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네거리로 향하는 동안, 명수와 야스시게의 걸음이 빠른 탓에 명철과 명희들과 거리가 벌어졌다.

명철은 그때까지 묵묵히 있다가,

“행복하니?”하고 비로소 말을 걸었다. 명희는 아래로 시선을 고정시킨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제멋대로 일을 저질러서 오빠한테 뭐라고 사과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제법 말도 침착하게 어른스럽게 하고, 자기에게도 난데없이 경어를 사용하는 게 명철은 기뻐다.

“아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다. 명수가 이삼 개월 더 도쿄에 있을 테니 두루 잘 의논해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야 한다.”

“명수 오빠는 시시콜콜 다 알고 있어요.”

“삼 개월 뒤에는 졸업식 때문에 다시 오니까 그때 오빠한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오빠는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내 일까지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니?”

그렇게 말하며 명철은 웃었다. 명희는 아까부터 뭔가 주변이 허전한 것을 느꼈는데, 듯 했는데 이제야 야스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빠에 대한 동정과 일말의 쓸쓸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야스코 씨에게 편지는 했어요?”하고 명희가 다소 어려워하며 물었다. 명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경성에 돌아가면 다달이 생활비 정도는 융통해서 보낼 테니까, 너 일 그만두면 어떻겠니.”

“오빠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좀 있다 그만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달려들어 일할 필요는 없었는데, 모두가 우리 일을 심하게 반대하니까 그냥 억지 좀 써본 거야.”

“억지를 부리는 건 좋은데, 좀 심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곧, 저 사람 취직될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요.”

네 사람은 유라쿠초(有樂町)에서 국철에 올랐다. 도쿄역에 도착하자 명철은 차표를 사기 위해 승차구(乗車口) 쪽으로 내려갔다. 개찰구에 있는 전자시계가 아홉시 십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을 올려다보면서 손목시계를 맞추고 있는데, 명수가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왔어.”하고 말했다. 명철은 돌리던 시침을 멈추고 명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야스코 씨가—”

명수가 웃으면서,

“거짓말 아니야.”하고는 매표 창구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어서 명철도 돌아보았다.

검은 아스트라한(astrakhan)<sup>41)</sup> 코트를 입은 야스코가 홋카이도(東海道) 노선 매표 창구 근처에 잠시

41) 러시아어. 불가강 하류의 아스트라한 지방에서 나는 새끼 양의 모피. 또는 이를 모조(模造)한 직물.

멈춰 서서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 옆에 야스마사도 있었다.

“어머, 야스코 씨네.”하며 명철도 야스코를 발견했다.

명철은 야스코 곁으로 다가갔다. 야스코는 명철을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했다.

“용케 와주셨군요.”하는 입까지 나오려던 말을 삼키고, 명철은 묵묵히 상체를 구부려 인사를 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야스마사에게 간단히 인사를 했다.

“실은 전 오늘 배웅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만, 저녁 무렵에 야스코가 아파트로 찾아와서.”

하고 야스마사는 말하며 야스코 쪽으로 침울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어조를 달리해,

“명희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은 제가 반드시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개찰이 시작되자 대합실에 있던 승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명철은 매표 창구 입구에 할인증과 요금을 냈지만,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걸 잊어서 직원에게 확인을 요구받았다.

개찰구에서 플랫폼까지 가는 동안, 명철은 야스시계와 별 내용 없는 두 세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객차 안은 이미 꽉 차있어서 좌석을 찾기는 곤란했다. 앞서 둘러 본 명수가 가까스로 발견한 빈 좌석에 외투를 놓아두고, 선반 위에 짐을 올리고 나서 다시 홈으로 내려왔다.

발차 시각까지 사오 분 정도 남겨두고 명철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럼, 야스코 씨도 건강하십시오.”하고 명철은 비로소 말을 걸었다. 야스코는 손에 든 핸드백 속에서 흰 봉투를 꺼내어,

“얼마 안 되지만, 가시는 도중에 도시락이라도 사서 드세요.”하며 얼굴을 쳐다보았다.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철은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

드디어 발차 신호가 울렸다.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와서, 명철은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또 다시 일동에게 인사를 했다.

차체가 흔들리며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 제자리에 서서 손만 흔들었다. 야스코만이 조금씩 발걸음을 빨리하며 명철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것도 배웅객들에게 떠밀려 이내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역내의 철도 전환기의 불빛이 파랗고 빨강계 명멸하는 가운데 시야에서 사라져 자취를 감추었다. 명철은 창을 닫자 좌석에 등을 기대고 얼마간 그 자세대로 있었다. 신바시(新橋)역에 정차했을 때,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플랫폼의 전자시계에 아까부터 멈춰서 있던 손목시계의 시침을 맞추었다.

이윽고 열차는 시나가와(品川)역을 지나, 몇 개의 작은 역을 통과했다. 명철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아까 야스코가 준 봉투를 꺼내 보았다. 밀봉이 되어 있는 봉투의 내용물을 꺼내니 흰 한지(半紙)에 ‘고센베쓰(御餞別)’<sup>42)</sup>라고 적힌 포장지가 나왔다. 펼쳐보니 십 원 짜리 지폐가 한 장 들어있었다. 한지를 뒤집어보아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42) 전별금. 작별할 때 떠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

창경원의 밤 벚꽃도 이주 남짓 후면 활짝 필거라는 삼월 하순 경. 명엽(明葉)은 며칠 전 아내 현숙(賢淑)과 말다툼을 하고, 이를 핑계로 집을 나와 찾집거리의 기생인 정부(情夫) 연선(蓮仙)의 집에서 오 일 동안이나 죽치고 있었다.

연선은 경대 앞에 앉아 저녁을 먹느라 망가진 화장을 열심히 고치면서, 이제 슬슬 부인 얼굴이 보고 싶어졌지요, 하며 비아냥거렸다. 명엽은 온돌 위에 길게 드러누워, 아암, 보고 싶어졌지, 하며 기지개를 한번 폈다.

“그런데 왜 안가요?”

“갈 거야, 오늘은.”

“정말?”

연선은 백분 가루와 분첩을 손에 든 채 돌아앉았다.

“응.”

“그래요, 좀 가줘요. 당신같이 미적지근한 사람하고 열흘씩이나 같이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으니까.”

명엽은 손을 뻗어 어질러진 밥상 위에서 작은 사기잔을 집어 들고, “자, 한잔 해,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지”하며 연선에게 들이댔다. 연선은 그것을 흘깃 보고는 다시 신경질적으로 백분을 툭툭 발랐다.

화장을 마치고 돌아보니, 명엽이 아직도 작은 사기잔을 들이댄 채여서 연선은 ‘큭’하고 웃음을 터트리며,

“나, 오늘 나가우타(長唄)<sup>43)</sup> 연습할 거예요. 여기서 더 마시면 채(撥)<sup>44)</sup>를 잡기 힘들단 말이에요.”하고는 일어서서 장구 위에 걸려있는 샤미센(三味線)을 끌어내렸다. 매일 한 시간씩 해오던 연습을 명엽이 와 있는 동안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온돌 위에서 견사 치마를 동여매고 양 무릎을 바짝 붙인 후 샤미센을 켜며, 연선은 ‘고카지(小鍛冶)’를 부르기 시작했다. 명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상의 종말에 남기는 수수께끼 심술궂네”

연선은 추임새를 넣어가며 싱글싱글 웃었다.

43) 가부키(歌舞伎) 무용의 반주음악으로 발전한 샤미센 음악. 나가우타(長唄)란 에도(江戸) 음곡(音曲)의 하나로, ‘에도 나가우타(江戸長唄)’가 정식 명칭이다. 즉, 일본 전통 음악의 일종이지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모토가타리(語り物)’와 달리 노래를 중심으로 한 우타모노(うたもの)이다. 연주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노래와 샤미센(三味線)으로 성립되는데, 곡목에 따라서는 소고(小鼓), 대고(大鼓) 북(太鼓), 피리(笛) 등으로 구성된 ‘はやし(お囃子)’가 뒤따르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샤미센 파트 외에 ‘우와초우시(上調子)’라는 샤미센 파트를 가진 곡도 있다. 에도시대에 가부키(歌舞伎)의 반주 음악으로서 발전하였으며, 대표적인 작사 및 작곡자로는 金井三笑, 富士田吉次가 있으며, 초대에 榎田治助, 杵屋正次郎과 9대에 杵屋六左衛門, 10대에 杵屋六左衛門, 11대에 杵屋六左衛門(3대의 杵屋勘五郎), 杵屋六翁, 杵屋勝三郎, 3대의 稀音家六四郎(2대의 稀音家浄観), 4대의 目吉住小三郎 등이 거론된다. 작사와 작곡의 분담은 불분명하다.

44) 비파나 샤미센 따위의 현악기의 줄을 튕길 때 쓰는 납작한 물건. 나무나 상아의 뿔 등으로 만들.



“네 노래는 너무 수심가 냄새가 나.”

“기생의 나가우타란 어차피 다 똑같아요.”

“게다가 발음이 엉망이잖아. 내 일본어도 그저 그렇지만 너는 너무 서툴러.”

“난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 알면서, 도대체 나가우타는 왜 부르는 거야?”

“그래도 요즈음 내지인 연회 자리에 불러 가면 항상 게이샤(藝者)하고 같이 샤미센을 켜는 걸요. 난 게이샤 따위에게 얽보이는 게 부아가 난다고요.”

“얽보이는 게 열불 나서 나가우타로 덤벼든다고?”

“그래서 미안하군요.”

“그래서 미안하군요? 나는 너를 동정하고 있는 거야. 네 나가우타 때문에 게이샤는 틀림없이 난감할거야.”

“뭘. 할 수 없죠. 아무리해도 능숙해지지 않으니까.”

연선은 다시 이어서 부르기 시작했지만, 음을 조율하려고 샤미센 줄을 조이자 그만 줄이 ‘뿡’하고 끊어졌다.

“이봐요, 정말이지 이제 이런 일 하는 거 질렸어요. 빨리 어떻게든 해줘요.”하며 채를 집어 던졌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함께 살 거라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잖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겨먹긴 했어도 부인과 함께 살면 숨이 막힐 거예요. 당신 부인 요전에 만났을 때도 되게 통명스러웠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모두 그런 식이라니까.”

“네가 그 사람과 만나 적이 있었던가?”

명엽은 손을 뻗어 연선의 소매를 잡았다. 연선은 뿌리치면서,

“시치미 떼지 말아요.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미쓰코시(三越)<sup>45)</sup>에서 당신과 내가 향수를 사고 있을 때, 난데없이 옆에서 딱 마주쳤잖아요.”

“아, 그 일?”

“아, 그 일이라니요? 그때 얼마나 아니꼬웠는데. 부인도 그렇지, 마치 자기가 당신하고 같이 온 것처럼 ‘여보 이제 돌아가죠’라니. 그런데 어쩔 당신까지, 내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지, 그만 갈까?’ 그랬으면서.”

연선은 그때의 능글맞던 명엽의 행태를 흉내 내보이고는,

“게다가 향수 값도 내가 계산하게 하고, 그때는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알았어, 알았다고. 분한 건 아마 향수값 때문일걸.”

“그건 그래요. 향수값 낸 게 더 분해.— 속상해요.”

“그렇게 분하면 내가 주지.”

“주세요.”

“없어.”

45) 미쓰코시 백화점.

명엽은 다시 손을 뺀어 연선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연선은 얼굴만 뒤로 빼서 포동포동한 이중 턱을 만들며,

“이봐요, 옛날 기생은 본처와 함께 살았던 모양이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싫으면 됐어.”

“그렇게 박정하게 말하지 말아요. 당신은 부잣집 장남이잖아요. 한 달에 백 원이나 되는 돈이 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엽은 연선의 머리를 감싸 쥐고 입술을 내리 눌렀다. 연선은 눈을 뜬 채 멍한 얼굴을 하고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명엽은 얼굴을 떼고는,

“내가 지금 너에게 키스했는데, 알아?”

“제발 어떻게든 해주세요.”

“생각해 볼게.”

“항상 생각한다, 생각한다, 당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군요.”

“어차피 나는 어쩔 수 없어.”

명엽은 고개를 돌리고 재떨이를 끌어당겨 피죤<sup>46)</sup> 한 대를 뽑아들고 불을 붙였다. 그때 문득 명철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졸업할 때도 슬슬 다가오고 있으니, 가까운 시일 안에 연대(聯隊)로 갈 것이 틀림없다. 오늘쯤 전화를 걸어 형편을 물어봐야지.

먼저 자기가 만나야 한다. 무엇보다 명철과 부친의 타협 여하에 따라 자기와 연선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다. 두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을 끌어올 때까지는 명철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었다.

명엽이 담배를 든 채 생각에 잠겨있자, 왜 그래요? 하고 연선이 얼굴을 내밀더니,

“같이 춤출까요?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Saint Louis Bluse)<sup>47)</sup> 한 곡.”

“.....”

“화났어요?”

연선은 짙은 속눈썹을 내리깔고 입을 오므리고 웃으면서, 손가락을 뺀어 명엽의 입술에서 담배를 빼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정원 쪽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연선이 있는가?”

장지문을 열고 들어 온 것은 네다섯 명의 한량과 그들의 정부인 기생들이었다. 한량이라고는 해도, 그들은 모두 중학 혹은 최고 학부를 마친 자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는 이유는,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재미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누군가에게서 비난받기라도 하면, 그들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반도인(半島人)은 직업을 거부한다.”

46) 일제시대 담배의 한 종류.

47) ‘블루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핸디(W. C. Handy)가 작사 작곡한 블루스 곡. 흑인 특유의 애수를 띤 작품으로 남자에게 버림받은 시련의 아픔을 술로 달래는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다. 현재도 널리 애창되고 있으며, 재즈의 스탠더드 넘버곡으로도 자주 연주되고 있다. 1920년대 최고의 가수였고 현재까지도 가장 위대한 보컬리스트의 하나로 꼽히는 베시 스미스(Bessie Smith, 1894-1937)가 1923년 최고의 히트를 기록하여 ‘블루스의 여왕’으로 등극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 반도인은 노는 것은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 한가한 기생의 집에 금지된 댄스를 하러 온 것이었다.

“모처럼의 시간을 방해해서 미안하군.”

그들 중 양복 외투를 맵시있게 차려 입은 한 사람이 명엽과 연선을 번갈아보며 히죽거렸다.

“천만에. 저녁 시간에 잘 와주었네.”

명엽은 몸을 일으켜 벽에 걸린 두루마기를 내렸다.

“돌아가는 모양이군” 하면서, 양복 외투는 연선에게 “두루마기라도 입혀주라구.”하고 말했다.

“신세가 많았네.”

연선은 두루마기를 받아 걸쳐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와주세요.”

“응.”

명엽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모자를 내리면서 모두를 향해, 그림, 실례, 하며 마루로 나갔다. 연선이 그 뒤를 따라 나오며,

“잘 생각해주세요.”

“응.”

“좀 더 확실히 대답해주면 어때서?”

“알았어.”

연선은 팔로 명엽의 목을 감고 입술을 삐죽 내밀며 웃었다.

“걱정 없어.”

“뭐가 걱정 없어요?”

‘픽’하고 화를 내며 연선은 고개를 돌렸다. 명엽이 개의치 않고 정원으로 내려가자,

“잘 가요.”

“바보로군.”

연선은 할 수 없다는 듯 웃으면서, “네? 꼭이요.”

“응.”

대문을 나서 어스름한 길을 빠져나가자, 명엽은 역시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현숙도 현숙이지만, 부친 또한 예의 입장 설교를 늘어놓을 것이 틀림없다. 언제나 그랬듯이 명철의 일을 두세 번 끌어들이더라도 부친을 잘 구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밝은 대로를 잠시 건다가, 이윽고 근처에 있는 친숙한 중국 요릿집으로 들어갔다. 계산대에 있던 보이(boy)가 맞이하며,

“외상값 갚으러 오셨나요. 남 선생님?”하고 치근대며 다가왔다.

“외상값은 월급날이 돼야 갚지.”

“어디서 일 하시길래?”

“아버지가 월급을 주시지.”

명엽은 우울한 얼굴을 하고 모자를 뒤로 젖히고는, 손을 뻗어 보이 앞에 놓인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전화하시려고요?”

“응.”

교환을 불러 76연대의 번호가 몇 번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나서 보이에게,

“외상값은 외상값이고, 전화는 전화겠지?”

“네, 그렇습니다만, 전화비는 꼭 현금으로 지불해주시야 합니다.”

“좋아, 좋아. 전화비 정도야 현금으로 지불하지.”

명엽은 교환수가 알려준 번호대로 연대에 전화를 걸더니,

“올해 동경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생도는 며칠 전에 부임하는지 알려주십시오.”하며 유창한 내지어(內地語)로 물었다. 상대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남명엽이라고 합니다만, 사관후보생인 친구를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올해 졸업한다고 해도, 사관학교는 12월이 졸업 시기라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 12월에 졸업한 후보생은요?”

“이미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면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연대 정문을 들어가면 곧바로 위병소(衛兵所)<sup>48)</sup>가 있을 테니, 그곳에 가서 물어보면 해당 당번병이 안내를 해 줄 겁니다.”

“면회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관입니까?”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통근하지 않는 사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 주세요. 면회시간은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졸업한 후보생은 지금 졸업식 때문에 상경(上京)했기 때문에 부대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임관(任官)하면 곧 돌아 올 테니,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와 보시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화를 끊고 나서, 명엽은 정면에 있는 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잠시 그곳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묵묵히 요리점을 나섰다.

이렇다 할 방향도 정하지 않고 전차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명엽은 혼자 히죽거리기 시작했다. 경성(京城)에 돌아온 지 삼 개월이 다 되어가는 데 아직 집에 얼굴을 내밀지 않은 것을 보면, 어쩌면 명철 스스로 부친과 인연을 끊으려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서는 자신이

48) 위병 근무를 하는 병사가 들어 있는 건물로, 대개 부대의 정문에 설치한다.

곤란해진다. 안됐지만 좀 더 참고 관계를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얼마간 그 녀석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다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지. 사실 나는 그 녀석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으니.”라고 명엽은 자신에게 변명했다. 사실 명철이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몰래 도와준 것은 명엽이었다. 명철은 부친과 형에게 숨기고 입학할 작정이었지만, 명엽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명철이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계통의 관계자가 본인의 신원을 조사하러 온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때 명엽이 응대를 하여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조처해주었던 것이다.

동생이 군인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 명엽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탓에 그 일에 찬성하는 것은 삼갔다. 그러나 그동안 유흥비로 빈궁해졌고, 그래서 그는 잠시 명철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부친에게 명철의 일을 고해 부친의 노여움에 기름을 끼얹음으로써, 그는 부친에게서 돈을 받아냈다. 아버지는 명엽에게 몇 번이나 명철을 군적에서 빼내겠다는 약속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명엽은 그것을 약속했다. 그리고는 또 돈을 가져갔다.

명엽은 경성제대를 나오고도 빈둥빈둥 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그의 집에 재산이 있어 놀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에서였을 뿐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내선인(內鮮人)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 따윈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먼 바다를 건너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대한 처우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대 조선 청년의 타입 가운데 이론만 내세우는 있는 허무주의자, 진실을 지키기 위한 침묵주의자, 혹은 일부 일본친화주의자, 그리고 아첨하며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명엽은 그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는 그저 별 볼일 없는 남자였다. 만약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고 질문 받는다면, 그는 조금 당혹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아버지의 유산은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저물자 그윽한 정취를 풍기기 시작한 종로 거리는 오늘도 밤에 쏟아져 나온 인파로 붐볐고, 계절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기생의 옷차림에서도 경쾌한 봄기운이 느껴졌다. 명엽은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동안 어느 새 3정목의 교차점으로 나와 버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정신을 차려 지나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옛날에는 단순히 계동(桂洞)이라고 불렸던 고급 주택가가 있는 계동정(桂洞町) 입구까지 와서 차에서 내렸다. 자기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밤 부친을 잘 구슬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대문의 쪽문이 열려 있었다. 명엽은 허리를 숙여 안으로 들어갔다. 머슴 병철이 자기 방에서 얼굴을 내밀길래 영겁결에 인사를 하자, 이제 오십니까, 라고 대꾸했다.

“아버지는 거실에 계십니까?”

명엽은 머슴에게 물었다. 명엽은 머슴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집안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격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글쎄요.”하고 머슴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명엽은 개의치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중문(中門)을 빠져나와 넓은 안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디근

자로 마주 보고 있는 세 채의 건물 중 가운데 건물에 부친이 거처하는 방이 있었다. 그 옆방은 사랑채로 되어 있는데, 그 근처로 가자 방안에서 부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명엽은 마당에서 높은 봉당(封堂)으로 올라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실례합니다” 하면서 장지문을 열었다.

부친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웃에 살고 있는 숙부인 인기(仁基)를 상대로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풀이 죽어서 서있는 명엽을 보자,  
“뭘냐?”하고 급히 안색을 바꾸었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왔다고?—누가 돌아오라더냐? 이 바보 같은 놈, 썩 나가거라.”

“네.”

명엽은 문을 닫으려고 했다.

“문은 닫지 않아도 돼. 내 방에 가서 얌전히 기다리거라. 오늘 밤은 네게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명엽은 부친의 방으로 갔다. 두루마기를 벗어 벽에 걸고 나서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부친은 의견을 말할 때 안경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돛자리 위에 양 무릎을 꿇고 앉아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일이었다.

이윽고 황급한 발소리가 마루에 울리는가 싶더니, 문이 열리고 부친의 숨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명엽은 고개를 떨군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부친은 잠시 위에서 명엽을 노려보다가, 이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방석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는 간간한 모습으로 턱수염을 두어 번 훑었다.

그 후로도 부친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려고 하지 않고, 손에 든 긴 담뱃대에 담배를 채워 넣더니 담뱃대를 입에 물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손닿는 곳에 성냥이 없어서 부친의 위엄은 다소 무너지는 듯했다. 명엽이 주머니에서 찾집 성냥을 꺼내 건네자, 부친은

“됐다.”하고 불쾌한 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위엄을 바로 잡았다. 그러나 불쾌감은 더욱더 심해져 갔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다.”

“네.”

“그것뿐이냐, 이 불효자 같으니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부친은 담뱃대 끝을 명엽의 코앞에 똑바로 들이대면서,

“몇 번이나 그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할 테냐?”

여기서 명엽은 늘 그래왔던 대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은, 명철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명철이는 됐다”

부친은 일언지하에 말을 잘랐다. 명엽은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 분명히 무슨 일인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사오일 집을 비웠다는 것 정도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가 없

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집을 비우곤 했으니, 부친에게는 더이상 화를 낼 기력도 없을 터였다.

명엽이 생각에 잠겨있자 부친은 안절부절 하다가, 이윽고,

“갑녀(甲女)야, 갑녀야”하고 큰 목소리로 하녀를 불렀다.

갑녀는 더러워진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조용히 뒷마루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대답보다 먼저 모습을 보이는,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부친은 장지문의 유리창 너머로 갑녀를 내다보며 성냥을 갖고 오도록 분부했다. 갑녀는 조용히 사라졌다가 곧 성냥을 가져왔다. 그리고 장지문을 열고 부친에게 성냥을 건넸다.

부친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며 조금 진정된 모습으로,

“기생 질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 뒤치닥거리를 이 아비에게 돌리는 건 또 뭐냐?”

“누가 뭐라든가요?”하고 말하면서, 누가 다녀가기라도 한 것일까 생각해보았다. 최근 들어 뭔가 고하러 올 만한 사람을 생각해보니, 두세 명 정도 떠오르는 여자가 있다.

“몸 파는 여자에게 아이를 임신시키고는 이 남씨 집안에 드나들게 하다니.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떤 여자입니까?”

“내가 일일이 그런 몸 파는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직 돌아가지도 않고 안방에 있다. 이번에는 정말 나는 일절 상관하지 않을 테다. 어떻게든 너 혼자서 좋을 대로 해보려무나.”

“그럼 잠시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하니.”

명엽은 일어서려고 했다. 적당한 구실이 생겨 부친 곁을 벗어날 수 있으니, 오히려 환영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자 부친은 단념한 듯,

“그런데 명철이가 대체 어떻다는 게냐?”하고 말했다.

명엽은 히죽 웃으면서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까 연대 쪽에 전화를 걸어 봤더니, 앞으로 일주일 내에 착임(着任)한다고 합니다.”

“그래?”

아버지는 평정한 척하려 했으나 두세 번이나 거듭해서 담뱃대를 잘못 물었다.

“그럼, 이제 학교는 졸업한 것이 되는 게냐?”

“그렇습니다.”

“너는 그 학교를 나오기 전에 그만 두게 하겠다고 하더니, 대체 어떻게 된 게냐?”

“그게, 몇 번이나 학교에 편지로 따져 물어도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시다. 결국 그것이 본인의 의지라면 어쩔 수 없다면서요.”

“흐음.”

부친은 불만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괴로운 얼굴을 했다.

“아무튼 명철이가 착임하면 연대 쪽에 가서 한번 면회를 하고, 잘 알아듣도록 얘기해서 반드시 군적(軍籍)에서 물러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내가 무엇 하러 그 녀석을 낳아 길러 학교에까지 보냈을까?”

“그러게 말씀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집으로 끌고 와 너처럼 돌려두는 편이 낫지.”

명엽은 부친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는 생각에 다소 난처한 얼굴로,

“그런데 아버지, 아까 그 여자 말입니다만, 뭔가 착오가 있었다 해도 어쨌든 소란을 피우면 집안의 체면 문제도 있으니까, 어머니께 옷 한 벌 사주셨다 생각하시고 삼백 원만 융통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명엽은 ‘어머니’라는 말에 조금 힘을 주어 말했다. 명엽은 부친의 첩인 난홍(蘭紅)을 가리킨 것이었다. 부친은 불쾌한 기색을 확연히 내보이고 명엽을 노려보다가,

“좋다. 어떻게든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를 보내거라.”

부친이 말하는 어머니란 친어머니였다. 아버지는 불쾌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랑채 쪽으로 갔다. 명엽은 일어나려다 다리가 저려 휘청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뭘, 이걸로 댔다”하고 히죽거렸다.

명엽은 두루마기의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두루마기를 손에 든 채 방을 나왔다. 구두를 신고 어머니가 있는 안방으로 가려고 마당에 내려서는데, 별채의 외판방에서 난홍이 나왔다.

“어딜 가느냐?”하고 명엽은 거만한 태도로 물었다. 부친 앞이 아닐 때면 명엽은 자기보다 세 살 아래인 기생 출신의 난홍에게 경어를 쓰려고 하지 않았다. 난홍이 침착하게 잡자코 있자,

“아버지께 가는 게냐?”

“네.”

“돈 때문이라면 허사야. 지금 막 나하고 한 판 벌인 참이니까.”

“싸운 거예요?”

“아, 뭐.”

그래도 난홍은 명엽의 어깨 너머로 부친이 기거하는 방 쪽을 바라보며 미련이 남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 정말 재미없어, 봄이 왔는데 옷 한 벌 장만하지 못하고, 정말 우울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명엽은 그녀를 배웅하면서, 뭐, 좀 더 참고 견디라구, 하며 웃었다.

그건 그렇고, 골치 아픈 문제를 갖고 온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하고 명엽은 생각해보았다. 이즈음 아이를 낳았다면 일 년쯤 전의 일일 텐데, 그때 춘월(春月)과 금화(錦花), 그리고 또 누가 있었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방에 가보았더니, 거기에 와있는 것은 전혀 얼굴도 모르는 여자였다. 아니, 다시 잘 보니 어딘가에서 본 기억은 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는 동안 마침내 생각이 났다. 종로 4정목에 있는, 지금은 이름도 잊어버린 요릿집의 작부였다. 그리고 그때 술에 취해서 평소의 버릇처럼 허세를 부리며 명함을 건넸던 것이 기억났다.—명엽은 천성이 사람 좋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실책을 자주 되풀이하곤 했다.—그러나 그것은 술자리 상에서의 단 하루밤의 교제에 지나지 않았다.

여자는 흑단 장롱 앞에 모친과 나란히 앉아 등에 업은 아이를 어르고 있었는데, 방으로 들어 온 명엽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야”하고 명엽은 문 입구에 선 채 불쾌한 듯이 말했다.

“어머, 그랬군요.”



여자는 물끄러미 명엽의 얼굴을 올려다보고는 가까스로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로 웃지는 않았다.

“얼굴도 모르면서 잘도 찾아왔군.”

“그때는 제가 취해 있었으니까요.”

“서로 그랬지.”

명엽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방금 저쪽에서 대강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애가 어쩐다고?”

모친이 옆에서 너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명엽은 잠시 그쪽을 바라보고 나서 다시 여자에게,

“나를 속이는 건 괜찮지만, 어째서 우리 어머니까지 속이는 건가.”

“아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정말 당신의 아이라구요.”

등에 업은 아이를 명엽 쪽으로 향하여 보여줬다.

“어디?”하고 명엽은 찡그린 표정으로, “그게?”

“네.”

“그 아이의 어디가 나를 닮았다는 건데.”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닮았는걸요.”

여자는 고개를 돌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명엽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는,

“뭘, 좋아. 그렇지만 물론 나는 아이를 떠맡지 않을 거야. 그 대신 이백 원을 줄 테니, 한 장 쓰라구.”

“아무래도 삼백 원은 받아야겠어요.”

“아무래도 삼백 원은 받아야겠다고?”

명엽은 가없다는 듯이 웃으며,

“용케도 그런 말을 지껄이는데. 나는 내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 대가로 이백 원 내놓겠다고 말한 거야. 싫으면 됐어.”

여자는 잠자코 있다가,

“그럼 이백 원이라도 주세요”하고 말했다.

“너, 글 쓸 줄 알아?”

“아니요.”

“그럼 내가 지금 써줄 테니까 손도장 찍어.”

명엽은 모친을 향해 부친께 이야기 해놓았으니 가서 돈을 가지고 와달라고 말하고는 마루를 따라 자기 방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정리를 해야 하는 아내 현숙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자, 무척 우울해졌다.

현숙은 부내(府內)의 여자전문학교를 나온 갑부집 딸로, 조선 내에서도 잘 알려진 몇 안 되는 지식 계급의 여자이다. 그녀는 사려 깊은 여성의 본분을 지키고 스스로 학식이 있다는 것을 뽐내지는 않았지만, 상대에 따라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높은 식견을 내보였다. 그리고 그 높은 식견은 대체로 말을

수반하지 않는 경멸의 형태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위로는 부친으로부터 아래로는 하녀 감녀에 이르기까지, 이 남씨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녀의 높은 견식이 발휘되는 대상이었다. 남편인 명엽조차도 존경하는 인물 안에 들지 못했다. 그녀는 늘상 남편의 행동거지에서 가장 비굴한 점만을 찾아내서는 언짢아했다.

그녀는 유행을 쫓지 않는 순조선식의 복장을 좋아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녀의 취미 때문이었다.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았지만, 음악은 좋아했다. 그중에서도 고대의 종교음악 같은 것들을 좋아했다. 그녀에게 심포니는—통속적이었다.

현숙은 이미 감녀에게 들어서 남편이 돌아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별로 동요하는 기색 없이 장롱 위와 남편의 책상 위 그리고 벽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기 잘못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았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잘못이 있다면, 남편은 그것을 구실삼아 자기 허물을 흐리려 하는 것이었다.

그때 마루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명엽이 태연하게 문을 열고 “다녀왔어”하며 들어왔다.

마치 주변을 산책이라도 하고 돌아온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자 현숙은 울화가 치밀어, 오늘은 결단코 무언가 한 마디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명엽은 그 기미를 읽어내고는 손에 든 두루마기를 건네면서, 잠깐 기다리라며 제지했다.

“얘기는 좀 이따 하지. 잠깐 용무가 있어서.”

명엽은 책상 앞에 앉아 깨끗하게 닦여 있는 바닥을 ‘후후’ 불며 먼지를 치우는 시늉을 했다. 현숙은 그런 비겁한 시늉에 또 기가 막혀 눈썹을 찌푸리며 남편의 뒤로 다가갔다. 명엽은 편지지를 한 장 뜯어 만년필로 영수증을 쓰기 시작했다.

일금 이백 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함. 이후 본인은 귀하와 어떤 관계도 없음을……

“안팎으로 바쁘신가 보군요.”

영수증을 흘깃 들여다보며 현숙이 입을 삐죽거렸다.

“하다못해 백 원이라도 필요한 것은 바로 나라구요.”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려.”

“더 이상 어떻게요?”

“아니, 아까 아버지께서 나더러 시답지 않은 취직 같은 걸 할 바에는 차라리 노는 편이 낫다고 하시더군. 그러니까 당신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엽은 영수증을 다 쓰고 나서, 곧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방을 나왔다. 현숙은 그동안 두루마기를 양복 옷장에 넣고 나서 첼로 독주곡집을 한 장 들었다.

이어서 두세 장을 듣는 동안 명엽이 돌아왔다. 현숙은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날도 레코드를 들을 정도의 여유는 갖고 있다는 듯이 보이려 했다. 하지만 명엽은 헤아리기도 전에 그것을 이용하려 들었다.

“흐음, 아주 멋진 곡이군.”

그는 축음기 앞으로 다가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현숙은 묵묵히 사운드박스를 열었다.

“좋잖아? 가끔은 이렇게 들어서 레코드를 들으며 음악 이야기라도 하지.”  
현숙은 대꾸하지 않고 레코드를 케이스에 집어넣고는,  
“대체 일주일 동안이나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라며 명엽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닷새라구.” 하면서 명엽은 손가락을 꼬았다.  
“그게 그거죠.”  
현숙은 발끈해서 저도 모르게 품위 없는 말을 내뱉었다가 간신히 자신을 돌아보고는 조용히,  
“벌써 이게 몇 번째예요?”  
“알았어.”  
“그동안 당신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오늘은 한마디 좀 해야겠어요. 자,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죠?”  
“알았다고 하잖아.”  
명엽은 케이스에서 레코드를 꺼냈다. 현숙은 그것을 뺏으면서,  
“또 지난번에 미쓰코시에서 만났던 그 기생인가요?”  
“으음.”  
“으음이 뭐예요?”  
“그러니까—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좋을 대로 하면 된다고 항상 말하잖아.”  
“이제 와서 제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이런 고생도 안 하지.”  
현숙은 약간 창백해지면서,  
“아, 알겠어요. 저보고 이 집을 나가라는 거군요.”하며 일어나려 했다. 명엽은 현숙의 치맛자락을 밟아 누르며,  
“바보 같으니. 말이라는 건 그렇게 확실하게 내뱉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 생각이라 해도 방법은 다 있지. 당신과 나는 아직 좀 관대한 편이잖아. 나와 아버지를 생각 해봐. 한 꺼풀만 벗기면 그냥 선혈이 낭자하다고.”  
명엽은 돗자리 위에 길게 드러누웠다. 현숙은 남편의 모습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는 이윽고,  
“자, 오늘은 그만 됐어요. 내일 다시 천천히 이야기해요.”  
“내일 다시 천천히라니?—이제 됐잖아? 다 잘 알았다고.”  
“아니요, 당신은 잘 알았다지만,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현숙은 경대 위에서 비누와 타올을 집어 남편의 옆에 놓았다.  
“씻고 오세요.”  
“씻는 건 됐어.” 명엽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씻고 오시라니까요.”  
“나는 오늘 안방에나 가서 자야겠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현숙은 남편의 손에 강제로 타올을 들려주었다. 명엽은 마지못해 일어섰다.

창경원의 벚꽃이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피기 시작했다. 창경원 내의 식물원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동물원의 관람객 수도 날이 급증해갔다. 이 무렵 명철은 소위로 임관하여 연대에 있었다.

도쿄에 있는 동안 결국 야스코를 만나지 못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야스마사와 명희가 진심으로 환영해주었다. 게다가 명철을 기쁘게 한 것은 야스마사가 부친의 묵인하에 마루노우치(丸の内)의 모 회사에 취직한 일이었다. 야스마사는 명희의 입적(入籍) 문제에 대해서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곧 무언가 보여주겠다고 했다. 남아있는 명수도 그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도쿄를 떠나는 날까지, 야스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애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모두들 그 이야기는 가능한 한 꺼내기를 피했다. 단지 야스시게만이 졸업식 날 야스코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 주었다. 그나마도 일상생활에 대한 지극히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야스시게는 매일 자기 집에서 연대로 통근하고 있다고 했다.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널 때 갑판 위에서 동경 쪽을 바라보며, 자기는 이제 다시 도쿄에 올 기회가 없을 테니 야스코와도 영원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감개에 젖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군 업무를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그런 감상에 빠져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연대에 도착하자, 생각했던 것 이상의 힘겨운 근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안에서 훈련을 받고, 야외로 나가 연습을 하고, 또 책상 위에서 노트를 펴고 배운 군사교육이, 실지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명철은 깨닫게 되었다. 부하의 훈련에 참여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특수한 입장을 반성하고 사소한 실패까지도 철저히 경계했다.

밤이 되면 병영 내 숙소에 틀어박혀 수험공부를 시작했다. 육군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외출도 하지 않고, 자진해서 아버지나 형을 만나러 가지도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동안 부친 쪽에서 만나러 오면, 자기 의견 정도는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전을 조금 지나 명엽이 찾아왔다.

“남명엽이라는 분이 소위님께 면회를 왔습니다.”

당번병이 보고하길래 이쪽으로 오시도록 하라고 명했지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있으니 당번병에게 안내되어 온 명엽이 신경질적인 얼굴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다. 명엽은 회색 견두루마기를 대충 걸치고 모자도 없이 올백의 머리 그대로 들어서면서, 여어, 하고 불렀지만, 딱딱한 얼굴로 명철의 군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명철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순간적으로 적당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명엽은 살풍경한 방 안을 쪽 둘러보더니, “의자에 좀 앉으마”하고 조선어로 말했다.

“그러세요.”

명철은 신경써서 형에게 자기 의자를 권했다. 그리고 맞은 편 침대 위에 걸터앉으며, “오랜만이네

요”라고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음, 사오 년 못 본 사이에 완전히 어른이 되었구나.”하고, 명엽은 다시 명철의 몸을 쳐다보고는 되는 대로 말을 건넸다.

“군복이 꽤 잘 어울리는군. 군대는 재미있느냐?”

명철은 밀어붙이는 투로 말하는 형의 조선어에 약간 당혹해 하면서,

“형님, 죄송하지만 내지어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명엽은 이상하다는 얼굴로,

“너는 조선어를 모르느냐?”

“하지만 여기는 연대 안이라서.—”

“연대 안에서는 조선어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냐?”

명철은 잣미 형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침묵했다.

“오히려 네 쪽에서 조선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 예의라고 나는 생각한다만.—게다가 나는 도무지 일본어는 짬병이고.”

“.....”

“하지만 너도 이젠 조선어를 잘 모르게 된 모양이니, 누구 통역할 사람이라도 부를까?”하고 명엽은 문 입구 쪽을 돌아보았다. 명철은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조선어로 말하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 년 동안 한 마디도 할 기회가 없었던 터라, 명철의 조선어는 서툴렀다. 도쿄에 있는 명수와 명희의 얘기, 그리고 경성에 계신 부친과 모친의 얘기를 하는 도중 적당한 형용사 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물거렸다. 명엽은 그때마다 의젓한 쓴웃음을 지으며 일일이 가르쳐 주었다.

“너도 조선어를 잊게 된 것을 보니, 슬슬 어엿해져가는구나. 거기다 내지인 처라도 얻으면 더 훌륭하겠고.”

명철은 다소 반항적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는 것이 좋아. 암, 그게 좋지.”

명엽은 웃으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름도 바꾸는 게냐? 부하를 지휘하는 데에도 그 편이 낫겠지. 남명철이 지휘한다고 하면 지휘 받는 쪽이 오히려 당황스러울 테니.”

명철은 약간 성난 기색으로,

“형님은 오늘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뭘, 너랑 이런 이야기라도 나누려고.”

“군대정신은 신성합니다. 모욕하지 말아주십시오.”

명엽은 묵묵히 아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품에서 담배를 꺼내들고 한 대 뽑아 불을 붙였다. 그리고 명철에게도 권했다.

“안 피웁니다.”

“모범 소위로군. 하지만 담배쯤이야 피우든 안 피우든 마찬가지로 아니냐?”

“용건을 말씀해주시시오.” 명철은 약간 애가 탔다.  
명엽은 담배 연기를 느긋하게 뿜어내며 잠자코 있었다.  
“군대정신이 신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명엽은 약간 태도를 바꿔 진지한 얼굴로,  
“하지만 남명철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건 네 착각이지.”  
그 말을 듣자 명철은 약간 고개를 떨구었다.  
“그건 다시 듣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을 때조차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요.”  
“진리는 보편적이니까.”  
“그렇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도쿄는 저를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경성은 저를 이해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르는 사람들은 네 편을 들고, 아는 사람들은 네게 반대하는 셈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도 될 수 없을 걸. 그러니 괴로운 입장에 놓일 수밖에.”  
“하지만 제겐 저의 생활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생활할 수는 없지.—”  
명엽은 미끈미끈한 어조로,  
“그런 그렇고, 좀 귀찮지만 내가 너의 그 주의(主義)를 분석하여 비판해보도록 하마.”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저는 제 행위에 대해 비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네가 비판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 둘래야 그만 둘 수 없는 마음속의 욕구 때문이지. 이를테면 하나의 정열이라고나 할까.”  
명철은 형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자, 화가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그러나 상대는 친형이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고 잠자코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명료한 사실이다. 게다가.—”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 내가 잘 납득할 수 있도록 네가 네 행동을 설명해보거라.”  
명철은 양 팔꿈치를 무릎 위에 대고 묵묵히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문득 야스코가 떠올랐다. 야스코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등등의 일을 막연히 생각해보았다.  
명철은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동기라든가 의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을 때가 가장 곤란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이론을 정립한 적이 없는 것이다. 다만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옳다고 믿는 길을 솔직하게 걸었다.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는 스스로 의식하지 않았다. 일본주의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조차 형에게 들어서 처음 알았다.  
그렇게 의식을 갖지 않은 행동이란 가장 순수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엽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막연히 명철의 양심을 괴롭히는 동안, 명엽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다시 담배 한 대를 뽑아 불을 붙였다.  
“실은 아버지께서 너를 군적에서 빼내오라고 하신다.”  
“저는 종신관(終身官)입니다.”

“그건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태어나서 이십 년이라는 세월을 남씨 집안에서 자라왔다. 설령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해도 아버지의 의견은 일단 가장의 의견이다. 너는 가장의 의견에 대해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부러 괴로워 할 필요는 없지.”

“하지만 저는 또 그런 완고한 가족주의가 과거의 조선을 얼마나 망쳐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반항하고 있는 게냐?”

“저는 아버지나 형에게 반항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방해받지 않을 리 없지. 지금 그 완고한 가족주의가 너를 만나고 싶어하니— 사실 오늘은 어떻게든 너를 아버지께 데려가지 않으면 내 입장이 곤란하다.”

“.....”

“너도 이십 년이나 키워준 부모님께 같은 경성에 있으면서 한번 찾아뵙지도 않고 ‘사요나라(さよなら)’ 할 수는 없을 게다.”

명철은 잠자코 있다가,

“지금 가야 하는 겁니까?”

“어쨌든 가서 아버지를 한번 만나주었으면 한다.”

“그렇습니까. 그럼 가죠.”

명철은 결심하고 일어나면서 군모를 손에 쥐었다.

“아버지 앞에서 군복은 좀 곤란한데. 뭐, 갈아입을 옷은 없냐?”

“일본 옷이 한 벌 있습니다만.—”

“일본 옷?— 일본 옷도 곤란한데.”

명엽은 고민 끝에,

“일본 옷이 군복보다는 좀 나은가. 아니, 아무래도 일본 옷보다는 군복이 낫겠지.”

군복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두 사람은 그대로 병영 문을 나섰다.

명엽은 이 정도 해 두면 일단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이상 몰아대는 것은 좀 딱하기도 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무뚝뚝한 얼굴을 한 채, 한강로로 나가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차 안에서 명철은 매우 흥분해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래 오 년 남짓 부친과 모친을 전혀 뵈지 못한 것이었다. 부모를 등지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하면 남씨 가문과 절연하겠다는 각오를 품고 있는 명철에게도 오랜만에 부모와 대면한다는 생각은 감개무량했다.

“아버지께서 뭐라 하실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일단 사과부터 드려라. 아버지는 의절하겠다고 하실 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 쓰지 않아도 돼.”

남대문길을 벗어나고 황금정(黃金町)<sup>49)</sup>을 지나 종로 2정목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명엽이 말했다.

49) 현재의 을지로.

“군인을 관두겠냐고 물으시거든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나머지는 나와 의논하자.”  
 “그만 두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작정입니다.”  
 “아니, 부모에 대한 예의는 예의니까, 생각해보겠다고만 해둬. 그저 그렇게 해두면 돼.”  
 “형님은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나는 별로 어떻다는 생각도 없다. 나야 항상 그런 인간이지.”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겠군요.”

이윽고 차는 계동(桂洞)에 닿았다. 명엽은 집 대문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는, 명철을 데리고 왼쪽 길로 들어가 돌담을 따라 뒷문 앞으로 돌아왔다.

명엽은 쪽문을 열고 몸 반쪽만 들이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 들어가자고 말했다.

안마당의 한 편은 널찍한 꽃밭이었다. 파헤친 검은 흙으로 몰랑한 이랑을 쌓아 놓았다. 몇 그루의 포도 넝쿨도 겨울잠에서 깨어 시렁 위에 걸쳐져 구불구불 뻗어있었다. 담을 따라 일렬로 된장독과 김칫독이 늘어서 있다. 모든 것이 옛날 그 자리에 놓여 있어 눈에 익었다.

명엽은 다시 명철을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상황을 엿보러 본체를 벗어나 안마당 쪽으로 걸어갔다. 그동안 명철은 화창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숙연하고 고요한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다시금 감개가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여러 번 개축을 되풀이하면서 대대로 이어 내려온 이 저택의 고려기와는 푸른 이끼로 덮여 있었다. 뒷마당을 반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돌담도 옛 모습 그대로였다. 모든 문화의 파도가 틈새 바람조차 거부하고 있는 듯한 견고한 흙벽은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의 완고함을 상상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매일 이 저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금도 모순을 느끼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 떨어져 있는 동안 명철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담 하나를 경계로 하여, 20세기 문화의 파도가 소란스레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안쪽에는 태고 이전 년 전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엄한 관습과 기이한 풍속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다. 명철은 이 집에서 다시 먹고 자고 하는 안일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혐오했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하고 또 자신을 그와 같은 환경 속으로 끌어넣으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명엽이 안마당으로부터 돌아와서는, 아무도 없으니 들어가자고 말했다. 명철은 형을 따랐다. 두 사람이 안마당으로 들어서자, 난홍의 방 아궁이로 빨나무를 나르고 있던 병철이 먼저 명철을 발견했다.

병철은 빨나무 뭉음을 내려놓고 두 손을 비벼가면서 다가왔다.

“도련님, 돌아오셨습니까.”

명철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병철은 명철의 군복을 눈이 부시다는 듯 올려다 보며, “굉장히 출세하셨군요.”라며 기뻐해주었다.

“병철이도 꽤 나이가 들었군. 부인과 아이도 건강하고?”



“네, 마누라도 자식 놈도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요. 잠시 마누라를 불러 올까요?”

“아니, 괜찮네. 명철이는 우선 아버지께 불일이 있어서.”라며 명엽이 서둘러 나가려는 하인을 붙잡아 제지했다.

“지금, 누구 다른 손님은 안 계신가?”

“글쎄요.”

하인은 예의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때 손님 한 사람이 긴 담뱃대를 입에 물고 문 안으로 들어왔다. 바로 근처의 원서정(苑西町)에 살고 있는 백부였다. 명엽은 그 모습을 보고는 아뻐싸, 싶었다. 일단 자기와 부친이 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친척 어느 누구에게도 명철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 뒷문으로 들어 온 것이었는데,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백부는 중문을 등지고 서서 큰 기침을 하고는,

“병철아—.”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하인의 이름을 엄숙하게 불렀다. 하인은 “네—”하고 대답하고 나서 갑자기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그 앞으로 다가갔다.

“준기(俊基, 부친)는 지금 있느냐?”

“글쎄요.”라며 병철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백부는 하인의 대답에 개의치 않고 마당으로 살쥔 몸을 천천히 옮겼다. 명엽이 요행을 바라면서 “좋은 날씨입니다”하고 인사를 하자, 백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더니 그 뒤에 선 명철을 수상쩍은 듯 유심히 쳐다보았다. 눈꺼풀의 균살에 감춰진 실낱같이 가는 눈이 얼마간 탐색하듯 바라보더니, 이윽고 명엽을 돌아보고는 담뱃대로 명철을 가리키며 물었다.

“누구냐?”

“네, 명철입니다.”

“흠, 그 녀석이 명철이냐?”

“네.”

“군인이로군.”

“네.”

“흠.—”

백부는 명철을 보고 위엄을 부리면서,

“나를 잊었느냐?”

“아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인사 정도는 하는 게 옳지.”

“오랜만에 뵙습니다.”하고 군모를 벗으면서, 각오를 하기는 했지만 명철은 화가 났다. 백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객실 쪽으로 갔다.

“이거 참,—큰일이군.”하고 명엽은 백부의 뒷모습을 보며 괴로운 얼굴을 했다.

명철은 다소 반항적으로,

“이번엔 아버지 차례입니까?”

“뭘, 기다려봐라. 이제 완전히 일이 틀어졌으니.—백부는 모두에게 이야기할 것이 틀림없다. 까딱 잘못하면 친족회의다.”

“그렇다면, 저야 뭐든지 감수할 작정입니다.”

“그야 너는 괜찮겠지. 하지만 나는 좀 곤란하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명엽은 주먹을 감싸 쥐고 마당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 아버지의 방으로 가자.”

그때 하인에게서 소식을 전해들은 모친이 안방에서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와 명철의 이름을 불렀다. 명철은 뒤를 돌아보고 대답하면서 마당을 가로질러 모친에게 다가갔다.

모친은 성인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압감을 주는 군복을 보고는 조금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여러 가지로 어머니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서있지 말고 얼른 안으로 들어 오거라.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면 정말 큰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잠깐 뵙고 오겠습니다. 어머니와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지요.”

“아니, 안 된다. 아버지와 만나더라도 옷차림을 바꾸지 않으면,—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는 요즈음 매일 내 이야기만 하시는데.”

모친은 어떻게든 옷을 갈아입고 가도록 말했다. 명엽도 그렇게 할 것을 권했다. 그래서 명철은 안방으로 들어가 군복을 벗고 형의 조선옷으로 갈아입었다.

“어느 새 이렇게 어깨가 넓어져 버렸다니.—”

모친은 명철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어깨와 허리 부근을 어루만졌다.

“아버지께는 죄송하다고 잘 말씀드리고 오너라. 그리고 저녁 먹고 가렴.”

모친은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명엽은 개의치 않고 안방을 나섰다. 부친이 계신 방 앞에 이르자, 명엽은 명철을 봉당 아래에 얹전히 세워놓고 자신은 조용히 마루 위로 올라서서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부친이 백부 앞에서 무언인가를 거듭 사죄하고 있었다. 백부는 양반다리를 하고 담배를 피우며 묵묵히 외면하고 있었다.

“명철이가 돌아왔습니다”하고 명엽이 쭈뼛쭈뼛하며 말했다.

“뭘라고?”라며 아버지는 백부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일어났다. 그리고 마당에 서있는 명철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 질렀다.

“명철한 놈! 무슨 면목으로 여길 왔느냐? 너 같은 자식은 자식으로 생각지도 않는다. 의절이다. 썩 나가거라!”

‘황’ 하고 문을 닫고, 부친은 거친 숨을 내쉬면서 백부 쪽을 바라보았다. 백부 역시 옆을 향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결심한 듯 다시 한번 격한 말로 욕을 하면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 명철은 없었다. 그 대신 하인이 우두커니 서 있다가 머리를 굽적거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명철이는 어디로 갔느냐?”

“글쎄요.”라고 대답하며 하인은 안방 쪽을 돌아보았다.

“에이, 삼시 세 끼 밥은 꼬박꼬박 쳐 먹으면서, 뭐가 글쎄요냐? 저리 가거라.”

부친은 또 다시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았다.

명철은 안방으로 돌아왔다. 모친이 걱정스러운 듯 명철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물었다.

“씩 나가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명철이 웃었다. 어머니는 안쓰러운 얼굴로,

“아니, 그럴 리가 없다.”라며 말을 가로막았다. 명엽이 곁에서 웃으면서,

“아니에요, 지금 마침 백부가 와 계셔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외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명철이를 백부께 들켰느냐?”

“예에.”

“그거 참 곤란하게 되었구나.”

모친은 또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명철을 바라보았다. 명철은 일어서서 군복을 찾았다.

“어떻게 하려고?” 명엽이 물었다.

“아무래도 군복을 입고 있어야겠어요.”

“하지만 다시 아버지를 뵈야 한다.”

“군복 차림으로 뵈겠습니다.”

“그럴 테냐?”

명엽은 입을 다물었다. 명철이 군복을 다 갈아입자, 모친은 다시 불안해져 명철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동경에 있는 명수와 명희의 근황과 병영 내의 식사에 대한 것 등을 여러 가지로 물었다.

명엽은 옆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명철에게, 너, 군적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다면 집에서 통근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 하고 내지어로 말했다.

“너를 군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면, 통근이라도 시키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책임지우셨다.”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한번 통근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조선 가옥에서 카키색의 군복이 뻥질나게 드나드는 일도 매우 이색적이고.”

명엽은 히죽거렸다.

“형님은 저를 조롱하시는 겁니까?”

“아니, 진심이야. 그저 내 말투가 그렇지. 그렇게 네가 뻥질나게 드나들면 근처의 몽매한 이웃들이 이상하게 여길 게 틀림없어. 너는 거기에 눈길도 주지 않고 거리로 나가 버스를 타고 차장에게 내지어로 표를 사는 거야. 배경은 이윽고 너저분한 조선 거리에서 잘 정돈된 일본 거리로 바뀌고, 빌딩이 늘어서 있는 문화 거리로 어지럽게 옮겨지겠지. 너 자신도 얼마간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곧 연대에 도착하고 나면, 너 자신의 직책을 깨닫고 검을 뽑아 부하에게 호령을 하고.”

“저녁에 근무를 마치고 나면, 이번에는 그 반대가 되겠군요.”

“그렇지. 너는 이 놀라운 양극단으로 매일 두 번씩 비약하는 영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다.”  
명엽은 진지한 얼굴로 몸짓까지 섞어가면서,  
“네가 아침에 일어나 연대에 가는 동안, 네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돌변하는 인격의 수는 죽히 열  
가지는 될 게다.”  
조금 있다 명엽은 다시 진지한 얼굴이 되어 조선어로,  
“어떠냐. 형수 한번 만나보련?”하고 물었다.  
“사진으로는 꽤 미인시시던데요.”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명철이 예과(豫科)에 재학하고 있던 때였다.  
“아니, 결혼은 실패였어.”  
“그래요?”  
“네 형수와 사이가 나쁜 건 내가 기생집에 다니는 탓만은 아니야. 그놈의 학문 탓도 있지.”  
“명수도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격 나름이지요. 명희를 보세요.”  
“명희는 네가 열두세 살 때부터 내지인 여학교에 다녔잖니. 그 아이는 거기서 이미 인생의 시련을  
크게 겪은 거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다소 괴로웠겠지만, 그 애의 장래를 위해서는 잘된 거지. 그것도 굳이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를 설  
득했기 때문이지만.—”  
“그런데 제 일은 어째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명철은 웃었다.  
“그저 반대하고 싶으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어.”  
명엽은 화제를 바꾸려는 듯,  
“너도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학문 있는 여자와는 하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학문이 없는 여자도 곤란하지요.”  
“그런 생각은 좀 곤란해. 현실은 철저히 아니까. 전부가 아니면 전무지.”  
두 사람은 잠시 묵묵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럼, 형수님께 인사하러 가죠.” 하면서 명철이 일어섰다.  
두 사람이 현숙의 방에 가보니, 난홍이 와서 말 상대를 하고 있었다. 난홍은 모친이 안방 출입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에, 심심할 때면 곧잘 현숙의 방으로 놀러왔다. 현숙은 이 무지하고 가련한 여자  
를 동정하여 난홍이 자기 방에 드나드는 것에 관대하려 했다. 그러나 난홍은 그런 상대의 호의는 아  
랑곳 않고, 놀러올 때면 으레 비속한 화제를 꺼냈다. 현숙은 자기의 교양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상대의  
무신경함에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가끔 화제가 미묘한 곳을 건드리거나 하면 종종 이야기에 빠져  
들었다.  
“또 음담패설인가?”  
명엽이 들어오며 난홍을 보고 웃었다. 현숙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비속한 말투에 놀라서,  
“당신.—”

“알았다구.”

명엽은 마루에 서 있는 명철에게 들어오라고 말하고는,

“동경에서 문제의 그 명철이가 돌아왔어.”

“어머, 그래요?”

현숙은 남편의 뒤로 약간 몸을 틀어 마루 쪽을 쳐다보았다. 명철은 방으로 들어와 두 여인을 보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한 얼굴을 했다.

“기다려, 내가 지금 소개하지.”

명엽은 두 여인을 차례로 보면서 망설이다가, 역시 난홍 쪽을 먼저 소개했다.

“이쪽은 네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너의 새어머니시다.”

그리고 나서 현숙을 가리키며,

“이쪽은 네 형수고.”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명철은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여인에게 번갈아 고개 숙여 인사했다.

현숙은 인사로 답례하면서도 명철의 군복에 약간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난홍은 곧 방긋방긋 웃으며 군복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현숙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현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숙은 일어나서 직접 홍차를 내왔다. 그리고 명철에게 예의상 두세 가지 가벼운 질문을 했다.

“명희 씨는 건강한가요?”

“네.”

“피아노 솜씨는 많이 늘었겠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것뿐으로 현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식어 갔다. 그러자 난홍이 분위기를 살리려는 요량으로, 자기가 술집에 나가던 무렵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군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군인과 자신이 서로 좋아해서 한번은 정사(情死)를 시도하기까지 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홍은 눈을 감고 황홀해 하면서, 당시의 평온한 기분을 나타내려고 방긋 웃어 보였다. 명철은 아무리 기생이라지만 부친의 첩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워 묵묵히 있었다. 반면 명엽과 현숙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때 마당 쪽에서 “저,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라고 하녀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 말인가?”하고 명엽이 장지문 너머로 소리치자,

“어르신의 아우님 말씀입니다.”하고 하녀가 대답했다.

명엽이 현숙 쪽을 돌아보자 현숙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 계집은 배운 게 없어 말을 함부로 하니 정말 큰일이예요”하고 명철을 향해 웃었다.

“그럼,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명철은 난홍과 현숙에게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명엽이,

“알겠지? 아버지가 군인을 그만두라고 하시면, 의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다. 그만 두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는 마라.”

명철은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부친의 방에 가보니, 백부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듯 방에 없었다. 부친은 들어오는 명철의 군복 차림을 힐끗 쳐다보고는 곧 불만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불기 없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성냥을 긋는 것도 잊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명철은 부친 앞에 예의 바르게 무릎을 꿇고 앉아,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죄드렸다.

부친은 옆쪽을 향한 채 여전히 침묵했다. 이윽고 헛기침을 한번 하고 관을 고쳐 쓰고는 생각났다는 듯이 성냥을 집어 들었다. 성냥을 한 개비 뽑았지만 불을 붙이려고는 하지 않고 입에서 담뱃대를 떼면서,

“불효자식 같으니라구!”라고 낮게 말했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애비에게 그런 꼴을 보이려고 오 년씩이나 동경에 있었던 게냐?”

“죄송합니다.”

부친은 성냥을 그어 담뱃대를 한 모금 빨고는,

“동경에서 명수와 명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수란 놈도 곤란한 녀석이군. 낱고 길러서 전문학교까지 보내주었으면 감지덕지하고 노래를 해야 할 판에.”

“.....”

“명희도 그렇고, 그 녀석도 빨리 불러내야지. 벌써 나이가 스물둘이니 어영부영하다가는 데려 갈 사람도 없어진다.”

“스물셋이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다, 여자가 나이 스물다섯씩이나 되면 이제 남의 첩 자리뿐이지.”

“하지만 내지 여성은”

“내지 여자는 내지 여자로, 조선 여자는 조선 여자지.”

부친은 골치 아픈 듯이 말하고는, 담뱃대의 재를 떨구고 거칠고 잘게 썬 담배를 다시 담뱃대에 채워 넣었다.

“게다가 여자가 언제까지고 학문을 하면 건방져진다. 명희도 보통학교 정도가 딱 좋았는데. 네 형수 좀 봐라. 그 애는 콧대가 높아서 시애비를 시애비로 여기지도 않는다.”

하고 부친은 명엽의 방 쪽을 흘겨보았다. 명철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지만, 부친은 군인 신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다.

잠시 뒤, 부친은 가까스로

“군대에서는 보리밥을 먹는다는데, 보리밥은 맛이 형편없겠지?”하고 말했다.

“아니요, 꽤 훌륭합니다.”

“흐음.”

아버지는 조금 기분이 좋아져서,

“네 부하는 모두 반도인(半島人)이냐?”

“아니요, 내지인입니다.”

“호오, 네가 내지인을 지휘한단 말이냐?”

부친은 상체를 앞으로 내밀려다가, 곧 의식한 듯 양반다리를 고쳐 앉으며 표정을 다잡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물었다.

“이제 군대를 그만둘 수는 없는 게냐?”

“그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명철이 결의의 빛을 보이자 부친은 가로막으며,

“됐다, 됐어. 이제 물리기도 좋다. 나중에 내가 명엽이에게 잘 이야기하마. 명엽이에게 이리로 좀 오라고 해라.”

명철이 방을 나가자, 아버지는 점점 더 신경질적인 얼굴이 되어갔다. 그리고 담배 찌꺼기를 신경질적으로 주물 재떨이에 털었다.

“부르셨습니까?”하고, 잠시 뒤 명엽이 들어왔다.

“게 앉거라.”

부친은 담뱃대로 자기 앞을 가리켰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가지런히 무릎을 꿇은 명엽을 신경에 거슬린다는 듯한 얼굴로 빤히 쳐다보았다. 명엽은 또 무언가 훈계가 있을 것을 알아차리고는 안경을 벗었다.

“너는 대체 무슨 얘길 했다는 거냐. 응? 명철이가 내게 잘못을 빌기는커녕 군인을 그만 두겠다고도 않는다.”

“명철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아까 제가 훈계를 했더니, 아버지께 가서 잘못을 빌겠다고 했습니다만.—”

“나도 지금 빠져리게 훈계를 했으니, 너도 다시 잘 이야기를 해서 군인을 그만두게끔 해라.”

“예.”

“어서, 지금 가서 그렇게 말 하거라.”

명엽은 아무래도 바빠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백부가 명철이의 일을 아무래도 친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하신다. 그러시는 걸 내가 사정해서 한 달간의 여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든 해야 한다.”

### 3

병영 마당의 포플러나무가 5월의 상쾌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건조한 코발트 빛깔의 대기 속에 부딪히는 목총 소리와 용맹한 구호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매일 격렬하게 계속되는 훈련도 이제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은 계절이 되었다.

그날 명철은 평소처럼 한 시간 정도 늦게 영내의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상의를 벗어 땀

범벅이 된 셔츠를 창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말리면서 목욕탕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밖에서 누군가가 노크를 했다. 돌아서서 대답하자 당번병이 들어왔다.

“소위님께 전보 왔습니다.”

명철은 당번병이 내미는 전보용지를 받으면서, 드디어 명희가 출산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분만을 하게 되면 곧 전보를 쳐서 알려줬다고 명수가 얘기해 두었던 것이다.

전보를 펼쳐 보니, 발신국(發信局)은 도쿄의 요쓰야(四ッ谷)로 되어 있다.

오늘 오전 5시 남아(男兒) 출산. 야스마사의 부친 조산원으로 명희를 문병.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지에. 명수

길게 타자를 친 가타카나가 한꺼번에 눈에 확대되어 들어와 바로 의미가 전달되지는 않았다. 명철은 전보를 두 번 되풀이해서 읽고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비로소 당번병을 생각해 내고는, “됐다”라고 말했다.

“야스마사의 부친 조산원으로 명희를 문병?”하고 그 대목만 소리 내어 읽었다.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전보를 손에 쥔 채 밖으로 나갔다.

목욕탕 쪽을 향해 중대를 빠져나가면서, 전보를 두세 번 거듭 읽어 보았다. 취사장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당번병들이 혼자 싱글벙글 웃고 있는 명철을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명철이 돌아보자 놀라서는,

“경례.”하면서 직립 부동자세를 취했다.

명철은 답례를 하면서 병사들에게 자기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구나 싶어 다소 멋쩍었다. 그 가운데 자기 중대의 병사가 있는 것을 보고,

“후쿠시마(福島) 상등병”하고 불렀다.

“예엿”

“내가 지금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아—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나?”

“소위님은 무척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됐네.”

명철은 병사들을 둘러보고,

“하지만 하찮은 소문 따위를 내선 안돼. 얼마간 기쁜 일이 있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저희들은 상상 따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안면이 없는 병사 한 사람이 말했다. 명철은 그쪽을 향해,

“알고 있다. 군인은 변명을 하지 않지.”하고는,

“너희들의 취사장(炊事場) 회의는 유명하다. 상사들이 목욕탕에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그리고 또,

“후쿠시마.”하고 불렀다.

“옛.”

“좋은 날씨야.”

“아,—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상등병은 명철의 시선을 좇아 하늘을 보면서 묘한 표정을 지었다. 새파란 하늘 높이, 입을 크게 벌린 잉어 모양의 연이 하나 둘 봄바람을 들이마셔 부풀어 있다.—

명철은 병사들 곁을 떠나 목욕탕 쪽으로 걸어가다가, 부친의 일에 생각에 미치자 벌써부터 기뻐하기는 이르다는 기분도 드는 것이었다.

사오일 후, 명수로부터 자세한 사정이 적힌 편지가 왔다. 편지에 따르면, 야스마사의 부친이 두 사람의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했다고 한다. 다만 야스마사가 부친의 사업을 잇는 것을 원하지 않아 따로 살고는 살고 있지만, 곧 명희는 고마쓰바라 가문을 이을 아들의 신부로 입적될 예정이며, 그래서 자기 이제 경성에 계신 부친의 승낙을 얻기 위해 며칠 안에 귀향할 거라는 내용이었다.

명수는 두 번 정도 야스마사의 부친을 만나 면담했는데, 이 사건의 해결을 서둘러준 것은 4월 말 독일에서 돌아온 야스히코(保彦)였다고 했다.—야스히코에 대해서는 경성에 돌아와서 자세히 이야기 하겠다고도 쓰여 있었다.

편지가 오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 명수는 도쿄에서 돌아왔다. 명철은 그날 장교집합소(將校集會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당번병이 찾아와 “동경에서 돌아온 남명수라는 분이 남 소위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하고 보고했다.

명철은, 드디어 돌아온 건가? 하고 젓가락을 놓고 일어섰다.

병영 마당을 가로질러 연대본부의 사무실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야야, 돌아온 거냐?”하고 명철이 소리를 높였다.

“응.—” 그리고 명수는 다소 노숙한 목소리로,

“요전에 내가 보낸 편지 읽었어?”

“아, 읽었지. 답장을 쓸까 하다가, 네가 곧 돌아온다고 해서 그만 두었는데,—지금 어디냐?”

“아, 지금 막 경성역에 도착했어.—”

“피곤하겠구나.”

“대단하지는 않아. 근데 속히 한번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

“일단 집에 들렀다가 저녁에 이리로 찾아와.”

“아니, 집으로 가기 전에 미리 의논하지 않고 멍하게 돌아갈 순 없어. 먼저 형을 좀 만났으면 해.”

“그럼, 이 근처로 와서 슬슬 기다리고 있든지.”

“아직 낮이니 저녁까지 빈둥빈둥 있을 수는 없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근무 중이니까.”

“곤란하군. 그럼— 영화라도 보고나서 갈까?”

“그러렴.”

“아버지는 잔소리가 무척 심하시지?”

“대단하시진 않아.—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럼, 아무래도 어렵게 연대를 빠져나오는 건데, 저녁식사는 내가 좋은 것으로 살게. 그러니 좀 귀찮더라도 형이 본정(本町)<sup>50)</sup>까지 나와 줄 순 없을까?”

“본정 어디?”

“1정목과 2정목 사잇길로 들어가면, 명치정(明治町)<sup>51)</sup> 쪽으로 성화루(盛華樓)라는 지나 요릿집이 있어.”

“아, 거기라면 알고 있어.”

“이층 다다미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럴래? 그럼 6시까지는 갈게.”

명철은 전화를 끊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명철은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채 병영 문을 나섰다. 동대문행 전차를 타고 본정 입구의 조선은행 앞에서 내렸다.

일명 경성의 긴자(銀座)로 불리는 본정 거리의 상점가는, 길은 다소 좁아도 매우 화려한 거리다. 황혼의 혼잡 속을 명철은 빠른 걸음으로 빠져 나와 2정목에 있는 성화루로 갔다.

명수는 다다미방에 다리를 길게 뻗고 있었다. 명철은 그 앞에 앉으면서, “피곤하냐?”하고 말은 건네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놓았다.

“응.”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철의 제복을 쳐다보며, “뭘 먹을까?”하고 물었다.

“런치(lunch)나 먹자.”

명수는 보이를 불러 런치를 두 개 갖다 달라고 주문했다.

“그나저나 명희 일은 잘 됐네.”하고 좋아하면서, 명철은 요즘 들어 피우기 시작한 담배를 꺼냈다.

“응,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지나치게 생각이 많았나봐. 일단 부딪쳐 볼 일이지. 우리가 야스마사 씨의 부친과 만났을 때,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생각했다가 의외로 일이 싱겁게 진행돼서 오히려 실망했을 정도야.”

“음.”

“야스마사 씨의 부친은,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 어쩔 수가 없는 듯하다, 상황이 이미 그렇게 돼버렸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

명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명희를 고마쓰바라 집안에 입적시킬 수 있었던 건 세 가지의 원인 덕분이야. 첫째는 예의 야스히코가 독일에서 돌아왔다는 것, 둘째는 야사마사가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명희의 평판이 좋다는 것,

50) 현재의 충무로.

51) 현재의 명동.

셋째는 뭐, 명희가 분만했다는 것인데.—”

“야스히코가 힘이 되어준 거냐?”

“응, 야스히코는 독일에서 돌아와 형이 가출을 한 이유를 알고는 아버지와 형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움직여줬어. 나도 함께 거드는 시늉은 했지만.—”

“그런데 야스마사의 회사에서 명희가 어떻게 평판이 났는데?”

“음, 평판이라고 해봤자 별로 바뀐 건 없어. 야스마사가 명희와 동거하는 것에 회사 사람들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어도 이러쿵저러쿵 소문은 있었던 듯하고. 그게 한두 사람 드문드문 불행한 친구를 방문하게 되면서, 명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 모두가 입을 모아 명희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대.”

“변하는 게 우스운 거 아니야?”

“아니, 이진 진지한 얘긴데.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친다고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 옷이 잘 어울리고 내지여가 훌륭한데다 예쁘기까지 하니 아무래도 불쌍하다고 동정해서, 야스마사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영웅이라도 된 듯 치켜세워줬던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야스마사의 부친은 영웅의 부친이 된 셈이니, 이쯤해서 명희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지.—나는 신문 광고를 보고 평판이 좋은 책을 사는 습관이 있어서 그 심리를 잘 알지.”

명철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좀 진지하게 얘기해라.”

“이 이상 진지할 순 없지.”하고 명수도 시치미를 떼면서 웃었다.

보이가 요리 접시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대화를 멈췄다. 보이가 나가자 명수는 젓가락을 들어 접시로 가져가면서,

“경성에 돌아와 있는 동안 든 생각인데, 조선은 여전히 완고한 것 같아.”

“음, 나도 오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돌아왔지만, 정말 견고하고 구태의연하지.”

“아버지는 물론 여전히 상투를 틀고 계시겠지?”

“그대로지.— 그리고 요즘은 총독부가 색깔 있는 옷을 장려하기 시작한 터라 항상 총독부 욕만 하고 계신다더구나.”

“나는 꼭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그 상투를 자르시게 할 테야.”

“자르지 않으실 걸.”

“어떻게든 자르시게 해야지. 그 상투를 보고 있으면, 내 자신까지 시대착오를 일으키게 돼서 어쩔지 불안해.— 뭐, 상투는 상투고. 아까 얘기했던 명희의 일 있잖아, 야스마사 씨의 부친이 아이가 태어난 조산원에 찾아오셨어. 물론 그때 야스코 씨도 함께였지.—”

명수는 말을 멈췄다. 명철은 무관심하게 계속 젓가락질을 해대고 있었다.

명수는 화제를 돌려,

“나는 감상에 빠지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그때만큼은 눈물이 났어. 야스마사 씨의 부친이 명희의 침대로 다가와서, 수고 많았다고 위로를 하시는 거야. 야스코 씨가 고개를 숙이는 걸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지. 속으로야 뭐 이런 일로 울고 난리야 했지

만, 허사였어. 오히려 당사자인 명희만 조용히 웃고 있었지.—”

명철은 젓가락질을 멈추었지만, 아무 말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명희의 입적 말이야. 한쪽에서는 승인했다 해도, 이번에는 또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허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허락해주실까?”

“좀 어려울지도 몰라. 어쨌든 아버지와는 직접 부딪치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아. 우선 어머니께라도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 말씀드리도록 해.”

“나는 우선 큰형에게 이야기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

“큰형에게?”

“큰형은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괜찮을까. 나는 큰형에게는 아무 것도 말할 수가 없다.”

“큰형은 형을 야단치겠지.”

“음, 아마도.”

명철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명수가,

“뭔가 형과 미리 상의할 건 없을까. 아버지께서 뭔가 얘기를 꺼내실 때, 서로 말이 어긋나면 곤란하니까.”

명철은 고민하다가,

“별로 없는데.”

“형은 대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나는 집에 한번 갔었던 게 전부다. 아버지는 특별한 얘긴 없으셨어. 그다지 화도 내지 않으셨는데, 모든 책임을 큰형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아. 게다가 원서정(苑西町)의 백부가 나를 봤으니, 친척들이 그냥 가만있지는 않을 거라고 하던데. 그 후로는 큰형에게서 아무 얘기도 없었어.”

“그랬구나. 자, 난 이제 집으로 갈게. 조만간 또 보자구.”

명철은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서는 보스톤 백을 들었다. 두 사람은 조선은행 앞으로 나와 좌우로 갈렸다. 명수는 조선은행 앞 정류소에서 원남정(苑南町)행 버스에 올랐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연 아들이 도쿄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과연 유서 바른 전통을 자랑하는 남가의 격식은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한 개의 대문과 다섯 개의 중문을 통과하는 동안, 하인 과도 마주치지 않았다. 명수는 안마당을 가로질러 안방과 명엽의 거처 사이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곧장 들어갔다.

방 안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하녀 갑녀가 온돌에 장작을 피워놓은 듯 온기가 있었다. 그러나 스텐드의 갓 위나 책상 위에는 부친의 표현에 따르면, 먼지가 한 치는 쌓여 있었다. 필시 갑녀는 자기가 없는 동안 한번도 이 방을 청소한 적이 없는 것이 틀림없다. 갑녀는 원래 청소를 싫어하는 여자였다. 명수가 이따금 이를 꾸짖으면, 그녀는 자기가 소피라서 하는 수 없다고 했다. 소피 여자는 고집쟁이에 청소를 싫어한다고 운수책에 써어 있다고, 사람들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따금 고집을 부리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나빠서가 아니라고 말하곤 했다.

명수는 방 안에 보스톤 백을 놓고 스프링코트(spring coat)를 벗어 벽에 걸고는, 안방 쪽으로 갔다. 어머니는 명수를 보자, 아무런 기별도 없이 느닷없이 돌아온 것을 나무랐다. 그리고 명희는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명희의 안부를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서야 가까스로 어머니는,

“저녁은 어떻게 했느냐?”하고 명수에게 물었다.

“먹고 왔습니다.”하고 명수는 대답했다.

“아버지께 인사는 드렸느냐?”

“아니요, 지금 인사드리려고요.”

“그럼, 어서 인사드리고 오너라.”

명수는 어머니의 독촉을 받으며 안방을 나왔다. 자기 집에 돌아왔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다. 부친께 인사드리는 것도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예의라는 게 있으니 잠깐 얼굴이라도 내비쳐야 할 것 같아 부친의 방으로 갔다.

부친이 방에 보이지 않아 사랑채에 가보니, 예의 이웃의 숙부와 바둑을 두고 있다. 부친은 손가락 사이에 끼운 흑돌을 눈 부근까지 올려 바둑판에 탁, 하고 내리 두다가, 명수 쪽을 보고는,

“명수냐?”하고 말했다.

숙부는 힐끗 눈길을 주었을 뿐, 그 때문에 물고 있던 담뱃대를 입에서 떼려 하지는 않았다.

“뭐냐, 기별도 없이 갑자기 불쑥 돌아오고.— 안방에 가 있거라. 나중에 내가 가마.”

“예.”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지만, 명수는 부친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명수는 안마당으로 내려가 잠시 좌우를 살폈다. 양쪽에도 아직 예의를 갖추어야 할 상대가 둘 있었다. 오른쪽이 난홍의 방이고, 왼쪽이 형 부부의 방이다. 어느 쪽을 먼저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형에게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난홍 쪽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형의 방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게다가 뭐니뭐니 해도 형수보다는 난홍 쪽이 미인이었다.

명수는 별채 쪽으로 돌아가서 난홍의 방 앞에 서서는, “어머니 계세요?”하고 말했다.

명수는 이 집안에서 공공연하게 난홍을 ‘어머니’라고 불러 주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다. 물론 그 ‘어머니’라는 호칭에 얼마간 조롱의 어조가 없지도 않았지만, 명수는 언제나 진지하게 자신은 상대를 동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난홍은 그 어느 쪽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해주는 명수에게 항상 호의를 갖고 있었다.

“아니, 명수 목소리 아니야?”

하고, 언제 들어도 아삭아삭한 느낌이 좋은 평양식 어투가 방안에서 들려왔다.

“그렇습니다. 그 명수가 오늘 동경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 내게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어쨌든 잘 돌아왔네.”

“어머니께 선물을 사 왔습니다. 경성에는 없는, 물 건너 온 콤팩트예요.”

“어머, 이거 고마워라. 그런데—문 열면 안돼. 내가 지금 화장을 하고 있거든.”

“그래요? 그럼, 나중에 겁너 편에 보내겠습니다.”

“갑녀가 어머니께 지껄이지 않도록 입단속 해두게.”  
 “그 대신 어머니께서도 얼마간 입단속 해주세요.”  
 “응, 그거야 언제나 그랬으니까, 알았네.”  
 “그럼, 나중에 만약 아버지께서 물으시면, 제가 틀림없이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었다고 말씀해주세요. 콤팩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구요.”  
 “응, 알았어. 고마워.”  
 명수는 봉당에서 내려와 마당에 섰다. 그때 물동이를 이고 부엌에서 나온 갑녀가 명수를 보고는, “어머”하고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눈앞에 와서도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갑녀를 명수는 불만스럽게 쳐다보면서,  
 “‘어머’가 전부냐?”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물 다 길고 나서 내 방 청소 좀 잘해봐.”  
 “벌써 그렇게 더러워졌나요?”  
 “아직 네가 안심할 만큼 그렇게 더럽지는 않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또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냥 청소를 하라만 해.”  
 “네.”  
 “형님은 지금 방에 계시느냐?”  
 명수는 형의 방을 턱으로 가리켜 보였다.  
 “글쎄요, 어머신지.”  
 갑녀는 뚱하며 뒷문으로 나갔다.  
 명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옆 쪽에서 병철이 총총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 돌아오셨습니까?”  
 병철은 굵실거리며 인사를 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대문 쪽을 돌아보았다.  
 “병철이가 졸고 있는 동안 돌아왔어.”  
 “침네는 여태까지 한번도 졸아본 적이 없는 걸요.”  
 “한번 해 본 소리야. 형님은 어디 외출하셨는가?”  
 “글쎄요.”하고 병철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이를 보상하기라도 하듯,  
 “무척 피곤하시겠습니다”하고 따라 웃었다.  
 “글쎄.”하고 명수는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형의 방 쪽으로 향했다.  
 명엽은 역시 외출 중이었다. 현숙은 혼자서 레코드를 손질하고 있었는데—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이었다—, 갑자기 명수가 돌아온 것을 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곧 매무새를 고쳤다.  
 현숙은 이 집 안에서 시아버지 다음으로 명수를 싫어했다. 명수는 예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남자였다. 무엇보다 형수를 형수로서 조금도 존경하려 들지 않는 것이 그 증거였다. 형수가 형수의 입

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명수는 곧바로 대답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수를 다른 보통의 여자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같았다. 그래서 평소에도 현숙은 명수에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도 오늘은 명수가 도쿄에서 일 년 만에 돌아온 날인만큼, 관대한 모습을 보이며 일단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런 뒤 예의상,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하세요.”

라고 말했다. 명수는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현숙은 예의상 한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양하지 않는 명수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들어오기를 권한 것은 자기였던 터라 휘발 곤로에 물을 끓여 홍차를 내왔다.

명수는 홍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각설탕을 하나 더 요구했다.

“형수님이 동경에 한번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내자, 현숙은 또 뭐가 꿈꿨다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가요?”하고 간단히 대답했다.

“뭘니 뭘니 해도 동경은 넓으니까요.”

“그렇지요.”

“광대무변(廣大無邊)한 바다와 같습니다.”

현숙은 조금 머쓱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남녀가 단 둘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있어도 과연 괜찮은지 반성해보았다. 명수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현숙은 생각났다는 듯이, 아무래도 난홍에게도 돌아왔다는 인사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명수는 이미 인사드리고 왔다고 대답했다. 현숙은 다시 잠자코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왔다.

그때 명엽이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왔다. 명엽은 동생이 갑자기 돌아온 것에 놀랐지만, 마침 이런 때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은 안성맞춤인 터라 명수가 놀랄 만큼 큰 소리로 환영했다.

“여어, 돌아온 게냐?”

“예, 어찌다보니.”

“전보를 쳤으면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형님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냐?”

명엽은 아무데나 걸터앉아 ‘후우’하며 술 냄새를 내뿜었다.

“동경은 어떠냐?”

“커다란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하고 명수는 말했다.

명엽은 조금 생각하는 듯하다가, 곧 귀찮아진 듯이 현숙에게,

“당신, 뭐가 과자라도 사오지 그래. 명수가 돌아 왔는데.”

현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수가 가로막듯이,

“아니요, 지금 막 형수님께 홍차도 대접받았고, 오늘은 이제 좀 씻고 자야지요. 형님께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내일 다시 하도록 하지요.”라고 말하며 일어섰다.

그 후 이삼 일 동안 명수는 자기의 방에 틀어박혀서, 어떻게 하면 부친에게 명희 얘기를 무리없이 꺼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좋은 묘책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명수는 역시 이걸 우선 형에게 먼저 털어놓고, 그 다음에 부친에게 부탁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형은 명희의 일에 대해 찬성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임을 명수는 알고 있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형에게 얘기를 꺼낼 것인가 문제였다. 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명희가 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남매의 우애로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해야 하리라.

형이 지루해하고 있는 기회를 틈타서, 명수는 명희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는데, 집에서 얘기하는 것도 뭣하니 함께 종로까지 나가지 않겠느냐고 꾀했다.

명엽은 또 피아노라도 바꾸고 싶다는 얘기일 테지, 하고 내키지 않아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요 일주일 남짓 연선과도 만나지 못했으니, 검사겸사해서 일단 얘기 정도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거리에 나가 차를 불러 세우고, 명엽이 먼저 올라탔다. 그리고,

“할 얘기라는 게 뭐냐?”하고 물었다.

“뭐, 이따가 얘기하지요.”

“피아노라도 사고 싶다는 거겠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지한 얘기냐?”

“예.”

“그래?”

명엽은 생각하더니,

“그럼 종로로 나가도 곤란하겠군.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찻집에나 가자.”

명엽은 운전수에게 본정 쪽으로 가자고 했다.

“형님이 명철 형을 어지간히 야단치셨나 봅시다. 무척 화가 나 있던데.”

“흐음— 하지만 그건 아마도 본심이 아닐 게다.”

“어째서요?”

“상식 밖이 아니냐?”

“상식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명엽은 백미러로 명수를 바라보며,

“그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고쳐 말하지.”

“저는 오히려 감정 문제라고 고쳐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려무나. 그럼, 감정 문제로 언짢다고?”

명엽은 다시 백미러로 명수를 힐끗 쳐다보았다. 명수는 자신의 용건을 꺼내기도 전에 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까봐서 여전히 입이 근질거리는 것을 참았다.

이윽고 택시는 종로 3정목의 교차점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황금정을 지나 본정거리에 다다랐다.

“어디쯤에서 세울갑쇼?”하고 운전수가 물었다.

“이쯤에서 됐소.”

명엽은 종로 3정목의 입구에서 내려 돈을 지불하고, 잠시 동안 그곳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레코드를 틀지 않는 찻집이 어디였더라”하고 명철은 생각해보았지만, 레코드를 틀지 않는 가게는 단 한 곳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가능한 한 레코드를 작게 트는 집으로 가기로 했다.

명엽이 두어 번 남짓 가본 적이 있다는 가게를 찾아 좁은 길 막다른 곳으로 들어갔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찻집이었다.

“여기는 소설가들이 와서 원고를 쓰는 곳이라 레코드 소리가 조용한 곳이야.”

자리에 앉으면서 명엽이 설명했다. 그리 넓지 않은 홀 안의 용품 모두가 간판에 어울리게 ‘그리스풍’으로 갖춰져 있고, 벽 주위는 이른바 ‘문예부흥시대’를 대표하는 몇 사람의 초상화가 유화로 더덕 더덕 그려져 있었다. 기묘한 서양문자로 된 설명이 없었다면, 경성의 배우들이 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나란히 그려진 그림 아래쪽 자리에는 긴 구레나루를 기른 소설가 셋이 원고용지를 펼쳐놓고 만년필을 휘두르고 있다.

명엽은 조선옷을 입고 있는 여급에게 레몬티를 두 잔 주문했다.

“경성에 돌아와 보니, 제가 경성을 떠날 때보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가 거듭 충실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명수가 이렇게 말하자, 명엽은 잠시 흥이 깨진 얼굴이 되었다.

“뭘, 일부에서는 그렇지.”

“명철 형님께도 들었습니다만, 형님은 웬지 그 일부는 아닌 듯해서 저는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고 명엽은 명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명철 형님을 그렇게 만든 것은 형님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형님과 마찬가지로 경성제대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명철이에게는 일단 동경 물을 먹이는 게 좋다면서 와세다(早稻田)에 입학시킨 것은 형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명철이가 와세다에 입학했냐?”

“물론 명철 형님은 사관학교로 갔지요. 하지만 만약 와세다로 갔다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동경의 문화를 보고 왔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점에서는 명희도 똑같다고 할 수 있지요.”

“너도 그렇겠지.”

“아니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자부하지 못합니다.”

“자부하려무나. 무슨 겸양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나는 의논할 게 산더미 같다. 어서 명희가 어쨌다는 건지 말해보거라.”

명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했다. 그때 좀 전의 구레나루 가운데 가장 수염이 긴 소설가

가 먼저 말을 꺼냈다. 큰 소리로 자작 소설을 낭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명수는 깜짝 놀라 그 쪽을 쳐다보았지만, 다른 손님들은 그 모습이 익숙한 듯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은 없고, 손님들은 소설을 낭독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여급도 그다지 존경을 표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축음기에서 울리는 전원교향곡은 바야흐로 ‘폭풍우’와 ‘천둥소리’와 더불어 제3악장의 알레그로를 향해 돌입하고 있었다.

소설가는 레코드에 지지 않겠다는 듯 소리 높여 낭독해갔다. 명수는 처음 보는 광경인지라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소설가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명엽도 얇은 미소를 띤 채 무심결에 듣고 있었다.

전원교향곡이 끝나갈 무렵 소설의 줄거리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것은 소설이라기보다 결투에 더 가까웠다. 그것은 이른바 모든 일본적인 것에 대한 단호한 부정으로서, 작중의 내지인은 모두 나쁜 사람이고, 반대로 반도인은 도둑조차도 선한 사람이었다. 서로 사랑하는 내선(內鮮)의 남녀는 까닭도 모른 채 가장 비참한 운명과 맞닥뜨려야 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두서없이 모습을 드러내어 거칠게 문장을 엮어나갔다. 톨스토이가 내선결혼을 맹렬히 반대하고, 도스토예프스키가 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주인공인 일본 처녀가—그녀는 미인이었다.—남자의 완고한 주의(主義) 탓에 애정을 얻지 못하고 자살해 버리자, 동시에 소설도 결말을 고했다.

작자는 이 작품을 격렬한 사상성으로 인해 발표는 허락되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은 우매한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소수의 좋은 벗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끝을 맺었다.

그리고 소설가는 자리에 앉았다.

소수의 좋은 벗들은 소설가가 착석한 사실에 그다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레코드는 다시 전원교향곡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명수는 여급이 가져온 레몬 티를 마시면서 잠시 말없이 있었다.

“환경은 마침내 천재를 낳는군요.”라고 명수는 이윽고 감동한 얼굴을 했다. 명엽이 웃으며,

“카페 여급에게 하소연하다가 거절이라도 당해서 울분 끝에 썼나보군.”

“하지만 저 격렬한 사상성은—”

“허튼 소리. 뭐가 사상성이냐?”

“허튼 소리는 아니죠.”

“왜 아니냐. 저 연애를 반대하고 있는 건 너—작자 한 사람인 걸.”

“그런가요?”

“아마도.”

“그렇다면,— 결국 작자의 감정 문제가 되는군요.”

“감정은 감정, 도리는 도리가 아니냐?”

명엽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푹 끊고는 묵묵히 레몬티를 마셨다.

“그러니까 가령 저 줄거리와는 반대로, 내지인 남자와 조선인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다 주위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당연히 함께 부딪혀야 한다는 거군요.”하고 명수가 말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사정은 있을 테지.”

명엽은 자신의 실책을 깨닫고는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사정은 뭐 사정이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인도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잠깐. 너는 명희 얘기를 하러 여기에 온 것 아니냐?”  
 “지금 명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하고 명수는 웃었다.  
 “흐음.”  
 명엽은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정말 그런 게냐?”하고 말했다.  
 “이미 형님의 찬성도 얻은 걸요.”  
 “과연 그렇군.”  
 “나머지는 형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았다. 거드름 피우지 말고, 그 사정이라는 것을 말해보아라.”  
 명엽은 약간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명수는 거기서 형에게 야스마사와 명희의 사정 전모를 모두 털어놓았다. 명엽은 입술을 약간 비틀며 무감각한 얼굴로 애써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면 이미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아주 잘 되었구나.”라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명수는 애원하듯이 매달려,  
 “그렇지요. 오늘이라도 형님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주세요. 우선 명희를 입적시키지 않으면 아이가 곤란합니다.”  
 “나도 곤란하다.”  
 “아니, 농담 마세요.”  
 “농담 같으냐?”  
 명엽은 진지한 얼굴로,  
 “네가 잘 처리해주어라. 나는 지금 거기까지는 도무지 손을 댈 수가 없다.”  
 “난처하네요.” 명수는 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형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하고 말했다.  
 “의지가 된다니 영광이다만. 지금은 명철이 일도 있고, 무엇보다 여유가 없다.”  
 명수는 웃으면서,  
 “놀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거니까요.”  
 “그야 물론, 놀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놀지 못할라구.”  
 “그도 그렇지만.—”  
 명수는 난처해져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식어버린 레몬티를 다 마시고는,  
 “아버지께서 들어주실까요?”  
 “어렵겠지.”

명엽은 손목시계를 흘깃 보고는,

“그럼, 이제 돌아가자꾸나.”라고 말하면서 일어섰다.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된다.”

명엽은 전표를 집어 들고 먼저 찻집을 나섰다. 밖은 벌써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어쨌든 당분간 아버지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삼가는 게 좋을 게다. 아버지는 명철이 일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하실 테니.”

약초정(若草町)<sup>52)</sup> 쪽을 향해 가다 네온 터널을 벗어날 무렵, 명엽이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말했다.

“나도 어떻게든 해 볼 테니, 그동안 명철이의 일이라도 일단락 짓고 나서 아버지께 털어놓도록 하자. 그러는 쪽이 네게도 유리할거야.”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부친의 심기가 불편하여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명희 일까지 밝혀지게 되면 자신과 연선의 일은 제일 먼저 공중에 붕 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비로소 명엽은 오늘 자신이 연선에게 갈 작정으로 집을 나섰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나는 잠시 이 근처를 좀 걸다가 돌아가마.”

약초정 버스 정류소에 이르자, 명엽은 고개로 황금정 쪽을 가리켜 보였다. 명수는 그 쪽을 바라보면서,

“형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할까요?”

“묻지 않을 거야.”

“그래도 만에 하나 물으시면 곤란하잖아요.”

“이 근처를 좀 걸다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려무나.”

명엽은 통명스럽게 말하고는 명수의 걸을 떠났다. 명수는 형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형이 명희의 일에 대해 의논도 해주지 않고 뿌리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 5

그 후로도 명엽은 명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는 듯 한 마디도 꺼내려 하지 않았다. 명수는 자지가 직접 부친에게 털어놓을 기회를 오늘 내일 하고 엿보면서,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오늘 밤에야말로 하고 결심하면, 바둑에 져서 심기가 편치 않으시다는 전갈을 겁녀가 전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부친은 명철의 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백부에게 책잡히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명엽에게 마구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약속한 한 달의 기간이 지나자, 백부는 드디어 친족을 모아 명철의 일을 공개하고 호되게 꾸짖어야 한다는 처분을 내리고, 남씨 가문의 긍지를 유지케 할 것을 선언했다.

부친은 사흘 동안 백부의 집을 찾아다니며 간신히 한 달간의 여유를 더 얻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

---

52) 현재의 인현동.

와 명엽을 불러 놓고 앞으로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명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그쳤다. 명엽이 맹세를 하자, 부친은 요구받기도 전에 약간의 경비를 주었다.

명엽만으로는 미덥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매일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명수가 눈에 거슬렸던 부친은 명수를 자기 방으로 불러 우선 물어보았다.

“너는 명철이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명수는 형을 위해서 한번 설득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아직 명희 일도 있고 하니 당분간 부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저는 그다지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결국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게냐?”

“그렇습니다.”

“음.—”

부친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명수의 얼굴을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네 남매 중 잔재주 있는 명수를 가장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는 한 달 동안 있을 예정이라더니, 동경에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된 거냐?”

“네, 실은 잠시 예정했던 일이 아무래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요.”

“뭐라고? 그건— 내가 정리해 줄 테니 말해 보거라.”

“아, 실은 지금 잠시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냐. 그럼 그 시기가 오면 내게 얘기하렴.”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명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부친은 속으로,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녀석이 새 양복이라도 사입고 동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일 테지 하고, 기름을 발라 멋있게 갈라붙인 명수의 정수리를 뺨히 쳐다보았다.

“그러면 너는 당분간 한가한 게냐?”

“네.”

“그럼, 어쩌냐. 그 한가한 동안 명철이를 만나 군대에서 물러나도록 권해보는 것은.”

“저, 제가 말입니까?”

“음, 명엽이만으로는 아무래도 일이 순조로울 것 같지가 않다. 너는 태생이 말솜씨가 능수능란하니 도리에 대해 조리 있게 말하면 명철이도 생각해보겠지.”

“네.”

“양복은 어디든 네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맞춰도 좋다.”

“저, 양복이라니요?”

명수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부친은 웃으며,

“양복이 양복이지.”

“아,—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명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느닷없이 생긴 양복은 대체 뭘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것에도 생각이 미치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아버지의 방을 나왔다.

명수는 그 길로 형의 방으로 갔다. 열려 있는 문틈으로 엿보니, 명엽은 돛자리 위에 반듯하게 누워 낮잠을 자고 있다. 어젯밤 받았던 얼마간의 돈이 벌써 효력을 나타낸 듯하다.

현숙은 평소대로 빌로드 천으로 레코드를 닦고 있었다. 마당에 있는 명수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 듯했다. 명수는 형수가 얼굴을 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현숙은 레코드를 다 닦아낸 후, 이번에는 지난번 무더진 대바늘을 하나하나 깎아내기 시작했다

명수는 단념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형을 깨워봤자 대단한 이야기는 없을 터였다. 결국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셈이므로 부친의 비위를 맞춘 것은 잘한 일이라 해도, 명철을 근거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 찬성해 버린 것은 아무래도 실수였다. 결국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명철의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희 얘기는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명철의 일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명희의 일은 절망적인 것인지도 몰랐다.

어떻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명철의 일은 소홀해졌고, 또 다시 약속한 한 달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 닥쳐왔다. 부친은 또 애가 타서 백부의 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부친이 백부의 집에 다니기 시작한지 닷새째 저녁, 백부의 분노는 그날 한 장의 신문을 앞에 두고 폭발했다. 백부는 막 들어온 아버지 앞에 손에 들고 있던 석간을 들이밀면서, “이것 좀 봐라”하며 담뱃대 끝으로 특호 7단 기사의 제목을 가리켜 보였다.

돌연!! 북지(北支)의 하늘에 전운이 감돌다!!!  
폭력(暴戾)한 지나의 응징을 위해 황군(皇軍) 출동하다!!

백부는 수일 전 노구교(盧溝橋)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일본과 지나가 전쟁이라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은밀히 우려하고 있었다. 그것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는 모양이었다.

“이 기사를 잘 읽어 보아라. 이제 전쟁이다.”

아버지는 기사를 읽어보았지만, 역시 그리 납득이 가지 않는 얼굴로,

“그런데 전쟁이 우리 명철이와.—”

“명철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게냐? 기사를 똑똑히 읽어봐라. 전쟁은 대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하는지.”

“지나와 일본이 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그렇지. 그렇다면 명철이도 출정하겠지?”

“.....”

“음, 그것도 제일선으로 나가 싸운다는 겐가?”

부친은 침묵했다.

백부는 부친이 쓴 관의 정수리를 뺀히 쳐다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두어 번 담배를 재떨이에 떨어뜨렸다.

두 사람 사이에 견디기 힘든 침묵이 이어졌다. 부친에게는 그것이 몇 시간이나 되는 길고 긴 시간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된 이상 완고한 백부의 마음을 푸는 길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다소 미련이 남은 듯 백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백부는 그 시선을 피하려는 듯 서탁 위에 놓인 액자 위에 시선을 두었다. 그 액자에는 삼국지에서 이름 높은 관우(關羽) 장군이 장엄하게 검을 손에 쥐고 있었다. 백부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든 부친을 보자,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획’ 노력보았다. 부친은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 왔다.

이제 부친은 명업을 부를 기운도 없이 방에 틀어박혀서는 좋아하는 바둑돌에조차 손도 대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바둑 상대인 숙부는 요즘 매일 밤마다 백부의 집에 불려 다니느라 부친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숙부는 친족회의를 준비하러 가는 다니는 것이었는데, 남씨 가문의 친족회의라는 것도 예의 다른 회의와 마찬가지로 모두 사전에 미리 의논해서 우선 자기들 형편에 좋도록 결과를 내정(內定)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수는 연대의 명철에게서 속달 우편을 받았다. 그리 격식 차린 내용은 아니고, 오랜만에 만나 집안 사정이라도 듣고 싶으니 여느 때처럼 본정에 있는 지나 요릿집으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형과는 집에 돌아온 날 만난 것 외에는 밖에서 만나 영화를 본 게 전부였는데, 지나사변도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자기 쪽에서도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명수는 만나기로 한 저녁 여섯 시에 본정의 성화루(盛華樓)로 갔다.

자리를 안내받고 나서 잠시 기다리자, 군복 차림의 명철이 들어왔다. 전에 만났을 때보다 살갗이 그을려 거무스름하고 몸 전체가 다부져 보였다.

“슬슬 시작 됐군.”

형이 앉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명수가 먼저 말을 했다. 명철은 자리에 앉으며, “음”하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이에게 점심을 주문했다.

“육군대학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어”

“경성도 움직이는 건가?”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지.”

“이번에도 만주사변만큼 확대되어 갈까?”

“지금으로선 아직 알 수 없지만, 고마쓰바라(小松原)의 편지에 의하면 동경은 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명철은 돛자리 위에 뒤로 손을 짚고는 벽에 걸려 있는 지나의 풍속화를 바라보다가, 생각난 듯이, “그 뒤로 형에게서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데, 아직도 아버지는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니?”

“그게, 아무래도 곤란해졌어.”

명수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

“백부가 말이지, 지나와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사실에 노발대발하셨거든. 흥분한 백부는 이 전쟁이 형 탓에 시작이라도 된 듯이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아.”

“음.”

명철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었다.

“지금 백부 댁에서 친족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형에 대한 처분 조치가 내정되는 대로 본 회의가 집에서 열리게 될 거야. 하지만 뭐, 무거워 봤자 의절이겠지.”

“— 의절당해주지 뭐.”

하면서 명철은 ‘쉬’하고 성냥을 그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명철은 명희의 최근 상황에 대해 두세 가지 질문을 했다. 명수는 그에 대답했고, 두 사람은 또 잠시 침묵했다.

명철이 문득,

“어제 야스코에게서 편지가 왔어”라고 말했다.

명수는 잠시 허를 찔린 듯한 얼굴을 했지만, 비로소 형이 오늘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형에게 특별히 놀란 내색을 하지 않고,

“뭐라고 적어 보냈어? 야스코 씨가—”하고 평정하게 물어보았다.

명철은 웃을 수도 없고 고지식해질 수도 없는 복잡한 표정으로 잠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있었다. 곧 보이가 점심을 가져왔다.

명철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곧바로 요리에 손을 대려하지 않고, 잠시 명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명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형의 강한 자부심이 호감이 가기도 하고 또 약간 우습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불러서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형을 기쁘게 한 야스코의 편지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일부러 형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잡자코 있었다.

그러자 명철은 요리에 젓가락을 대려고 했다.

“야스코 씨의 편지를 보고 싶은데.”

명수는 형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허물없이 거리낌 없는 어조로 말했다.

명철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 편지를 내가 갖고 왔을 것 같냐?”하고 씩씩히 웃었다.

그렇다면, 하고 명수는 지체하기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명철도 묵묵히 식사를 했지만,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도 웬지 기운 빠진 모습이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내려놓고, 명철은 우두커니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다. 명수는 식사도 끝났으니 이제 슬슬 일어나고 싶어졌지만, 명철은 여전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명수는 내심 번거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물어 보았다.

“무슨 내용인데?”

“아니, 별 내용은 아니야.”

명철은 얼굴을 붉히며,

“결국 사면도 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양이니 몸조심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느닷없이 온 거라 좀 영문을 모르겠어.”

“음.”

명수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것에 대해 특별히 물어 보려고 하지 않았다. 명철은 자기 기분을 또 아우에게 들켜버렸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 말도 않고 요리점을 나왔다.—

형과 헤어져 조선은행 앞 버스 정류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명수는 비로소 야스코의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교제를 끊자고 스스로 말을 꺼냈던 야스코가 요 근래 형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어떤



심정에서 그런 것일까. 변덕이라고 하기에는 성격으로 봐서 부자연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면 형과 다시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려는 것일까. 이른바 우정이라는 것이 형의 인격을 향할 때 어떤 각도로 변형되는지에 대해서는 야스코도 이미 경험했을 터였다.—만약 진지한 기분으로 편지를 쓴 것이라면, 사변의 발발이 지금까지의 서먹서먹한 감정을 씻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을 씻어낸다면 재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스코에게 그럴 생각이 있는 걸까.

명수는 집으로 가는 버스에 흔들리면서, 지금까지 야스코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지나치게 한편으로 기울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반성해보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술렁거리고 있었다. 명철이 평소와는 달리 기묘한 얼굴을 하고 대문 앞에 꼳꼳이 앉아 있고, 갑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아가며 사랑채와 부엌을 오가고 있었다. 집안일을 도우러 온 듯한 여자아이 둘이 요리 접시를 손에 들고 부엌에서 나와 사랑채 쪽으로 사라졌다.

전구를 갈았는지 장지문이 환했다. 가까이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몇 번 본 기억이 있는 신발이 열두세 켤레 정도 봉당 위에 어지러이 벗어 던져져 있다. 명수는 형의 방으로 가보았다.

명엽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현숙의 도움을 받으며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

“드디어 친족회의다.”

명엽은 우울한 얼굴을 했다.

“어른들 대접하시느라 힘드시겠네요.”

“할 수 없지.”

명엽은 장지문을 열고 사랑채 쪽을 엿보았다.

“아직 식사 중이실 겁니다. 지금 여자들이 접시를 계속 나르고 있으니.”하고 명수가 말했다.

명엽은 그래?, 하고 말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모든 책임은 형에게 있는 셈이지요.”

“뭘, 그렇지.— 아버지는 돌연 입에 거품을 물고 닭이니 돼지니 하고 계시지만, 어른들이 그런 것쯤으로 관대해지시진 않을 걸. 마찬가지로, 저 백부가 어째서 닭과 명철이를 헛갈리는 걸까. 닭은 닭이고, 명철이는 명철인데.”

이윽고 사랑채 쪽의 식사가 끝난 듯, 갑녀가 명엽을 부르러 왔다. 명엽은 마지못해 일어섰다.

두 칸—다다미 9장— 크기의 사랑채에는 먹다 지친 친족들이 빙 둘러앉아 전등불 아래서 기름 뜬 얼굴을 번들거리고 있었다. 백부는 새끼 돼지가 한 마리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커다란 배를 거추장스러워하면서 트림을 하고 있다가, 명엽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위엄을 보이기 위해 자세를 고치려고 했다. 그러나 자세는 마음대로 고쳐지지 않았다.—

다른 노인들도 각각 손으로 머리의 갓을 고쳐 쓰거나 턱수염을 훑고, 또는 담뱃대를 단정히 고쳐 물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늘어진 허리띠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명엽은 부친의 왼쪽 앉아 무릎을 가지런히 꿇고 돗자리 위에 양손을 대고 정중하게 머리 숙여 인사를 올렸다. 마음속으로는 ‘이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겸손한 어조로,

“오늘 밤 이렇게 일부러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은 제가 부족한 탓으로, 여러 어르신들께 근심을 끼쳐 드려 뭐라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자 백부가 먼저 모두를 대표하여 명엽을 응시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준기에게 듣자하니, 너는 이미 작년 여름부터 명철이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했다던데.”

“예. 제가 부족한 탓에,—어쨌든 면목이 없습니다.”

“제국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일 년 동안 그만한 일도 해결하지 못하니, 그런 것이 무슨 제국대학이냐?”

“참으로 뭐라 드릴 말씀이.—”

명엽은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만약 명엽에게 좋은 대안이 없다면, 명철은 남씨 가문과 절연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는 내정되었다. 부친도 거기에는 이미 어쩔 수 없이 찬성하였다. 백부는 의절 처분을 내리고 싶어서 명엽이 송구해하고 있는 사이에 자신이 적당히 처분해 버릴 생각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명엽을 불쾌한 듯이 응시했다. 부친은 그 기색을 읽어내고는, 명엽에게 심리적 여유를 주려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화제를 꺼냈다.

“지금 마침 모두가 논의하고 있던 참인데, 만약 전쟁이라도 크게 일어난다면 대체 지나와 일본 중 어느 쪽이 이길런지. 거기에 대한 네 의견은 어떠냐?”

부친이 이야기를 돌리자 백부는 아들의 역성을 드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을 했지만, 지금까지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끝이었기 때문에, 뭐, 애송이의 의견이지만 일단 들어는 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일본이 이기겠지요.”

명엽이 거침없이 대답하자, 좌중은 대부분 퐁하니 입을 다물어 버렸다. 명엽은 좀 놀라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만족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겨우 두세 명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명륜정(明倫町)의 숙부는 평소에도 하이칼라 머리를 하고 이야기책 한 권이라도 읽은 양반이라 일본 필승론 쪽이었던 듯했다.

“그게, 명엽이 말한 대로지요. 일본인은 본시—”

“됐어, 조용히 해!”

백부는 명엽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위엄있게,

“너는 일본이 이길 것이라고 어떻게 단언하는 게냐?”

“그것은 일본인이 세계 각국인과 비교해서 어느 나라 인종보다도 정신력이 뛰어난 국민이라는 점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명륜정의 숙부가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신력이지요. 제가 항상 감탄하고 있는 것이.— 일본인은 그 성질이 말벌 같지요. 무슨 일이든 하나를 하겠다고 결심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고 맙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사람의 노인이,

“게다가 무엇보다 민첩한 국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민첩함에는 저도 감탄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일한합병(日韓合併)이 그렇지요. 그때

저의 부친께서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가 달려온 사람들에게서 ‘너는 오늘부터 일본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부친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하셨지만, 이미 시세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게지요.”

백부는 몹시 불쾌한 듯 명륜정의 숙부 쪽을 보며,

“그런 썩어 빠진 근성 때문에, 저 자식도 창피하게 머리를 하이칼라로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것이지.— 머리를 서양식(散切<sup>53</sup>)으로 자르는 건 좋아. 관을 쓰지 않는 것도 뭐 어쩔 수 없고. 하지만 하이칼라까지 하고 다니는 것은 무슨 천박한 근성이냐?”하고 성토했 후, 떨떠름한 어조로 명엽에게,

“그렇다면, 뭐냐, 장(蔣<sup>54</sup>) 씨가 있는 남경(南京)에도 결국은 일본군이 쳐들어오겠구나.”

“결국은 일본군이 입성하겠지요.”

“장안(長安)은 어떻게 되는 게냐?”

“그렇게 되면 장안도 결국은 함락되겠지요.”

“음, 그렇다면 장안의 달은……”

“달은 달이지요.”

백부는 말을 멈추고 말없이 명엽을 흘겨보았다. 그러나 잠시 뒤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

“그렇다면 명철이의 일이.”라고 좌중을 둘러보면서 위엄 있게 자신의 소신을 말했다.

“그렇다면 명철이에게는 부득이하게 의절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남가 일족(一族)은 이미 그 일에 대해 내정해 두었다. 단, 불효자 아들을 가진 준기가 불쌍하니, 그 사정을 참작하여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남겨두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백부는 짐짓 위엄을 부리면서 부친 쪽을 천천히 돌아 보았다. 부친은 그 눈꺼풀 위를 덮고 있는 두꺼운 군살에 속이 뒤집혔지만, 그래 봤자 달리 방법이 없는 터라 뭔가 좋은 생각이 없는가 하는 얼굴로 명엽을 바라보았다.

명엽은 아까부터 책임을 통감한다는 얼굴로 백부 쪽을 주목하고 있었다. 백부는 점점 자신의 위엄이 서가는 데 기분이 좋아져, 다시 위엄을 부리려고 명엽을 향하여,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뭔가 좋은 생각이 당장 떠오른다면 의절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다. 만약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면, 명철은 오늘 여기서 당장 의절이다!”

53) ざんぎり) : 메이지 초기에 서양식으로 짧게 자른 남자의 머리 모양.

54) 장제스(蔣介石, 1887.10.31~1975.4.5) : 본명 중정(中正). 저장성(浙江省) 평화현(奉化縣)에서 출생하였다. 1906년 바오딩(保定)군관학교에 입학하고 다음해 일본에 유학하였다. 그 무렵 중국혁명동맹회에 가입하고 1911년 신해혁명에 참가하였다. 만주사변 후 일본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선 내정을 안정시키고 후에 외적을 물리친다’는 방침을 세워 군벌을 이용하면서 국내 통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내전정지(內戰停止) 일치항일(一致抗日)’을 외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1936년 독전(督戰)을 위하여 시안(西安)에 갔다가 장쉐량(張學良) 군대에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1937년 국공(國共)합작으로 육·해·공군 총사령관의 책임을 맡고 전면적인 항일전을 개시하였다. 항일전쟁 중에는 국민정부 주석, 국민당 총재, 군사위원회 주석, 육·해·공군 대원수 등의 요직을 겸직하여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6년 다시 중국공산당과 결별하고 내전을 개시하였다. 처음에는 우세하였으나 1949년 12월 완전히 패퇴하여 본토로부터 타이완(臺灣)으로 정부를 옮겨 미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자유중국’, ‘대륙반공’을 제창하며 중화민국 총통과 국민당 총재로서 타이완을 지배하였다. 저서에 『장중정전집(蔣中正全集)』(상·하권), 『장총통 언론험판(蔣總統言論彙編)』(24권) 등이 있다. 195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백부는 위엄있게 단언하며, 선고를 내리는 자신의 억양이 유창한 데 기분이 좋아져 내심 이것도 모두 한시(漢詩)를 공부한 덕이라고 생각했다.

명엽은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의절한다고 하면 명철은 오히려 좋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어쩔 도리가 없게 되었다. 반년이나 일 년 정도는 더 관계를 끌어가고 싶었지만, 좋은 생각이라는 것도 갑작스럽게는 떠오르지 않았다.

당장 의절이라는 것도 너무 뜻밖이고, 이미 조금 전에 생각해 두었던 일시 모면적인 발뺌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래서.—”

명엽은 초조한 공기 속에서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때 문득 하나의 묘안이 떠올랐다. 다소 졸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까짓 친족들이라면 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 진지한 얼굴을 하고 분위기를 잡느라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럼,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명엽은 천천히 말하고는 마지막으로 옆쪽의 부친을 쳐다보았다. 부친은 비로소 겨우 안심한 얼굴이 되어, 무릎 앞의 성냥을 집어 들고는 두세 번 헛짚어가면서 담뱃대를 입으로 가져갔다.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명철이를 결혼시켜 한시라도 빨리 순조선식 가정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

백부는 간간한 얼굴이 되어,

“그렇지만 명철이가 그것을 받아들일까?”

“명철이가 일본 군인을 지원한 것은 본인의 정신이 부패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혼인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선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본인도 그런 마음가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 명철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그런 짓을 저지른 모양인데, 명엽이가 말한 것처럼 그애가 근성까지 썩지는 않았을 겹니다.”

백부는 그렇게 말하는 부친에게 슬쩍 눈길을 던지고는, 다시 명엽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아라.”하고 말했다.

명엽은 새삼스레 좌중을 둘러보았다.

친족들은 다소 긴장한 낯빛으로 명엽에게 주목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처럼 명철이는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각건대, 명철이를 다시 순수한 조선의 가정 속으로 돌려놓는다면, 반드시 자기 입장을 자각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군적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결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르신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하고 명엽은 다시 좌중을 둘러보았지만, 좌중은 모두들 명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백부만이 명엽의 핑계 속에서 아우를 감싸고자 하는 교활함을 알아챘다. 그래도 핑계는 핑계인지라 타협의 빛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신부는 가능한 한 학문이 없는 여자가 좋다.”

“아주 무지한 여자여야 합니다.”

“음,— 그러면 그 신부될 사람은”

백부는 할 수 없이 단념한 얼굴을 하고, 친족들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없는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색하기 시작했다.

“명철이가 선을 보러 갈 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맞선 상대를 찾는 일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 부탁드려야지 제 미력한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친족들은 뚜렷이 당혹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 제각기 곤란한 얼굴이 되어 대체 누가 그런 성가신 일에 나설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생각해 볼 것까지도 없이, 그것은 역시 백부였다. 친족들은 백부 쪽을 보면서, 보고도 못 본척하고 있으니 대체 이태백이 어쨌다는 것인지 내심 화가 치밀었다.

이윽고 그러한 공기를 느낀 백부는 노하여 회의 우두머리 자격으로 명철의 신부를 물색하는 일은 자신이 지명할 테니 이에 복종하도록 하라고 선언했다.

지명은 당연히 백부의 시선을 피하여 벽 쪽을 향해 앉은 명륜정의 숙부에게 내려졌다.

“당지도 않은 일입니다.”라고 숙부는 낭패다 싶어 발을 빼려 했지만,

“아까부터 여러 가지로 일본을 편들고 있더니, 그 정도의 마음가짐도 없이 어쩔 셈이냐?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일단 찾아 보거라.”라고 강제로 굴복시켰다. 그래도 숙부는 우물쭈물하며,

“그렇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처지고.”

“네가 가난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명철이의 신부야. 명철이의 신부와 네가 가난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게냐?”

“가난한 처지라 변변한 친구도 없으니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좋지. 신부 찾는 일이 어렵다고는 말아라. 무지한 여자면 되는 게지. 재산도 필요 없다. 예식은 물론 공식적으로 치르지 않을 테니, 가문의 격식 따위도 아무래도 좋다.”

부친은 그 말투에서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백부의 질투를 느끼면서 내심 화가 났지만, 자신은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발언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자코 있었다.

백부는 명륜정 숙부에게, 재산이나 격식은 아무래도 좋지만, 용모만은 예쁜 여자여야 한다고 웃으면서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친족 회의는 끝났다.

## 6

명륜정 숙부가 명철의 신부를 물색하느라 지인들 사이를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 동안, 사변은 점점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어 일본군은 계속 쉬저우(徐州)<sup>55</sup>로 진격을 하고 있었다.

노구교(蘆溝橋) 사건 이래 연대 안은 북지(北支) 얘기로 자자했다. 본부 내로 사관 장교의 출입이 빈번해지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종종 잡다한 소문이 퍼져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야외 훈련이 빈번해지고, 막연한 초조감 속에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병사들은 아주 작은 화제에도

55) 중국 강소성(江蘇省) 북서쪽에 있는 도시. 철도·군사상의 요지로 1937년 중일전쟁 및 1948년 국민정부군과 중공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다.

곧잘 흥분하고, 또 논쟁하곤 했다.

이러한 험한 분위기 가운데 어느 날, 명철은 야스코에게서 벌써 몇 통째의 편지를 받았다. 연병장으로 병사들을 데리고 나와 지휘하는 중에도 틈틈이 머리에 떠오르는 내용 때문에 명철은 번민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온 명철은 샤워도 나중으로 미루고 야스코에게 답장을 쓰기 위해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절박한 감정에서 펜을 집어든 듯한 필적이 한 장의 편지 속에서 어수선하게 내달리고 있다. 얼마간 난잡하게 맺은 문구가 주위의 행간을 무시하고 있었다.

편지를 기다렸습시다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답장이 늦어져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실은 지금 제 일신상에 중대한 위기가 닥쳐 마음이 심란합니다. 지난 번 편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변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아버지의 사업이 거듭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정은 모쪼록 미루어 짐작해주세요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 여자라는 존재의 나약한 힘을 통감합니다. 시절이 시절이니 만큼 분망할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드린다는 것이 무리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가능한 한 제게 편지해주세요.—그로 인해 제가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스코가 혼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명철은 야스코를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입장에 있는 자신으로서는 모순된 기분이었지만, 또 이성만으로는 아무래도 제어할 수 없는 기분이기도 했다.

명철은 한숨에 긴 답장을 써내려갔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일도 주문할 자격이 없지만, 아무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당신이 실패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실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 편지 같은 것으로도 힘이 된다면,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히 써서 보내주도록 하겠다.

대강 이런 내용을 쓰고 나서, 명철은 다시 읽어보려고도 않고 편지를 봉투 속에 넣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을 기입하고는 곧 부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그때 숙소 쪽으로 오고 있던 당번병이 멈춰 서서 경례를 하며,  
“남명엽이라는 분이 소위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알았다.”하고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에게서 무슨 전화일까. 아마도 드디어 자신에 대한 처분 조치가 결정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명철은 연대 본부 쪽으로 병영을 가로질러 갔다.

한 장도 남김없이 잎사귀를 모두 떨군 키 큰 포플러나무의 꼭대기에 까치가 등지를 틀고 있었다. 나뭇가지 끝에서 흔들리고 있는 두 마리의 새 부부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울고 있었다.

명철은 손에 쥐고 있던 야스코에게 보낼 편지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의절 처분이라면 깨끗하게 당해주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밖의 타협 권유라면 절대로 복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사무실에 들어가 수화기를 들자, 여느 때보다 침울한 명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본정 3정목에 있는 명치옥(明治屋)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명철은 형의 진지한 어조로 미루

어 보아, 역시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약간 격앙된 어조가 되어 지금 곧 나가겠다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여느 때처럼 전차를 타고 본정으로 나갔다. 명치옥은 길가에 있는 음식점 겸 찻집인 양과자점이었는데, 찾을 것도 없이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너,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명엽이 물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더블 양복을 말쑥이 갖춰 입고 있었다.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러냐?”

명엽은 여급에게 식사를 주문했다. 형과 마주 앉자, 명철은 묵묵히 자기감정에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명엽은 명철의 태도에 아랑곳 않고 대수롭지 않게,

“실은 친족들 사이에서 너의 신부가 내정되었다.”

고 말했다. 명철이 놀라는 사이, 명엽은 앞에 놓인 커피 잔을 집어 들었다.

“저는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부탁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명철은 야스코에게 보낼 편지를 주머니 속에 넣은 채 부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명엽은 전혀 꿈쩍도 않는 얼굴을 하고,

“네가 싫어하리란 건 알고 있지만, 그건 지난번 회의 때 친족들이 멋대로 결정해 버린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의절시켜야만 하니까.”

“저는 오히려 의절당하는 편이 좋습니다.”

“너는 좋겠지. 그러나 아버지와 나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냐?”

명철은 당혹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가,

“하지만 저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명엽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서,

“네 기분은 안다. 그래서 나는 네게 결혼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 다만 아버지와 내 체면을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선만 봐달라는 거다. 그리고 상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로 될 게 아니냐?”

명철은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겼다.

“게다가 상대도 아무튼 형편없지. 연지정(蓮池町)에 있는 가난뱅이의 딸로, 무학무지(無學無知)하거든. 또 그 부모란 작자들은 혼인 지참금에 눈이 멀어 딸을 희생하려고 하는 심사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선을 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필요란 결국 남씨 가문의 격식에 있는 거지. 내가 항상 네게 말하지 않느냐? 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하게 만드는 게냐?”

이윽고 음식이 나왔지만, 명철은 젓가락을 손에 대려하지 않았다. 묵묵히 언제까지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제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멋대로 맞선 상대를 물색하다니, 너무들 하시는군요.”

명철이 수저를 들면서 말했다.

“네게 상의하면 찬성할리가 없지 않느냐?”라며 명엽이 웃었다.

“누가 처음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까?”

“물론 백부지. 백부는 너를 의절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관대하게 너를 결혼시켜서 태도를 두고 보자는 심사이신 게지. 그리고 명륜정 숙부가 맞선 상대를 물색했고.”

명엽은 약간 구슬리는 듯한 어조가 되어,

“어쨌든 일단 선이라도 봐주려무나. 너를 데리고 가는 책임은 내게 맡겨졌거든. 지금까지 나는 네 일에 대해 뭐 하나 실행해보여준 일이 없거든. 이번만큼은 한번 내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려느냐?”

“선 보는 것만으로도 지장이 없다면, 선을 봐도 상관없습니다만.”

“지장이 없고말고. 사실 아버지도 그런 가난뱅이로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하지만 여하튼 백부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명철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가 마음을 굳힌 듯이,

“그래서 맞선 날짜는 언제입니까?”

“언제라도 좋다. 네 형편이 좋은 날로 상대 쪽에 이야기할 테니까.”

“그럼 내일 밤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한 한 빠른 편이 좋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자. 나도 빠를수록 좋다.”

명엽은 고개를 돌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내일 저녁 여섯 시 반쯤 집으로 갈 테니, 아버지께도 그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명철이 식사를 끝내자, 두 사람은 명치옥을 나섰다. 도중에 형과 헤어졌지만, 명철은 웬지 모르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어슬렁어슬렁 미쓰코시 앞까지 걸어갔다.

결혼할 뜻도 없는 상대와 맞선을 본다는 건 어쩐지 죄악이라는 기분이 들었지만,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야스코에게 보낼 편지를 생각해내고는 주머니에서 꺼내 근처에 있는 우편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튿날은 마침 방공 연습일이었다. 명철은 경계관제(警戒管制)<sup>56)</sup> 와중에 버스를 타고 계동까지 갔다.

부친은 명철을 맞이하고는 우울한 얼굴로,

“네가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저런 가난뱅이의 딸과 결혼하게 생기지 않았느냐?”하고 푸념했다.

명철을 대하는 모친의 기색도 그리 좋지는 않았다. 모친은 시중받이로서 상대의 집안에 가야한다는 사실에 굴욕을 느끼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식도 올려줄 수 없다면, 차라리 가난뱅이의 딸이 딱 잘랐지 뭐냐.”

모친은 울면서 옷을 갈아입었다. 명철도 군복을 벗고 조선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자기 한 사람을 둘러싼 주위의 상황이 울적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검은 발이 쳐진 장지문을 열자, 명수가 얼굴을 슬쩍 내밀며,

“재난이군요.”라고 내지어로 말했다.

56) 적의 야간 공습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등화관제.



“어쩔 도리가 없구나.”

“가는 수밖에.”

“음.”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장을 갖추고 나서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모친은 길을 걸으면서도 명륜정 숙부의 성정이 본래 천하여 가난뱅이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며 푸념해댔다.

큰 길로 나오자, 택시를 불러 세웠다.

“연지정 어디쯤입니까?”

모친의 뒤를 따라 택시에 올라타면서 명철이 물었다.

“동대문 경찰서 근처에서 내리면 금방이다.”

명철은 운전수에게 경찰서 앞까지 가달라고 했다. 어두운 길을 얼마쯤 달려 택시가 멈췄다. 명철은 모친을 따라 길을 되돌아가 오른쪽 길로 꺾어들었다. 매우 비좁은 길을 몇 굽이 꺾어 들어간 곳에 맞선 상대의 집이 있었다.

키 정도쯤 훤히 내다보일 듯싶은 낮은 울타리에 이름뿐인 대문이 달려있는 변변치 않은 집이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사랑방과 안방의 장지문이 환했다. 명철은 방문한 목적과는 별개로 불쾌했다.

어머니가 앞장서 사랑방 쪽으로 다가가 인기척을 냈다. 장지문이 열리더니, 명륜정의 숙부가 얼굴을 내밀었다. 한 칸짜리 사랑방에는 처녀의 아버지와 오라비, 그리고 명륜정 숙부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숙부는 우선 두 사람에게 명철을 소개했다.

야원테다 작은 문을 가늘게 뜨고 있는 처녀의 아버지는 얼핏 보아도 성정(性情)의 교활함을 연상시키는 노인이었다. 오라비라는 자는 몸집이 커서 원시적이고 늙름한 면모를 갖고 있었다. 명철은 집을 나설 때 모친이 가르쳐 준 예절에 따라 두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첫 대면 인사를 나누었다.

명철은 새삼스레 처녀의 아버지 쪽을 보면서, 아무래도 결혼 지참금 욕심에 딸도 팔아먹을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오라비라는 사내는 자신의 누이의 결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라비가 명철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했다. 안방의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별다른 뜻 없이 주고받은 일상의 대화 속에서 그는 슬쩍슬쩍 적의를 내비쳤다. 명철은 의식적인 무관심으로 받아 흘리면서, 왠지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모친은 이야기에 끼어들려하지 않고, 대들보가 보이는 그을린 천장과 더러운 벽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불쾌와 모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따금 가벼운 한숨 섞인 불만스러운 얼굴로 명륜정 숙부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무언중에 책임을 추궁하고자 했다.

명륜정 숙부는 숙부 나름대로 이 혼약을 해석하고 있었다. 숙부는 처녀 아버지의 천한 공리심은 잘 알고 있었지만, 또 딸의 심성이 착하기로 평판이 나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처녀는 용모도 예뻐고, 참으로 명철의 신부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숙부는 자신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철의 부친과 모친이 상대방의 가난에 대해 퍼붓는 경멸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명철만이 그런 공기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때 안방 쪽의 장지문을 열고 처녀의 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지요.”

안방 안은 사랑방과 마찬가지로 약간 더러운 느낌을 주고, 방안의 장식이라고는 마루로 이어진 벽 쪽에 붉은 옷장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방 안의 가운데쯤에 명철이 앉고, 그 좌우로 명륜정 숙부와 모친이 앉았다. 처녀의 부모는 비스듬히 명철의 앞쪽에 앉고, 처녀는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모두 다 앉은 것으로 보이자, 처녀의 어머니는 일어서서 마루 쪽의 장지문을 열었다.

“자, 들어오렴.”하고 어머니는 말을 건넸다.

처녀는 시중반이 여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열여덟 살이라고 했는데, 나이에 비해 몸집이 컸다. 하얀 살갓과 동그란 눈동자가 모친을 닮았다. 인견인 듯한 값싸 보이는 분홍색 상의에 얇은 자줏빛 치마를 사뿐히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발밑 쪽으로 땅아 내린 머리끝에 맨 땡기의 빛깔이 현란할 정도로 선명했다.

처녀는 처음부터 명철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안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앉았다. 명철은 정면에서 처녀 쪽을 지켜보았다.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명철에게는 없었다. 다만 긴 침묵 속에서 사무치게 밀려오는 참담함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과 처녀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명철은 처녀가 들어 온 순간 퍼뜩 자신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그것은 조선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러나 이만한 여자가 문맹이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연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 그녀의 뛰어난 미모는 그녀를 불행하게 할 뿐 행복으로 이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가 소유한 미와 선이란 종종 혼동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침묵한 채로 십여 분쯤 지나고, 맞선이 끝났다. 처녀는 역시 명철의 얼굴을 들지 않은 채마루로 물러갔다.

명철의 모친은 처녀의 미모와 착해보이는 심성에 그래도 얼마간 안도하여, 처녀의 어머니와 두세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잡담이 오간 뒤, 처녀의 아버지는 명철에게 자신의 딸이 마음에 드는지 진지하게 물었다.

“일단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상의한 뒤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명철은 어조로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함께 계셨으니, 상의하시고 나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서약서를 교환합시다.”

처녀의 아버지는 역시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명철은 노골적으로 의중을 보이는 태도가 불쾌했지만,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그가 이번에는 명철의 모친에게 확정적 의견을 요구했다. 모친을 대답을 다시 명철에게 떠넘겼다.

명철은 침울한 얼굴을 들고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는 님의 따님과 처음부터 결혼할 뜻이 없었습니다. 단지 주위의 사정 때문에 마지못해 맞선을 보러 온 것뿐입니다.”

“무슨 그런 실례되는 말을 하는 게냐?”

모친이 당황하여 곁에서 제지했지만, 이미 명철은 자리에서 일어난 뒤였다. 명철은 사랑방으로 들어가 두루마기를 손에 들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마루에서 내려왔다.

나는 내 민족을 왜 이렇게까지 혐오할 수밖에 없는가.

명철은 종로 4정목으로 나와 비상관계하의 킁킁한 전차에 올라타고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내 민족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사색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언제나 괴로운 혼란 속에서 당혹스러워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그런 공기 속으로 끌려가는 일만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 막 뛰쳐나온 집안의 분위기를 떠올려 볼 때, 명철은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전차가 이윽고 종로 3정목을 지났을 때, 명철과 나란히 창가에 서있던 사냥 모자를 쓴 남자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의 내지어로,

“남명철 씨 되십니까?”하고 말을 걸어왔다.

“그렇습니다.”

명철은 당돌하게 말을 걸어온 데 대해 다소 놀라면서 상대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조명이 어두워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신체의 모습 등으로 보아 전혀 본 기억이 없는 남자였다.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좀 있습니다만, 다음 정류소에서 저와 함께 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역시 낮았지만, 말끝에 힘을 주어 말했다. 게다가 단어의 악센트로 보아 내지인은 아니었다.

조선인이 조선옷을 입고 있는 자기에게 특별히 내지어로 말을 건네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다. 따라서 진작부터 자신을 노리다가 어디부턴가 미행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대의 용건이라는 것도 대략 짐작이 가는 것이었다.

명철은 각오를 하고 남자의 요구에 응했다.

파고다공원 앞에서 남자는 명철을 먼저 앞세우고 전차에서 내렸다.

“공원 안으로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는 남자의 어조는 이미 받은 명령조로 바뀌어 있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얘기하기 어려운 용건입니까?”

뒤돌아보니, 남자의 뒤에는 어느새 또 두 명의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냥 모자를 쓴 남자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낮게 대답했다.

명철은 잠자코 걷기 시작했다. 공원 쪽으로 바짝 붙어 걸어가면서, 역시 종로 거리는 같은 조선 거리라도 등화관계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생각되었다. 멀리서 청년 단원이 외치고 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그다지 넓지 않은 공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남자들은 세 방향에서 명철을 둘러쌌다. 달이 밝은 밤이어서 상대의 모습 형태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다.

사냥 모자를 쓴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선어로, “자네에게 얘기하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다소 의아하겠지만, 우리들은 오늘 밤 자네를 손봐줄 작정이지.”하고 말했다.

“무슨 이유로?”

“조선어로 말해. 서로 허세부릴 필요는 없는 사이니까.”

명철은 잠자코 있다가 조선어로,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러는 겁니까?”

“새삼 수고스럽게 우리의 설명을 부탁할 것까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명철은 고개를 숙였다가,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당신들은 민족주의자인가?”

“현재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용서해줄 수 없는 일이야.”

“그래?”

명철은 내심 상대의 유치한 감상이 불쌍하게 생각되었지만, 그 순진함만큼은 일단 인정해주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을 느낀 적은 없었지만, 상대에게 이런 압박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명철은 오늘 군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럼, 내 입장에 대한 변명은 그만두지. 그게 당신들이 바라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오.”

“훌륭한 각오군.”

사냥 모자가 말하자, 그중에서 키가 큰 남자가 걸어와 갑자기 철썩하고 명철의 뺨을 후려쳤다. 명철은 비틀거리며 버터 섰다.

쑥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자, 이번에는 사냥 모자가 다가 와서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두세 차례 뺨을 갈겼다. 옆쪽에서 또 한 사람이 명철의 허리를 발로 찼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명철의 어긋죽지를 사냥모자가 다시 흠발로 걷어찼다.

“덤벼라. 일어서. 그리고도 군인이냐? 기개 없는 놈.”

사냥 모자는 뒤로 젖혀진 명철의 가슴팍을 움켜잡고 일으켜서는 또 다시 명철의 뺨을 실컷 때렸다. 명철은 상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제 그 정도로 해두는 게 어때? 너무 끈덕지게 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덤벼라.”

명철은 사냥 모자의 팔을 휘어잡고는 허리를 비틀어 오금을 걸어 넘겼다. 사냥 모자는 공중제비를 돌아 땅바닥에 길게 뺨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는 히죽거리며 다른 두 명을 돌아보았다. 이것으로 그럭저럭 목적인 대로 상대를 화나게 하고 다소 골려주었다고 생각한 듯했다. 키 큰 남자가 몸으로 부딪혀 오는 것을 명철이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까부터 주춤거리고만 있던 겁이 많아 보이는 또 한 사람이 작심하

고 습격해왔다. 명철은 그 팔을 휘어잡고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때 여기저기서 떠들썩하게 경계 해제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스위치가 꺼져 있던 공원 안의 야간등에 불이 들어왔다.

그러자 사냥 모자와 키 큰 남자는 느닷없이 휙 하고 발길을 돌려 공원 밖으로 달아나버렸다. 명철은 상대의 갑작스런 퇴각에 맥이 빠져 눈앞의 한 사람을 내던질 흥미를 잃었다. 그래도 자신을 구타한 패거리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등이 있는 쪽을 향해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남자는 깊게 턱을 당겼다. 명철은 그것을 비틀어 올려 보았다.

“음”하고 명철은 가볍게 신음했다.

남자는 조금 전 맞선을 보고 온 처녀의 오라비였다.

잠시 명철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조용히 팔을 놓았다. 남자는 다소 멧쩍어하면서 명철의 앞에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명철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정당하게 자신의 누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이유삼아 제재했다면 기분 좋게 맞아 주었을 텐데, 허영꾼.—하고 생각하면서 명철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가슴이 심하게 육신겨려서 화가 치밀었다.

## 7

부친은 명철이 맞선을 보러 가서 맞선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다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내심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긴 부족한 가난뱅이의 딸이 우리 아들의 신부가 되겠다니, 그건 애초에 주제넘은 일이지.”

그래서 백부가 와서 강경하게 비난해도 부친은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 백부는 화가 나서 단호하게 명철을 의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꾸했다. 백부는 그렇다면 네 가계는 앞으로 남씨 가문과 절연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절연해도 남가는 남가라며 큰소리를 쳤다.

백부는 마당 한 가운데 서서 집안 전체를 매도하며, 지금 당장 이 놈의 집구석에 벼락이 나 떨어지라고 말했다. 백부는 자신이 마당에 서있다는 사실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백부는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속히 친족들을 불러 모아 부친의 가계를 남씨 가문과 절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그 일에 찬성함으로써 부친의 가계는 결국 남씨 가문의 가계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그러나 부친은 그 사실을 그다지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였다. 남씨 가문의 가계에서 제외된다 해도 그때문에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닭의 숫자가 한 마리라도 줄어들 리는 없었다. 또 항상 찾아오던 바둑 상대인 숙부도 변함없이 이웃의 친분으로 놀러왔다. 백부는 할 수만 있다면 부친의 가계의 성(性)을 조선에서 가장 천한 ‘김(金) 씨 성으로 바꿔버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법적 수속이 번거롭고 또 돈도 드는 일인지라 단념했다.

그러한 가정 내부의 분쟁이 계속될수록, 명수는 명희 얘기를 꺼낼 기회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 명희에게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편지가 왔다. 언제나 별다른 기색 없는 편지에서 명수는 누이의 완곡한 부탁을 읽을 수 있었다.

가을도 완연히 깊어져 아침저녁으로 추위도 점점 더해가던 어느 날 아침, 명수가 자기 방에서 오랜만에 그간 손대지 않았던 악보를 펼쳐 놓고 있는데, 여느 때처럼 침착한 얼굴을 하고 명엽이 들어왔다.

“너, 오늘 밤 뭔가 할 일이 있느냐?”하고 명엽은 방 안에 선 채 물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만”하고 명수는 손에 든 악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럼, 부탁 한 가지 들어주지 않으려?”

명수는 웃으며,

“제게 부탁할 필요가, 없지도 않겠군요.”

“그렇게 얽히는 거야. 언제가 때가 오면 명희의 일은 내 쪽에서 잘 이야기 해주마.”

“그럼.”

“음.”

명엽은 잠시 부친의 방 쪽을 쳐다보는 시늉을 하고는,

“어젯밤 이웃의 숙부가 와서 서커스를 보고 온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장 서커스가 보고 싶어지셨는지, 오늘 밤 나더러 안내를 하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형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아니, 특별한 사정은 없는데, 저 난홍이가 함께 가거든. 나는 아버지 앞에서 그것에게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건 아무래도 내키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난홍이가 곧 기가 살아서 또 뭔가 이래라저래라 하고 싶어 할 테고.”

“그래서 대신에 제가 가달라고 하시는 거군요.”

“한번 부탁하마.”

“가는 건 괜찮지만, 서커스 따위는 별로여서요.”

명수는 얼굴을 찌푸렸다가, 잠시 뒤 뭔가 생각났는지 돌연, 그럼 한번 안내해보겠다고 말했다.

명엽이 거듭 부탁을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명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펼쳐들고 광도면을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시내의 극장 프로그램이 게재되어 있는 하단 쪽을 보면서 잠시 무언가를 생각했다.

점심식사 후 명수는 난홍의 방으로 찾아갔다. 난홍은 경대를 향해 앉아 계속해서 눈꺼풀 위를 문지르고 있었다. 요즘 한가한 탓에 난홍은 눈 위에 쌍꺼풀이 없다는 사실을 애통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딘가에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기구가 있다던데?”하고 난홍은 물었다.

“무엇 때문에 쌍꺼풀을 만듭니까?”

명수는 방 안의 강렬한 향료 냄새에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래도 현숙의 눈에는 쌍꺼풀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눈은 멍해 보이잖아요. 붕어눈갈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붕어는 좀 심하지.”

난홍은 기가 살아 길게 찌진 눈을 가늘게 뜨면서,

“현숙이 들으면 화내지 않을까?”

“화를 낸들 상관있나요. 그에 비하면 어머니의 눈은 검고 맑아서 반짝반짝 하는 걸요.”

“뭘, 그렇기야 할라구. 명수는 정말 말솜씨가 능란하다니까.”하면서 난홍은 그래도 잠시 명수를 잊은 듯 거울 속을 바라보았다.

명수가 뒤로 손을 짚은 채 서양과 일본, 그리고 조선과 지나의 고대와 근대를 섞어 놓아 고급과 저급이 무질서하게 잡거하고 있는 넓은 방 안의 장식품을 둘러보고 있자니, 난홍은 비로소 정신을 되찾은 듯,

“그런데, 뭔가 내게 볼 일이라도?”하고 물었다.

“오늘 밤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에 가지지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안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 그런데 명엽이가 간다고 하던데.”

“형은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명엽이는 나를 바보 취급한다니까.”

“그래도 제가 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명수는 항상 내게 친절하니.”

“저는 태생이 그런 걸요.”

난홍은 깊게 해석하려 들지 않고,

“그런데, 무슨 일이지?”

“어머니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서커스와 활동사진 중 어느 쪽이 좋으세요?”

“그야, 나는 영화 쪽이 좋지. 서커스 따위는 너무 하품 나잖아.”

“어머니는 이 집에 오시고 나서 활동사진 보러 가실 기회가 전혀 없으셨지요?”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으니 별 수 없지. 나는 사실 영화가 보고 싶지만 방법이 없으니.”

“그럼, 오늘밤 제가 활동사진관으로 안내할 테니, 어머니께서는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모르는 척 해주시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화를 내실 텐데.”

“제게 맡겨 두세요. 사실은 저도 활동사진이 보고 싶거든요.”

저녁이 되자 부친은 병철에게 일러 자동차를 부르게 하고, 자신은 옷을 갈아입었다. 난홍도 단장을 하고 부친의 방으로 들어갔다.

모친은 갑녀에게 일러 명수를 안방으로 불러서는 평정을 가장한 모멸어린 태도로, 난홍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라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행동으로 아버지의 체면을 더럽힐지 모르니, 네가 아버지의 신변을 잘 보살펴 드리라고 당부했다.

병철과 갑녀에게 배웅을 받으며 세 사람은 이윽고 자동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명수가 운전수에게 일러주었다. 십 분 정도 지나가 자동차는 종로 2정목에 있는 조선극장 입구에 다다랐다. 부친은 극장의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상하다는 얼굴을 했다.

“서커스는 천막을 쳤다고 하던데.”하고 난홍 쪽을 돌아보았다. 난홍은 모르겠다는 시늉을 했다. 명수가 앞장서 가서 윗층석으로 표를 세 장 끊었다.

이층 좌석으로 올라가 부친을 가운데 두고 세 사람이 앉았다. 영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고, 또 앞쪽의 스크린을 내려다보면서 줄곧 안절부절할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치리링’ 하며 벨이 울리자, 장내가 갑자기 캄캄해졌다. 그리고 전방의 하얀 벽에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비춰졌다. 사자는 부친 쪽을 향해 두세 번 포효했다.

부친은 여기까지는 아직 이 사자가 뭔가 서커스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런데 사자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코쟁이 남녀가 나와 뭔가 애교를 떨기 시작했다. 부친은 몇 년 전 명수가 다니던 학교의 학부형회에 불려가 활동사진을 보았던 경험을 기억해냈다.

“뭘야, 이걸 활동사진이잖아?”하고 부친은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형이 활동사진관으로 모시고 가라고 해서.”

“응? 아니야. 활동사진이 아니라 서커스지.”

그러자 양 옆의 손님들이 씯, 씯 하며 그 고성을 제지했다. 아버지는 부아가 치미는 듯 주위를 둘러보고는 좌석에서 일어서려고 했다. 그때 난홍이, 좋은데 왜 그러세요? 어차피 들어온 거 하나라도 보고 돌아갑시다, 하고 잡아끌었다.

명수는 정면을 주시한 채,

“사진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는 일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하고 말했다.

부친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속이 뒤틀려 화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명엽이 놈을 불러 기어코 사정을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분개했다. 이따금 난홍이 말을 걸어와 화면 쪽을 보았지만, 코쟁이 남녀가 수치심도 없이 서로 껴안는 것을 보면 또 대단히 불쾌한 듯이 얼굴을 돌렸다.

잠시 후 장내가 다시 밝아졌다. 부친은 그래서 일어서려고 했다. 명수는 활동사진의 유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친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투덜대고 있는 동안 장내는 또 다시 어두워졌다. 부친이 화가 나서 뭔가 외치려 하는데,

“호오.”하고 명수가 화면을 보면서 탄성을 질렀다.

부친은 슬쩍 눈을 들었다가 곧 자세를 똑바로 하고 쳐다보았다. 그리고 묵묵히 정면을 향한 채 조용해졌다.

“전쟁이로군.”하고 부친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전선(戰線) 뉴스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탄환 소리가 빈번히 울린다. 언젠가 본 기억이 있는 일본 병사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필사적으로 사격을 해대고 있었다. 또는 탁류에 가슴까지 잠겨서는 같은 병사에게 어깨를 빌려주어 물을 건너게 하는 장면도 있었다. 다시 장면이 바뀌자, 부상을 당한 병사가 손발에 붕대를 감고 간호를 받고 있었다.

부친은 정신을 빼앗긴 듯 화면에서 눈을 떼려고 하지 않았다.

“저건, 전쟁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 테지?”하고 부친은 다소 불안한 듯한 얼굴로 물었다.

“아니요, 실제 전쟁을 촬영해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난홍 쪽을 돌아보았다. 난홍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음. 그럼 진짜 전쟁이군.”



“그렇습니다.”

부친은 다시 화면 쪽을 향했다.

“명철 형님도 전쟁에 나가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으음—” 부친은 문득 생각이 난 듯 신경질적인 얼굴이 되었다.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부친은 난홍의 이야기에는 아랑곳 않고 혼자서 공리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불쌍하구나”하고 부친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하지요.”

명수는 다소 적극적으로 나서며,

“아버지, 한번 후원해주세요.”

“음, 하지만 상대가 전쟁이니 방법이 없겠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쟁 비용으로 돈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돈?”

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렸다. 집에 가까워져 가자, 부친은 점점 평상시의 얼굴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영화의 감격이 조금씩 식어가는 듯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도 국민으로서 얼마간 현금할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라니? 나는 동정하고 있으니 그걸로—.”

“동정도 동정입니다만,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길 하는 거냐?”

“만약 경성의 하늘에 지나 비행기가 날아온다면, 물론 총독부를 폭격하겠지만 또 아버지의 집만 피해가리란 법은 없습니다.”

“지나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지나 측에서 보면 그렇지요. 아버지께서 지나를 멀리 해도 지나는 아버지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부친은 명수를 흘깃 보면서, 그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이 녀석의 입에 발린 말일 뿐인지확인하려는 듯했다.

얼마쯤 지나 부친은 생각난 듯이,

“그럼, 만약 지나 비행기가 날아온다면, 너의 백부 집 창고 위에도 폭탄을 떨어뜨리겠지? 저 한학자의—.”

“그렇지요.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서 백부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는 게 좋겠다. 한학자는 기절초풍할 테지.”

부친은 폭탄이 떨어져 모든 것을 잃게 되면 백부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한번 걱정하는 듯이 불쌍하게 여겨주고 나서는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

## 8

그러나 그 뒤 얼마가 지나도 부친은 현금을 내겠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명수는 부친을

재촉해보았다. 그러자 부친은 무언가 생각난 듯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래서, 얼마 정도면 되느냐, 응? 이치야 뭐 네가 말한 대로겠지만, 실제 얼마 정도면 되는 게냐?” 하고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지나 비행기가 정말로 날아 올 일은 없겠지?”하고 말했다. 명수는 머리 뒤로 팔을 뻗어 손깍지를 끼고는 잠자코 있었다.

“네 숙부의 말로는 일본군은 강해서 지나 따위는 상대도 안 되된다던데. 만에 하나 비행기가 날아 온다 해도 군함 위에서 문제없이 쏘아 떨어뜨려 버린다더라.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가지.”

명수는 허탕 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험 삼아 한번 약점을 파고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적으로 봐도 그렇구요.”

부친은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었다. 도의를 중시하는 면에서는 남가 일족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다. 설령 그게 아무 관계없는 전쟁이라 해도, 도의는 일단 도의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일본군이 약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경성 거리는 흡사 아수라장이 되겠지요. 부모를 잃은 아이, 자식을 잃은 부모—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돌아갈 테고.”

“.....”

“뿐만 아니라, 포탄이 자랑스러운 조선의 문화를 파괴할 겁니다. 저 역 앞에 솟아있는 남대문에 폭탄이 떨어지고, 또 경복궁에도 가차 없이 포탄이 날아오겠지요.”

“바보 같은 놈!”하고 아버지는 화를 내며,

“황송하게도 경복궁 어전에 총포를 들이대는 그런 불명한 무리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명수가 거듭 뭔가 더 얘기하려 하자 부친은 이제 됐다고 제지하고는,

“네 방에 돌아가 있거라. 나중에 내가 잘 생각해보고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마.”

명수는 방으로 돌아가 역시 단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려 하였다. 그런데 저녁에 또 부친 앞에 불려갔다. 전날 본 전쟁 활동사진을 한번 더 보고 싶으니 안내하라는 것이었다. 부친은 현금을 하더라도 일단 그 값어치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는 불안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각도에서 활동사진을 제대로 감정(鑑定)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사실 현금 할 구실을 찾기 위해 다시 뻔히 알고 있는 일이라도 일단 눈으로 똑똑히 보고나서 스스로 납득하고 싶다는 기분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명수는 이번에는 본정(本町)에 있는 내지계(內地系)의 상설관으로 극영화를 보러 갔다. 그 영화에서 일본군 병사는 매우 강했다. 특히 촬영 기사가 이번에는 용감하게 적진까지 들어가서 촬영하고 있었다. 부친은 아버지는 지나 병사의 패기 없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군 가운데서도 용감한 대위 하나가 화려하게 활약하고 있었다. 명수는, 명철 형도 저렇게 용맹을 떨치고 남씨 가문의 명예를 천하에 떨치겠지요, 하고 말했다. 부친은 다소 기분이 좋아지려 했다.

그러나 현금을 하게 된다면 역시 그 근거가 막연했다. 활동사진만으로는 상대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불안했던 것이다. 그래도 뭔가 구실이 생긴다면, 뭐 현금을 해도 좋다고 부친은 생각했다.

그때 우연히 그 구실을 명엽이 가져왔다. 어느 날 명엽은 또 예의 난처한 얼굴을 하고 돈 삼백 원 가량을 주십사하고 부탁하러 왔던 것이다. 부친은 어떤 암시를 받은 듯이, 이것으로 됐다, 고 생각했지만, 일단 생각해보기로 하겠다고 하고는 명엽을 돌려보냈다.

부친은 명엽을 다시 자신의 방으로 불러 안경을 벗게 하고, 먼저 물어 보았다.

“너는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그 돈의 용도를 내 앞에서 확실하게 말해 보거라.”

명엽은 왜 새삼스레 뻔한 것을 물어보시는 걸까, 하고 의심스러워했지만, 그러나 입 밖에 낼 수는 없어서,

“일신상에 관한—용건이 돌발해서요.”

“너는 평생 일신상에 관한 일을 몇 번 경험하면 족한 게냐?”

“.....”

“네가 그 돈을 계집에게 쓸 작정이라는 건 알고 있다. 너도 이제 적당히 생각을 좀 바꿔서 한번 의의 있는 일에 돈을 써볼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그렇게— 마음가짐만큼은—.”

“그렇다면 자, 어떠냐. 네게 줄 그 돈을 내 돈과 합쳐서 나라에 헌금하는 것이.”

명엽은 고개를 들고 묵묵히 있다가, 이윽고 명하니,

“저, 나라라고 하시면.”

“나라가 나라지. 너는 그 뭐냐, 도의심도 없는 게냐?”

“도의심은,— 저, 가능한 한—.”

“만약 일본군이 곤란해졌을 때의 일을 생각해봐라. 경성 거리는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될 게다. 남가 일 죽은 뿔뿔이 흩어지고, 처자식은 거리를 헤매겠지.—재산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돌아갈 게고.”

“네.”

“뿐만이 아니라 포탄이 조선 고유의 문화도 파괴할게다. 저 역 앞에 솟아 있는 남대문에 포탄 떨어지면 어쩔 테냐? 응?”

“네.”

“또 경복궁에도 가차 없이 포탄이 날아오겠지. 황송하게도 경복궁 어전에 총포를 들이대는 불명한 무리가 어떤 놈이냐?”

부친은 명엽을 바라보며,

“일본군은 지금 지나의 전쟁터에서 놈들을 평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다. 너도 신학문을 했으면서 그 정도도 생각할 수 없단 말이나?”

명엽은 아무래도 이야기의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다시 물어보았다.

“그런데, 저, 누가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뭐라고?”

아버지는 다리를 고쳐 앉으며,

“내가 생각했다. 내 스스로 혼자서 생각했다. 너는 뭐냐, 내가 그 정도 일도 생각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요, 결코 그런 것은—.”

“그럼, 잠자코 있는 게 좋다.— 거듭 얘기하지만, 지나의 비행기가 날아온다면 총독부는 물론 폭격 당하겠지만, 우리 집과 또 네 백부 집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어째서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냐? 네 방으로 돌아가서 이치를 잘 생각해 보거라.”

“하지만, 아버님—.”

“됐다. 이제 물러가도 좋다. 네 방에 돌아가서 이치를 잘 생각해 보거라.”

부친은 명엽이 뭔가 반대 의견이라도 꺼낸다면 대답할 자신이 없어서, 어쩔든 억지로 명엽을 돌려 보냈다. 그리고 계집질에 쓸 돈이라면, 이치야 어찌되었든 헌납하는 게 의의 있는 일이 틀림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명엽은 멍하니 부친의 방을 나왔지만, 발밑이 뿌옇게 보이는 바람에 안경 쓰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어 쓰고 마루를 내려왔다.

자신의 방으로 가기 위해 가운데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옆방에서 명수가 말쑥하게 조선옷을 입고 나왔다. 명엽은 그 얼굴을 잠자코 바라보다가, 갑자기 히죽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요즘 조선옷을 자주 입는데—,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는 게냐?”

“아니요, 별로—.”

“오늘은 어딜 가느냐?”

“음, 잠깐 이 근처에—.”

“백부의 집에?”

“음, 아니요, 뭐.”

“공습경보 하러?”

명엽은 멍하니 올려다보는 명수의 얼굴을 향해 쓰디쓰게 혀를 차면서, 발끝의 작은 돌을 걷어찼다. “총독부 위로 지나의 비행기가 어쩐다고? 건방진 놈.”

“아니, 그건 좌흥(座興)이었는데.”

“좌흥치고는 썩 훌륭하구나. 늦기 전에 썩 꺼지는 게 어떠냐?”

명엽은 부친에게 받은 돈으로 이제 연선에게 기생질을 그만두게 할 작정이었는데, 모두 허사가 되어 화가 치밀었다.

며칠 후 부친이 현금한 일이 신문에 실렸다. 명수는 신문을 들고 부친의 방으로 갔다. 부친은 다소 인격자다운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내심 의기양양했지만, 그러나 그다지 기쁘지 않은 얼굴을 하고, “천하의 신문이라는 것이 이 정도 일에 사진까지 싣고 이 소동이냐.”하고 말했다.

그리고 사나흘 지난 뒤, 명수는 또 한 장의 신문을 들고 부친의 방으로 갔다.

부친은 신문을 펼쳐들고 명수가 가리킨 곳을 보면서, 으음 하고 신음했다. 그곳에는 관을 바르게 써서 한층 더 인격자다워 보이는 백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게다가 현금액은 부친보다도 50원이 더 많았다.

부친은, 결국 한화자도 지나 정벌을 위해 돈을 내놓게 되었는가 싶어 내심 통쾌했다. 그러나 자신보다 금액이 많은 것이 못마땅하여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각각 물건을 하나씩 모아서 명수에게 건네

주라고 일렀다.

명수는 물건이 모두 모이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받으러 다녔다. 모친은 명철의 일을 생각하면서 구태여 목직한 순금 반지를 주었다. 난홍은 아쉬워하면서도 가장 값나가는 금비녀를 건네주었다. 현숙은 가벼운 조소와 관대한 연민을 띤 표정으로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건넸다.

이 물건들을 모두 헌납하고 나면, 드디어 명희 문제 차례라고 명수는 생각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기회를 보아 뭔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그러나 부친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보여주고, 또 가정의 사정도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철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명수는 연대에 전화를 걸고 병영 안으로 명철을 찾아갔다.

격심한 근무라도 계속 되고 있는 모양인지, 명철은 여느 때보다 기운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잘 찾아와 주었다고 맞아들이고는, 집안 사정 등을 여러 가지로 질문했다. 명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는 미소 지으며,

“그거 잘 됐구나.”하고 말했다.

이어서 명수는 사변에 관한 것과 또 명철의 일상 근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이 묻고 싶었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렸다.

“야스코 씨의 결혼 문제는 그 뒤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명수는 어찌면 아까부터 명철의 얘기에 활기가 없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명철은 명수를 힐끗 쳐다보고는 곧 다시 시선을 돌렸다.

“결혼 문제는 해결됐다더라. 그런데 집안이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나봐.”

“집안이.—”

“음, 그것도 야스시게가 다녀와서 알려준 거야. 야스코 씨는 이제 편지를 보내지 않아.”

명철은 책상 위에 놓인 담배를 군복 소매 주머니에 챙겨 넣으면서,

“어디라도 훌쩍 나가볼까? 날씨도 좋고, 이곳은 우울하니.”

“응, 남산공원이라도 걷다 올까?”

“그러자.”

명철은 일어서서 벽에 걸려 있는 외투를 집어 들었다. 명수는 형의 동작을 좇다가 상의의 견장(肩章)에 눈길을 멈추고, 호오, 하고 탄성을 질렀다.

“승급한 거야?”

“응” 명철은 약간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견장을 보였다.

“중위네?”

“뭘, 걸모습만 중위야.”

“중위라니. 시적이고 아주 근사하네.”

“시시한 소리 하네.”

두 사람은 병영 문을 나와 전차에 올랐다. 남대문 앞에서 내린 뒤, 오른쪽의 넓은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조선신궁의 도리(鳥居)<sup>57)</sup> 앞까지 걸어가면서, 명철은 야스코 집안의 사정을 들려주었다.

야스시게의 편지에는, 부친이 사변의 영향을 받아 쓰러진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야

스시게는 오랜 교제 중에도 명철에게 부친의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상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마쓰바라 가문은 현재 야스히코의 재출발로 재기하고 있다고 한다. 부친과 모친은 야스히코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은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스코가 왜 갑자기 편지를 보내지 않게 되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철은 말했다.

긴 계단을 올라, 두 사람은 신궁의 경내로 들어갔다. 돌로 만들어진 난간에 기대어 아래쪽을 바라보니, 눈 아래 일대에 펼쳐져 있는 집들의 지붕이 경성역의 구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하얀 연기에 어렴풋이 희미하게 보였다.

“야스코 씨가 편지를 쓰지 않게 된 기분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하고 마침내 명수는 눈 아래의 지붕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즉 간단하게 원인을 말하자면, 야스코 씨의 집안이 기울었다는 거지.”

“그건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야스코 씨의 기분도 자연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명철은 명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후, 납득이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허영에 구애될 필요가 있는 거지?”

“허영이란 게 꼭 필요 때문에 매이게 되는 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지만.”

명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깊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또 이런 모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야스코 씨의 집안이 기울게 된 것은 형과 야스코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골 하나를 제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은 전보다도 한층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된 셈인데.—”

명철은 출지어 오는 참배객들이 본전(本殿) 쪽을 향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명수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명철은 다소 침울한 얼굴이 되었다.

“두 사람이 가까워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기 좋게 된 거겠지.”

그렇게 말하고는 명철은 명수의 곁을 떠나 천천히 걸어 나갔다. 명수는 자기가 실언했다고 후회했다.

“그런가.— 그런 얘기가 되나?”하고 명철은 또 혼자서 중얼거렸다. 거듭 이런 굴욕을 받게 되느니, 차라리 야스코와의 교제를 그만두리라.

“상대의 호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명수는 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말했다.

“호의라는 건 주는 쪽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어느 책에선가 읽은 적이 있어.”

명철은 다시 난간에 기대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한 대 뽑았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입에 대려고는 하지 않았다.

---

57) 신사(神社) 입구에 세운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 문.

“그러나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닐까 싶어. 게다가 형이 그런 각도에서 야스코 씨 한 개인을 대하는 건 확실히 좋지 않아. 형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야스코 씨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테니.”

“.....”

“사실 그런 자부심이 서로에게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해봐. 애써 여기까지 온 마당에, 사소한 일에 구애될 필요가 어디 있어? 야스코 씨의 입장에서든 할 말이 있겠지. 또 형의 입장에서든 그럴 테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입장만 주장해서는 파탄이 있을 뿐이야. 일가의 동지(同志)들이 융합하려 해도 자기 자신만 가지고는 어떻게든 안돼. 하물며 다른 사람, 이성(異性), 이민족 동지가 서로 친밀해지려는 마당에, 그렇게 감정상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어리광이 지나쳐.”

그러나 명수가 어떤 말을 해도, 명철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손가락에 끼워 둔 담배에 생각이 미치자 입에 물고는 성냥을 붙였다. 그러나 한 모금 빨고는 발밑으로 던져 버렸다.

“돌아가자.”라고 명철이 말했다.

그리고 앞서 걷기 시작했다. 도리를 나와 남대문 쪽으로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스코 씨가 싫어진 건 아니겠지?”

“.....”

“아무튼 그 일은 잠시 내게 맡겨 둘 수 없을까?”

명철은 조금 전 보다도 한층 침울한 얼굴을 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남대문 길로 나와 버려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다.

“어떻게 할거야?”

명수는 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물었다. 명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가, 잠시 후

“자, 너 좋을 대로 한번 해보렴”하고 말했다.

## 9

그러나 명철은 연대에 돌아오고 나서 곧 후회했다. 자부심 탓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정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언제 동원령이 떨어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어찌 보면 자기야말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려 한다는 양심적인 가책도 드는 것이었다. 언제까지나 감정에 저서 미련이 있는 듯 질질 끌려 다니는 인간적인 약점에 대해서도 혐오의 감정이 치솟았다.

명수에게 편지를 써서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취소할까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어쩐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어떻게 될까, 좀 더 되어가는 대로 몸을 맡겨보자고 명철은 생각했다.

형과 헤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온 날 밤, 명수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동경의 야스히코에게 편지를 썼다. 야스코와 명철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경위를 쓰고 또 명철의 기분을 전하면서, 만약 야스코 씨에게 이의가 없다면 두 사람의 일을 잘 조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야스히코로부터 정중한 답장이 왔다.

편지에 의하면, 진작부처 자기도 야스시게에게 사정 얘기를 들었고, 야스코도 두세 번 넌지시 상의

해 온 일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집안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스코도 마음고생하고 있을 것 같아 자기도 그대로 놔두고 말았는데, 의향이 그렇다면 이후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다.

그 뒤 두세 번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 이야기가 많이 진척되어, 나머지는 다시 두 사람의 부모님이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로까지 나아갔다. 그러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역시 명희의 일이었다.

명수가 연대에 있는 명철에게 사정을 알려주러 가야겠다고 생각한 어느 날 아침이었다. 갑자기 명철이 집에 다니러 왔다.

명철은 긴장한 얼굴을 하고 들어서면서 명수에게,

“동원령이다”하고 말했다.

“호오” 명수는 약간 발뒤꿈치를 치켜들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 밤 출발한다.”

명철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부친의 방으로 인사드리러 갔다. 명수는 갑자기 옆에서 일이 터졌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야스코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라를 위해 헌금도 했던 아버지는 아들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자,

“그러게 내가 몇 번이나 군대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던?”하고 훈계했다.

모친은 전쟁에 나가 죽으면 안 된다고 울면서 타일렀다. 겁너도 모친을 따라 소리 내어 울었다.

명수는 명엽의 방으로 갔다. 명엽은 아직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명철이 출정한다는 말을 듣자 웃으면서,

“그래?”하고 말했다.

그렇게 말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송별회를 하자고 명엽이 말을 꺼냈다. 명수가 가족 전부가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세 사람이 좋겠지, 하고 말한다. 명철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이었다.

명철은 군복을 조선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했다. 그러자 명엽은 그대로 가자고 말했다.

“불명예스러운 곳은 아니니까, 괜찮다.”

자동차를 불러 세 사람은 올라탔다. 행선지는 명엽이 운전수에게 알려주었다. 약간 어두운 조선 가옥이 늘어선 거리를 일단 벗어나자, 자동차는 어느 요릿집 현관에 다다랐다. 보이가 세 사람을 맞이하며 안쪽 자리로 안내했다.

“뭘,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헤어지자.”

명엽은 이렇게 말하고는 돗자리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명철은 안절부절 하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윽고 요리가 나오고 술이 왔다. 열 명가량의 기생들이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들어왔다. 기생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명철을 보고는 잠시 당황한 얼굴을 했다.

“내일 밤 전쟁터로 간다. 많이 위로해줘.”



명엽이 여자들에게 말했다. 기생 한 명이 술병을 들고 명철 앞으로 나아가,  
 “저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무운장구(武運長久)<sup>58)</sup>를 힘껏 빌겠습니다.”  
 라고 내지어로 말했다. 명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명엽이,  
 “넌 뭐가 우습냐?”하고 진지하게 꾸짖었다.  
 “아니, 우습다니요. 전혀 아닙니다. 감격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웃음이 난 거라구요.”  
 “너는 뭐냐, 진지한 일에도 웃다니, 나쁜 버릇이구나.”  
 명엽은 몹시 꾸짖듯이 말하면서도 방긋 웃었다. 명철은 비로소 정신이 들어, 바닥을 쳐다보면서 여  
 자에게 조선어로 말을 걸었다.  
 “어머.”하고 기생들이 일제히 명철을 돌아보았다. 명수는 또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명엽은 못마땅  
 한 얼굴을 하고 옆쪽을 향해 앉았다.  
 “조선 분이셨어요?”하고 여자는 명철의 얼굴을 뻘뻘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내 동생이야. 거짓말 같으면, 계동(桂洞) 남준기 씨 집에 갔다 와 보라구.”  
 “그래도 대단하신 걸요.”  
 “그럼, 그 대단한 놈이 내 동생이야.”  
 명엽은 여자에게 잔을 들이댔다. 기생들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샤미센이라도 켜면서, 군가(軍歌)  
 라도 부를까요?”하고 말했다.  
 “뭐, 그런 격에 맞지 않는 일은 그만 두고, 장구를 반주로 삼아 수심가나 불러 보거라.”  
 “하지만 수심가라니, 재수 없잖아요.”  
 여자가 명철 쪽을 바라보면서 내지어로 말했다. 명엽은 그 내지어의 발음을 고쳐주며,  
 “재수를 따져가며 군가를 부르는 건 시시하잖아. 뭐 괜찮으니, 수심가나 부르라구.”  
 “그러면 다른 잡가(雜歌)로 하지요.”  
 마침내 기생들은 천천히 장구 반주를 넣어가면서, 옛날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만든  
 창힐(蒼頡)<sup>59)</sup>이야말로 원망스럽네.  
 시황제가 서적을 불태울 때  
 어떻게 달아나 세상에 남은 것인지

58) 당시 일본은 전쟁에 나가는 병사, 즉 무인(武人)들에게 ‘무운장구를 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때 ‘무운(武運)’이란 전쟁의 승패에 관한 운수나 무인으로서의 운명을 뜻한다. 또한 ‘장구(長久)’란 매우 길고 오래, 즉, 장원(長遠)함을 이르는 말로 ‘무운장구’는 무인으로서의 운명이 매우 길고 오래를 뜻하는 말이다.  
 59) 중국 고대의 전설적 제왕인 황제(黃帝)의 사관(史官)으로, 최초로 문자를 창제한 사람으로 전해진다. 창힐은 태어날 때부터 성덕(聖德)이 있었는데, 이후 새나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창안하여 그때까지 새끼의 매듭으로 기호를 만들어 문자 대신 쓰던 것을 문자로 고쳤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전설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이고, 창힐도 실제의 인물은 아니지만 새끼의 매듭을 이용한 데서 문자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는 전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전설은 한(漢)나라 때 전해진 것으로, 창힐이란 이름이 붙은 서적명이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남아있다.

알뜰게도, 이 두 글자 지금도 여전히  
여러 사람을 올리는구나.

또 다른 젊은 기생 하나가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는 검을 들고 일어섰다.

바위틈을 흐르는 계곡의  
물결은 빠른 것을 자랑마라.  
한번 바다에 이르면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나니  
달빛이 산에 가득하거든  
잠시 예서 쉬려무나.

명철은 기생들을 둘러보면서,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술이 점점 취해옴에 따라 자신도 그 음률에 박자를 맞춰 보았다.

명수는 목을 축이기만 할 뿐, 그다지 마시려 하지 않았다. 명엽은 거나하게 취한 눈을 하고는 명수의 얼굴을 뻘뻘 쳐다보고 있다가, “나는 지금까지 네가 아니꼬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뭐, 이렇게 되고 보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너는 참 똑똑한 놈이다, 네가 나보다 한 수 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동경이 그렇게 좋은 곳이야? 너는 동경에서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영리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음, 뭐”하고 명수는 웃었다.

“나도 한번 구경이라도 다녀오고 싶지만, 우물 안 개구리, 넓은 바다를 모르고는 이야기가 안 되니. 그런데 조선에 대한 동경의 인식은 어느 정도인 게냐?”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글쎄요, 어떨지. 인식이라니,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동경에 있는 동안에는 조선을 떠올려 본 적이 없으니까요. 향수 같은 게 생길 여지도 없고요.”

“동경 사람들은 조선과 일본이 합병한 사실은 알고 있는 게냐?”

“그 정도는 알고 있죠. 형님도 인식 부족이시네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해서 무얼 하시려구요?”

“명철이가 전쟁터에 나간다니, 좀 더 확인시켜주려고.”

“아니, 그렇게 무리할 게 아니죠. 필요도 없는 걸 확인시켜봤자 허사가 아닙니까?”

“음, 뭐,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그렇군.”

명엽은 이미 기생을 하나 부둥켜안고, 몹시 기분이 좋았다. 그는 명철 쪽을 향해,

“너도 뭐냐, 너무 영웅인 체하지 마라. 너는 말이지. 만약 반대로 나와 시절을 바꿔 태어났다면, 민족주의자가 되었을 거야. 알겠냐? 아마도 주의에 패배하고 지금쯤 지나 등지로 방랑하고 있겠지. 운이 좋았던 게야. 그러니 운 나쁜 것을 경멸하거나 바보 취급하는 건 그만하라구.”

명수는 그 모습을 보고 히죽 히죽 웃었다. 명엽은 그런 명수를 비웃으면서,

“너는 재능도 갖고 있으면서 언제나 절망한 듯이 말하는데, 실제로 진정 절망하고 있는 게냐 아니면 절망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자 하는 게냐, 대체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이든 해석에 맡기지요.”

“네 절망에는 아직 허영이 있어. 게다가 그 절망이 크다는 것이 네 허영심을 한층 더 만족시켜 주는 게고.”

“꽤 날카로우신데요. 우리들은 물론 행복하지요. 불행한 건 단지 형님뿐이에요.”

“내가 불행하다고? 내가 왜 불행하다는 게냐?” 명엽은 찡그린 얼굴을 했다.

“아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불행한 겁니다. 형님은 꽤 괜찮은 사내지만, 매일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시간과 돈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지요. 정말 불쌍해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고통과 커다란 무엇이 있을 게 틀림없겠지요. 그리고도 남지요. 뭐랄까,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인간? 뭐가, 새삼 인간이냐? 분명히 말하지만, 유흥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단, 시절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망을 배신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다만. 아무 생각 없이 쾌활한 얼굴을 할 수는 없어.”

“아니,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달라요. 형님은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

“불행해요.”

“그럼 너도 나의 유흥을 뭉가에 연결 지어 향락하려는 일파(一派)로군. 확실히 말하지만, 나는 거절이다. 나의 도락(道樂)<sup>60</sup>은—순수다. 나는 사람들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주 싫다.”

“그렇다면 형님은 속물이에요.”

“그렇다. 나는 속물이다. 단순한 속물. 고고한 속물과는 달라. 그렇지만,—속물은 뭐, 살아가면 안 되는 게냐?”

“안 될 건 없지만, 뭐, 어느 쪽이든 괜찮겠지요.”

“그래? 그것으로 충분히 족하다. 내게는 이렇게 여자나 안고 있는 게 가장 어울려.”

명엽은 여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꺼내 건네면서, 이 주소를 잘 봐둬, 계동이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알아? 그곳은 양반님 네가 사는 동네지. 한창 세가 드날리던 때라면 너 따위가 이렇게 내 옆에서 가까이 시중들 수 있는 신분은 아니지. 남준기 씨의 장남 남명엽이가 네게 하룻밤의 총애 받는 것을 허락하니, 그 명함을 잘 봐두라고, 말했다.

여자는 명함을 받아 들고는 소매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것을 명수가 옆에서 낚아챘다.

명철은 뭔가 뒤죽박죽인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의식 없는 조화 속에 잠겨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금 전 한 기생이 일본어로 자신에게, 무운장구를 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소박한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추종이었는지, 그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주위를 떠돌고 있는 온화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잠시 후, 명철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일본어로 명수에게 말했다.

60) 술, 계집, 도박과 같은 유흥에 취하여 빠짐.

“실은, 잊고 있던 일이 있는데, 네게 부탁해두자.”

그리고 말을 자르고는,

“명희 일인데,— 잘 부탁한다.”

“응.”

“—그 애가 오죽이나 기다리고 있겠니.”

명철은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하며 명수 쪽을 향하며 잠시 망설였다.

“응”하고, 명수는 재촉하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명철은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했지만, 그때 기생 하나가 장구 반주를 넣으면서 “이기고 오세요. 용감하게”라며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긴장이 되어 그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주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튿날 남가의 사랑방에서는 한번 더 아들을 보내기 위한 송별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남가 일족의 사람들이 나중에 속속 명철의 행운을 빌러 찾아왔다. 시국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역시 일가 중에서 출정자를 내고 보니, 돌연 그 사명의 중대함을 가깝게 느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명철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또 명엽이 준비해 온 일장기에 각각 서명을 했다. 그중에서 아버지의 명필은 한층 정채를 발했다. 백부는 바로 옆의 빈 공간에 서명을 하면서, “붓을 마음껏 휘둘러 썼더라면 운치 있는 필체가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날 밤 경성역의 플랫폼에는 군용열차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출정병사를 배웅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술렁거리며 모여 있었다. 그중 흰 옷을 입은 한 무리가 보였다. 육군 보병 중위 남명철을 배웅하러 온 남가 일족 사람들이었다.

명철은 그들 배웅객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부친은 이따금 본인이 출정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흥분하면서 지나 병사를 욕했다. 그래도 백부는 점잖은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해주었다.

명철은 배웅객들에게 한 사람씩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수에게 다가와서는,

“한 가지 더 네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하고 말했다.

“응”하고 명수는 웃었다.

“실은,— 야스코 씨의 일에 관한 건데—.”

평소의 버릇대로 시선을 아래로 떨구면서,

“네가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주었다는 것은 야스코 씨가 편지해주어서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운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응.”

“이기고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또 전사하게 될지도 모른다.—그러니 야스코 씨에게는 무엇 하나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알았어.”

“그리고 명희의 일도 잘 부탁한다.”

“응, 명철의 일은 내일이라도 해결 지으려고. 내일모레는 드디어 아버지 상투 차례야.”

“정말 자르실까?”

명철은 웃었다. 웃으면서 부친 쪽을 바라보았다. 부친은 아까부터 자신의 아들만 군가 하나 부르지도 않고 조용히 보내는 것이 불만이였다. 그리고 주위를 오가는 내지인들의 시선을 아들 쪽으로 끌려고 애를 썼다.

열차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오자, 명엽이 명철의 옆으로 다가와 손을 쥐었다.

“지금까지의 일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내 기분도 완전히 일변했다. 나는—네가 부럽다. 언젠가 나도 뭔가 나라를 위해 해보려고 한다.”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명철의 손에 명엽은 주머니에서 꺼낸 무명 꾸러미를 쥐어주었다.

“이건 현숙이 주는 선물이다.”

명철은 명엽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꾸러미 위로 시선을 떨구었다.

명엽이 웃으면서,

“나중에 생각나서 서둘러 급히 만든 거야. 겁내도 한 땀 도와주었다.”

명철은 현숙 쪽을 돌아보았다. 현숙은 모친 뒤에 서서 말없이 명철 쪽을 바라보고 있다. 난흥은 그 옆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마침내 발차 시간이 다 되어 명철이 열차 안으로 올라타자, 명엽이 말머리를 높여, “남명철군 만세” 하고 소리 높여 세 번 외쳤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빛났다.

(끝)

1940년 6월 15일 제1쇄 인쇄

1940년 6월 20일 제1쇄 발행

綠旗聯盟

정가 2원

저자 김성민(金聖珉)

발행자 東京市日本橋區通二丁目二番地 エンパイヤ・ビル 伊藤行男

인쇄자 東京市 神田區鎌倉町 十九番地 井關敦雄

발행소 東京市日本橋區通二丁目二番地 エンパイヤビル 羽田書店

전화 日本橋(24) 2870번

振替口座 東경87266번

明治인쇄주식회사 인쇄

〈출전 : 金聖珉, 『綠旗聯盟』, 羽田書店, 1940년〉

### 3. 이무영

#### 1) 역전(驛前, 1943)

“다카모토(高本)가 몰매를 맞고 있다.”

누군가가 일러주어 달려 온 나는 끔찍했다. 인간끼리 저렇게 난폭해질 수가 있을까. 세 사람의 패거리가 한 사람을 둘러싼 채, 때리고, 차고 하는 엄청난데 혐악한 태도인데 다카모토는 손 하나 대꾸하지 않고 오로지 받고 또 받고만 있다.

그는 요즘 마을에서 이름을 날리는 장사이다. 그런 그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은, 여간 나쁜 짓을 했음에 틀림없겠으나,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저렇게 비정한 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는 생각에 나는 왈각 화가 나서 군중 속에 뛰어 들어간 것이다.

“부탁입니다. 가만 두어주십시오.” 뜻밖에도 다카모토가 애원했다.

“진짜 싸움이라도 된다면 저는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사유를 알고 나는 아연해졌다. 쌀 암거래에 참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것을 알고는, 힘이 쪽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기차가 세 사나이를 태우고, 암거래가 정리된 후 중재를 거부한 이유를 물으니, 다카모토는 웃기를 여미며 대답하는 것이었다. “저는 언젠가는 소집되어 갈 몸입니다. 하찮은 싸움으로 상처라도 난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다카모토는 지원병 출신자였다.

〈출전 : 李無影, 驛前, 『朝光』 제9권 제9호, 1943년 9월〉

## 2) 『청기와집』(1943)<sup>61)</sup>

이무영  
일본식민지 문학 정선집(精選集)  
(조선편) 5  
감수 白川 豊

### 일본 식민지문학 정선집(조선편) 간행에 즈음하여

白川 豊

이번 본 기획에서 다룬 식민지 하의 일본어문학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친일문학’으로 싸잡아 비판되어 그 이상 논의의 필요도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학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이라도 원본 자료를 손쉽게 구해볼 수 있도록 한 본 기획은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다. 한편 돌아보면, 일본에서의 한국문학이나 한국인의 일본어 문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대단히 낮지만, 일본문학 측 연구자 사이에서 최근, 구 식민지에 있어서의 일본어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저 일본문학의 주변 영역을 찾아다니는 ‘틈새 산업’적인 관심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하의 일본어문학은 일본제국의 한 지방에서 씌어진 일본어문학이라는 ‘문학 제국주의’적인 시점에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문학’, ‘조선문학’이라는 집필언어에 의한 분류는 일단 제쳐놓고, 당시 식민지 하에서의 개별의 작품이 갖는 의미나 작품 상호의 위상을 고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조선인 작가의 민족의식이나 고뇌 혹은 식민지하에서 꾀꾀하게 살아가기 위한 고투 같은 것을 작품에서 읽어내는 것도 필요해질 것이다. 또한 식민지로서의 일본인이 쓴 조선에 관한 일본어소설에서는 당연히 당시의 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일본 문학의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도 아니고, 또한 일본 문학사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도 부족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외지(外地)의 일본어 문학』(全3卷, 黒川創 編, 新宿書房, 1996)이 출간되고—그중의 한 권이 ‘조선’ 편이다—이 분야 원문 자료의 출판을 간혹 보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번에는 보다 본 자료에 충실히 한다는 방침으로 출판 당시의 원본 본문을 그대로 복간한 것이다. 이번 기획은 물론 자료를 충망라한 것은 아니고, 다루지 않은 작가도 많다. 원본의 복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단행본 중에서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작품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집 순으로 되어

61) 애초에 장편소설 『청기와집』은 부산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釜山日報』에 1942년 9월 8일부터 1943년 2월 7일까지 연재되었다. 단행본으로 나올 때 일부 표제어와 어구가 수정되었고, 등장인물 중 유해송이 유해성이 되었다. 조선에서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쓴 최초의 일간 연재소설인 이 소설은 ‘청기와집’이라 불리는 양반 權씨 집안을 무대로 하여, 여주인공 安美燕을 둘러싼 남녀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시대는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뒤 일본의 홍콩 점령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이무영은 『청기와집』으로 日本 新太陽社 주관 朝鮮藝術賞 총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있지는 않지만, 1940~1945년의 주요한 단행본을 가능한 한 수록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구 식민지 하의 일본어문학의 복간 출판이 진전되고, 나아가 이 시기 식민지 각 지역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 [범례]

1. 일본 식민지문학 정선집(조선편)은 식민지기 조선의 일본어문학 작품 중 1940~1945년에 간행된 주요 단행본을 복간한 것이다.
2. 이 책은 이무영 『청기와집』(新太陽社, 1943)의 복간본이다.
3. 이 책은 무(無)수정을 원칙으로 했지만, 제본의 형편상 글자 크기를 115% 확대하였다.
4.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용어가 본문 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역사적 문헌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원본대로 두었다.
5. 이무영 씨의 저작권 계승자에 대해 짐작이 가시는 분은, 마유니쇼보(書房) 편집부로 알려주십시오.

#### [목차]

주는 자

청기와집

향수

암투

죄와 벌

해변

삼화 하나

분류(奔流)

태고의 여성

계주자(繼走者)

삼화 둘

분규(紛糾)

개척되는 대지

그날 아침

격전일기

저자 약력, 작품 연보

해설(布袋 敏博)





멀리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얼른 고개를 움츠렸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쳐서야,

“어머. 다행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듯한 얼굴을 한다.

그런데도 그녀는 곧 눈을 창밖으로 던진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녀의 눈은 그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그 사람이 요즘 이 마을에 있을 리가 없어.”하면서 쓸쓸한 듯한 얼굴을 하는 것이다.

유해성(柳海星)은 교장 선생님에게 일주일 휴가를 얻어 읍내에 나가 있다. 2, 3일 뒤에나 돌아올 것이다. 그의 사촌 여동생이 시집을 가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면, 2, 3일 부모님 곁에서 느긋하게 쉬기로 했었다. 그런 그의 계획을 알고 있는 터라—아니, 그의 계획을 훤히 알고 있었기에 오늘 떠나는 것이 아니었던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그 사람 돌아올지도 몰라.”

그렇게 자신을 다그친 터라 오늘 황급히 마을을 뜨긴 했지만, 이 산읍도 이제 작별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20년간 살아 익숙해진 고향. 소녀시절부터 처녀시절에 걸쳐 수많은 꿈을 간직했던 녹색의 산읍. 아버지도 어머니도 세상을 뜨고, 그리고 아름다운 청춘을 함께 했던 사람을 뒤로 한 채, 풀이 죽은 모습으로 홀로 이 곳을 떠나야 할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차는 달렸다. 그녀가 꿈을 쫓아가길 거의 반시간쯤, 엔진에서 ‘뽕뽕’ 하며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미연이 문득 정신을 차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차는 벌써 고향 산읍을 눈 아래로 굽어보는 고개를 내려가고 있었다.

“안녕! 내 고향에 행복이 가득하길!”

그녀가 돌연 이렇게 마음으로 외치자, 양손으로 얼굴을 가릴 틈도 없이 오열이 북받쳐 올랐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그러나 참으면 참을수록 슬픔은 필사적으로 거꾸로 북받쳐 올라온다. 차체가 움직일 때마다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아가씨의 슬픔을 태운 승합버스는 여전히 달린다. 몇 개의 고개를 넘고 산기슭을 돌아 강을 건너, 구불구불 이어진 포플러 가로수가 있는 이등도로(二等道路)를 달린다. 거의 5시간이나 달렸을까. 무서울 정도의 폭음이 나는가 싶더니, 차가 갑자기 멈추었다.

“종점입니다.”

여차장이 말했다.

승객은 제각각 허리가 어땡고 머리가 이상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서서히 차에서 내렸다. 미연은 우선 짐을 역에 부탁하고, 발차 시각까지 아직 두 시간 가까이 남아 있어 쓸쓸히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미연 씨.”

누군가 달래듯 낮은 목소리로 부르기에 엉겁결에 엇, 소리를 내고 말았다.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돌아가시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어쩐 일입니까? 경성(京城)에라도 갑니까?”

유해성은 힐문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예, 잠깐.”

미연은 이 낭패스런 상황에서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경성? 역시 그랬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실 테죠. 당신이 부재중에 생긴 일이니.)

그녀는 그렇게 좀 더 말할 참이었다.

“아무튼 밖으로 나갑시다. 여기서는 제대로 얘기도 할 수 없으니. 시간은 아직도 두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변두리의 작은 냇가로 나갔다. 가랑이를 벌린 듯 두 갈래로 흐르는 냇물이 즐거운 소리로 자갈 사이를 누비고 있다. 여울이었지만, 작은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깨끗하다.

까만 신사복에 고무신까지 내려뒀은 소복이 서로 잘 어울렸다. 미연의 긴 치마는 제법 태가 났다.

[주] 조선 부인의 치마에는 긴 치마와 짧은 치마가 있다. 짧은 치마는 구두를 신는 스커트 식. 긴 치마는 뒤가 트여 여며 입는 옷이다. 신발은 고무신을 신는다. 긴 치마는 결혼 전후부터 가정부인이 입기 때문에, 긴 치마가 태가 난다는 것은 이미 한 사람의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냇가의 포플러 그늘에 나란히 앉았다. 유(柳)는 작은 돌을 두세 개 집어 들고 푹푹 두드리다가,

“도무지 저는 당신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어째서 새삼 마땅한 친척도 없는 도시 같은 데로 나갈 생각을 하게 됐는지, 뭔가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예, 좀.”

꼭 도시로 나가야 할 이유는 없을 터였다. 그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갑자기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탓에 말 그대로 고아가 되어 버린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의 동요 정도는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상의하러 올 줄 알았던 자신에게 한 마디 예고도 없이, 그것도 자기가 부재중인 틈을 타 고향을 떠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물론 그와는 단 한 마디도 사랑을 맹세한 적도 없고, 그 쪽에서도 그녀에게 구애한 일도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분만은 서로 충분히 알고 있는 터였다.

“그 유서 이외에 뭔가 아버지께서 유언이라도 남기셨습니까?”

“아니요. 별로…….”

“정말이지 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당장 기거할 만한 곳도 없을 텐데.”

“유복하지는 않지만, 어머니 친척이 있어요.”

“그런 말 마세요! 그 사람은 그날 벌어 그날 살아가기도 빠듯하겠지요. 그래도 저는 당신의 성격이나 이상도 알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만큼은 양친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침착하게 부친께 가르침을 받은 여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안대영(安大榮) 씨의 따님답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그렇게 저는 믿고 있

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연은 물끄러미 유의 옆얼굴에 눈길을 주었다. 그의 입술은 신경질적으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갑자기 말이 뚝 끊겨서, 미연은 자기도 모르게 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생각해서일까. 유의 눈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연은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 확연하지 않다는 얼굴로 녀석 좋게 남자의 눈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는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는 마지막 운명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저는 뭔가 허영에서 경성 같은 곳에 가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점만은 부디 이해해주세요.”

“그럼, 결국 제가 있는 이곳에서 떠나고 싶다, 그런 것이군요. 그렇습니까?”

유해성은 별떡 일어서는가 싶더니 한번 더,

“그렇습니까?”하고 천천히 되묻듯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유가 타야 할 승합버스가 먼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다리를 건넜다.

거의 4,5분가량 그 먼지 소용돌이 속에서도 말려들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유는 그 시간의 간격을 무시라도 하듯 다시 한번,

“그렇습니까?”하고 되풀이한다. 그 목소리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전율조차 띠고 있었다.

그녀도 예상롭지 않은 두근거림을 느꼈지만,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며 참고 있었다. 피가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면, 울적한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온힘을 다해 참고 있었다.

“저는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전혀 뜻밖입니다.”

유도 애써 마음의 동요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어조다.

“그런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부모님과도 얘기해 두었습니다. 안대영 씨의 따님이라는 것을 알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같이 가서 만나게 해 달라, 그리고 상(喪)이 끝날 때까지 집에 있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떠나시는 바람에 곤란했습니다. 실은 어젯밤까지도 저는 어떻게 당신을 설득시킬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보가 온 것입니다.”

“전보? 누구에게서요?”

“누구에게서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악의에서 보낸 건 아니니까.”

“악의예요! 당신한테는 호의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게는 터무니없이 폐를 끼치는 일인 걸요…….”

어째서 이렇게까지 마음으로부터 화가 났는지, 스스로도 이상했다.

전보로 알렸다면, 하숙집 아주머니나 그의 친구인 이(李)가 틀림없었다. 이와 그녀가 어떻게 두 사람을 위해서 애써주었는지, 미연은 지금 조용히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다. 하숙하고 있던 그의 신상에 관한 것까지 두루 신경써주었던 그녀를 자신은 고맙게여기지 않았던가……

그런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그에게 알렸다고 해서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까지 비밀로 해 왔는데, 어떻게 그들이 눈치를 챘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녀는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것이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여옥 씨의 행복을 위해서만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현재 나를 대하는 마음은 애당초 떳떳하지 못한 사랑일지도 모른다. 나 같은 거야 훨씬 뒤에 알게 된 사이니까.’

여옥은 교육도 받지 않은 여염집 딸이었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오동통한 뺨에 언제나 위협할 듯이 커다랗고 새까만 눈을 갖고 있다. 까무잡잡한 피부색이 오히려 그녀에게 일종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유는 지금의 하숙에 오기 전까지 그녀의 사촌 언니뻘 되는 집에 하숙한 적이 있었다. 여옥은 어느 사이엔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유 또한 그녀의 순정에 호의를 느끼면서, 산 깊은 산읍에서의 단순하고 쓸쓸한 교원 생활 가운데 혼기가 된 아가씨의 불타는 듯한 애정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는 주춤하던 참이었다.—거기에 미연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미연은 여옥이 모든 경위를 털어놓고 흐느껴 우는 바람에 비로소 여옥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미연 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빕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지만, 당신은 공부도 하셨고 인물도 좋으니, 아직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미연 씨, 여옥을 불쌍하다고 생각해주세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아니, 유가 어떤 종류의 약속조차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미연도 발을 뺄 수밖에 없었다.

“네. 좋아요. 저는 본래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누가 저런 시골 교사 따위를 상대한답니까?”

사랑하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슬픔이라기보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랑해서는 안 될 슬픔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지금의 미연은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자신을 속여야 하는 비참한 입장에 있었다.

미연은 불을 뿜는 듯한 유의 사랑 고백에 애가 끊어질 듯한 심사이면서도 차분하게,

“저도 한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 외에는 지금 내 몸둘 곳을 상의할 상대는 없다. 내 마음 가는 데까지 당신을 사랑하자. 그렇게 마음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저는 제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았어요.”

미연은 눈시울이 빨갛게 뜨거워져 오는 것을 느꼈다. 유해성은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아픔을 묵묵히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숨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런 이상 두 사람은 각각의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침 아버지께서 친구분한테 쓴 편지도 갖고 있고, 당신도…….”라고 말을 꺼냈지만, 미연은 곧 말은 다른 데로 돌렸다.

“당신도 지금의 제 기분을 이해하시게 되면, 분명히 제게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든 다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힐끗 유의 얼굴을 훑쳐보았다. 유는 일종의 적의조차 느껴지는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네.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저는 경성으로 나가서 조용히 상(喪)이 끝나기를 기다릴 생각이예요. 그동안 또 나오겠지요. 가을쯤에는. 그때까지는 유 선생님도 좋은 분을 찾으세요.”

미연은 그렇게 농담도 아니고 진지한 얘기도 아닌 것을 말하기도 했다.

“그만 두세요! 당신은 저를 비웃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아무리 도시로 가려 해도, 저는 당신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도시로 나가야만 당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저도 기쁘게 그러시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래요. 지금의 제겐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적어도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그 증거를 보여 주세요!”하고 유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증거 같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미연은 한 마디 한 마디 알기 쉽게 설명하듯이,

“그 증거는 저만의 것이지요. 그것은 저 이외의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미연은 평생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한 여옥과의 약속을 위해서도 지금은 자신이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자칫 유의 애정에 완전히 지게 될 것 같은 미덥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계속 채찍질할 생각에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사람의 무지한 동성(同性)을 슬픔의 밑바닥에 처박아 넣고 싶지 않은 도의심(道義心)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여옥의 고백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했다. 또 순박함 그 자체인 여옥이 함부로 행동하는 법은 없었다. 설령 유가 가까이 다가오는 여옥에게 허물없이 말한 것을 여옥이 굳은 약속처럼 믿고 있는 것이라 해도, 그것은 유의 죄도 아니고 여옥이 제멋대로여서도 아니다.—그녀의 무지(無智) 탓인 것이다.

“네. 유 선생님.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계속 추궁을 받는다면, 저는 제 속을 뒤집어서 보여 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요. 제게는 이미 당신에 대한 애정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 당신도 그다지 기분 좋을 리 없고, 저도 쓸쓸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미연은 할 이야기를 다 마치자 비로소 소름이 끼쳤다. 이윽고 격한 오열에 사로 잡혔지만—

“미연 바보! 배반자! 사기꾼…….”

유해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승합버스에서 내리자,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옥이 맹수처럼 덤벼들었다.

“뭘, 바보 같은 여자라고! 너야말로 거짓말쟁이 아니냐!”

유해성이 구두 끝으로 여옥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자, 여옥은 새된 비명 소리와 함께 털썩 쓰러진 채로 부그르르 거품을 뿜어냈다.

“휴, 다행이야.”

— 꿈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미연은 무심결에 이렇게 내지르고 말았다.  
“꿈을 꾸셨군요.”  
경성에서 회사 지점장을 하고 있는 아들의 결혼 상대자에게 경사가 있어서 도와주러 간다든가 했던 내지인(內地人)노부인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네…….”  
미연은 얼굴이 붉어져, 말을 다른 데로 돌렸다.  
“지금 몇 시쯤 되었지요?”  
“글쎄요. 이제 곧 날이 밝지 않겠어요?”  
“이런, 부끄럽게도. 그럼, 제가 완전히 잠이 들어 버렸군요.”  
“필요. 당신은 먼 길 가느라 피곤해서 잠이 든 것뿐인데 뭐가 부끄러울 게 있어요? 오히려 이 총각처럼 한 숨도 자지 않는 게 이상하지요.”  
그런 미소를 대하자 옆에 있던 청년도,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는 낮에 배에서 폭 자 두었거든요.”하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총각, 당신은 안 되겠네요.”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듣자, 청년은 진지한 얼굴이 되어,  
“뭐가 말입니까?”  
“옆에 분이 시간을 알고 싶어 하는데,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도.”  
미연이 얼굴을 붉히며, 아니에요. 뭐, 하며 혼자 곤란해 하고 있자, 청년은,  
“그만, 깜박했습니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끼어드는 것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그녀를 향해 머리를 꾸뻑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정각 5시네요.”  
그것을 보고 중년 부인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어젯밤 당신이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든 생각인데, 흰옷은 손이 많이 가겠지요?”하고 부인이 말을 꺼냈다.  
“네, 손은 좀 가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요.”  
“아, 그게 그래서. 위로 말씀드립니다.”하고 부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아, 그랬군요. 도리(道理)지요. 그런데 이 기차에도 흰옷 입은 이가 꽤 있군요.”  
흰옷이 전부 상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부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소리 내어 웃었다.  
올봄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했던 청년은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부인은 조선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활기를 띠었다. 풍습, 요리에서부터 예의범절 등으로 이야기가 옮겨가자, 부인은,  
“이런 말씀드려서 실례입니다만, 이쪽 분은 대체로 좀 붙임성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자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거기에 대꾸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기질인 걸요. 저희들 사이에

서는 그런 게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되면, 남의 발을 밟아도 모른 채하는 얼굴을 하지요. 확실히 나쁘기는 나쁘지만, 그 대신 자기 발이 밟혔을 때도 잠깐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지요.”

“네. 과연. 그게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동안, 날이 하얗게 새고 5월에 가까운 아침 해가 깊은 안개를 가르며 솟아올랐다.

## 청기와집

성북(城北)의 구름을 찌를 듯, 북악산의 여러 봉우리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그것은 흡사 산수화의 병풍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산 기슭에 시가지의 사람들에 의해 ‘청기와집’이라고 불리어온 고가(古家) 한 채가 있다.

최근 인구 팽창으로 주택가가 점점 고가(古家)의 동남쪽 돌담 아래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아, 이 집이 세워졌을 당시는 풀이 무성한 산속이었을 것이다.

고가는 이른바 조선의 대저택답게 기둥이라든지 대들보 따위가 놀라울 정도의 거목(巨木)으로 되어 있다. 사십 간(間)이나 되는 큰 집인데, 복도에는 하나하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문은 어느 방이나 삼중(三重)으로 되어 있는데다 격자 모양을 한 장지문으로 되어 있다. 주변은 산림의 연속인 탓에, 상수리나무며 떡갈나무와 같은 잡목림으로 둘러 싸여 있고, 단청의 울타리를 친 천백 평이나 되는 부지에는 노송이 가득 우거져 있었다.

노송들 사이사이로는 복숭아나무 은행나무, 목련, 불두화(佛頭花) 등, 갖가지 구색을 갖춘 꽃나무에, 열 몇 가지나 되는 난과 달맞이꽃 등의 화초가 제각각의 위치에 심어져 있다. 이 모퉁이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는가 하면, 저 모퉁이에는 오래된 회화나무가 있다. 종려수와 파초 등의 열대식물도 있는가 하면, 뜻밖의 장소에 동백이 눈에 띄기도 한다.

물은 뒷산의 골짜기를 막아서 나무 흉통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것이 큰사랑(舍廊) 앞을 지나고, 육각당(六角堂) 앞의 호리병 박 모양의 못에 고여 있다. 못 근처에는 육각당의 오른쪽과 왼쪽에 버드나무가 한 그루씩. 못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이따금 생각난 듯 불쑥 잉어가 고개를 내민다.

— 아무튼 오래된 절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 ‘청기와집’은 오래된 절이라는 느낌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있는 듯한 고리타분한 느낌이 없지도 않다. 이미 못 주변에 늘어진 버드나무는 푸르디 푸른빛을 띠고 있고 큰 사랑 앞의 벚꽃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도, 넓은 울타리 안은 아직 풀이 무성하고 작년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그대로 쌓여 있어 오래된 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버려진 절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미 갖가지 화초들이 제각각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지만, 그 꽃도 향기도 주인 없는 버려진 정원에서 홀로 피었다 홀로 흩어지는 스산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훌륭한 집이야. 보라고. 여기에서 성내(城內)가 손에 잡힐 듯이 내려다보이는군!”

마침 그 길이 하이킹 코스이기도 한 터라, 집 뒷산 쪽의 앞으로 굽어진 커다란 바위에서 쉬면서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이 집은 폐가가 아닐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애석한 일이군. 한번 들여다볼까?”

그들이 지저귀는 작은 새소리에 이끌려 얼떨결에 울타리 너머로 발을 들여 놓고 못 위의 정자 난간에 기대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는데,

“누구나!”하고, 주물로 만든 재떨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뜰 안에 울린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을 달래는 듯한 가야금 곡조가 조용히 황혼 무렵의 산장에 퍼지기도 한다.

“이상한 집이네. 늙은 기생첩이 남편이 늙어 가는 것을 탄식하는 겐가…….”

“아마도 그런 류의 집 같아. 그러나 가엾잖아. 자네가 한번 가서 위로해주라구.”

“나쁠 것도 없지.”

그런 농담을 하고 있는 참에,

“이런 예의 없는! 나가 주세요. 나가!”하고 외치는가 싶더니, 피아노를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우리들은 잠시 청기와집에 따라다니는 시가지의 소문에 귀를 기울여 보자.

“아, 그 청기와집?…….”

증인으로 불려나온 이는 복덕방 영감님이다. 경성의 복덕방에는 대개 영락(零落)한 양반계급이 비집고 들어가 있다. 게다가 그의 가게는 청기와집 동남쪽 돌담 바로 건너편에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일단은 그 앞을 지나가게 마련이다. 그는 언제나 손으로 만든 나무의자를 가게 앞에 꺼내 놓고, 세상 얘기에 흥을 올리거나 장기를 두고, 혹은 담배를 피우거나 한다.

[주] 복덕방이란 가옥과 토지 및 그 밖의 중개업을 하는 곳이다. 베로 된 노렌(상점 입구의 처마 끝이나 가게 앞에 치는 상호가 씌어진 막-역주)을 입구에 늘어뜨리고 거기에 복덕방이라고 먹으로 씌어 있는데, 경성 북부의 조선 시가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저게 예전엔 엄청나게 큰 집이었지. 권 대감(大監, 대신 급의 존칭)이라고 그 늙은 대감이 한번 화를 내면, 낙동강 물도 부그르르 거품을 내뿜었을 정도였고. 엄청난 권세였으니까—.지금이야 시가지의 고기집 주인에게도 심하게 큰소리로 호통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무척 유별난 사람이 있어, 탁주 한 사발 대접받자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장안(長安)에서도 손꼽히는 양반이었지만, 세상이 바뀌었지. 바로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청기와집 사람이라고 하면 시가지의 사람들은 고개를 못 들었다니까. 뭐? 청기와집이라는 이름? 거기에도 사연이 있지.”

[주] 장안이란 중국에서 온 말. 수도를 대신 부르는 속칭.

자기가 정다산(丁茶山)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그 노인은, 별컹별컹 탁주를 단숨에 들이키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주] 정다산=이조 중기 유명한 학자.

청기와집은 삼백 년 전의 건물이라고 하며, 원래는 모 대신(大臣)의 산장이었다. 안채만큼은 원래 청기와가 사용되었지만, 심야의 어둠을 틈타 매일 밤 몇 장이나 되는 청기와가 벗겨져 나갔고, 보통 기와가 그것을 대신했다. 그것이 이백사오십 년이나 계속되어 지금의 권 대감이 샀을 때는 청기와가 몇 장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오십 장은 있었지.”하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나도 이 눈으로 봤다니까.—그게 해마다 두세 장씩 무너져 지금은 차양 모서리에 너댓 장 정도 남아있을 뿐이지. 가운이 기울면 청기와도 사라지는 켜지.”

그가 청기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 전설이 스민 청기와의 유래는 ‘벗겨졌다’는 용어에서 ‘무너졌다’로 바뀌고 나서 점차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비 오는 날에는 귀신이 나오고, 그 못 위의 정자에 소복 입은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훌쩍 훌쩍 운다고 하더구면. 설날 그믐날 같은 날에는 지금도 자주 청기와가 덜컹덜컹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정말입니까?”하고 물었더니,

“정말이고말고. 뭇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 거짓말 따위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매물로 나와 있지만, 당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니…….”

그러나 귀신 얘기만은 그가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라는 설도 있다.

그가 김 아무개라는 주택 경영자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물로는 나왔지만 살 사람이 전혀 모여들지 않아서,<sup>62)</sup> 싼 값에라도 사주기만 하면 구전은 들통 주겠다는 밀약이 생겼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 청기와집 손님이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비극적인 집인가! 비극이라는 의미가 전형적이로군!”하고 중얼거린 말을 듣고는, 그가 금세 말을 퍼뜨렸던 것이다.

“청기와집에서는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마침 백백교(白白敎)<sup>63)</sup>의 죄상이 세상에 드러난 지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시가지 사람들은 청기와집에서는 뭔가 끔직한 참극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하다는 눈으로 높은 돌담을 올려다 보고는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것은 비극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시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비극은 아니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청기와집의 비극(현재, 오늘 아침도 일찍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이 그들의 상상보다도 더한 비극일지도 모른다. 그 비극은 무릇 숙명적이었으므로.

그날 아침도 권 노인의 엄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62) 원문은 買手があまりたかるので이지만, 맥락으로 보아 부정형의 잘못된 듯하다.

63) 백도교(白道敎)에서 파생된 동학 계통의 유사종교의 하나로, 1923년 경기도 가평에서 차병간(車秉幹)이 퇴폐한 민심을 교화하여 광명세계를 실현한다면서 포교를 시작했다. 이후 전해룡(全海龍)이 교주가 되면서 갖은 악행을 자행하여 경찰에 발각된 후 사라졌다.

“모두, 내 방으로 모여라!”

4월의 아침 여덟 시인데도 청기와집은 물속처럼 정적에 싸여 있다. 아침 식사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안채의 처마 밑에 매달려 있는 풍경이 스산한 겨울밤처럼 쓸쓸한 곡조를 연주하고 있었다.

“오늘이 며칠인지, 너희들은 몰랐느냐?”

큰사랑에서 권 노인의 소름 돋는 목소리가 깊은 정적을 깨고 흘러 나왔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네 평 크기의 큰사랑에는 밥 짓는 노파랑 침모, 그리고 몸종을 제외한 가족 전원이 남녀별로 쪽양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례복의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조선 갓을 쓰고 있다. 소학생 손자만이 두루마기에 맨머리이다.

권 노인은 콧마루가 반듯한 도학자형(道學者型)의 가름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할랑할랑한 도포의 넉넉함 속에 감히 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함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눈부실 정도로 새하얀 아름다운 콧수염이 그의 얼굴에 날이 선 백광(白光)을 닮은 일종의 잔인함마저 보여주고 있었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게냐?”

권 노인의 어색하게 덩수룩한 긴 윗눈썹이 씩씩거렸다.

어느 전문학교의 교수인 아들 수봉(秀峰)이 주뻗주뻗 얼굴을 들었지만, 부르르 떨고 있는 부친의 손에 눈길도 머물자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만다.

여자들은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목에서부터 구부러져 꺾일 듯 깊숙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않는다.

얼마간 긴 침묵이 흐른다.

“수봉아!”

이름이 불리자, 수봉은 조용히 얼굴을 들었다. 콧수염을 기른 수봉은 미국에서 귀국한 호남자(好男子)다. “예.”

“어떻게 된 게냐. 대답을 해봐. 너는 나이 오십이나 돼가지고, 날짜 지나가는 것도 몰랐단 말이냐?”

“그만, 깜박했습니다.”

살기마저 느껴지는 권 노인의 시선이 물끄러미 아들의 얼굴로 쏟아지고 있다. 아들은 부친의 시선과 부딪치는 것이 두려운지, 얼굴은 들고 있었지만 눈은 내리깔고 있었다.

회초리를 내리칠지 아니면 그만둘지 주저하는 듯한 한 순간이 지나고, 권 노인은 다시 입을 떼었다.

“좋아. 그럼, 인철아! 네가 대답해 보거라!”

“저는 오랫동안 집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고 인철이 대답하려는데,

“도쿄에서는 자기 조상을 공경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느냐?”하고 노인은 호통을 쳤다.

“…….”

인철은 묵묵히 있었다.

“왜 대답을 않는 게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년 만이라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어느 누구도 노인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의 굵고 탁한 목소리에 모두들 몸을 움츠리며 놀랐다.

“일년 만에 돌아왔으니 더욱 기억하고 있어야지! 일년간이나 조상을 공경하지 않았으니 더더욱 기억해야 할 게 아니냐. 좋다, 그 다음!”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고 머리를 조아린 채 용서를 구한 것은, 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 때 악단(樂壇)의 명성을 떨쳤던 수봉의 딸이다.

“인임이, 너는?”

그렇게 호명당하고 얼굴을 든 인임은, 문득 아버지 옆에 놓여 있던 회초리에 할아버지의 손이 가는 것을 보고는 움찔해서,

“너무해요. 할아버지!”하고 마음으로 나지막이 외쳤다.

못가의 버드나무에라도 와서 멈추었는지, 어린 해오라기가 가느다란 소리로 부모를 부르고 있다. 청기와집의 둔탁하고 무거운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낭랑한 소리다.

“말 못하겠느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거라!”

“예.”

“그 다음!”하고, 권 노인의 위엄 있는 혈문은 언제까지고 이어진다. 겨우 혈문을 마치자, 권 노인은 비로소 얼굴의 위엄을 누그러뜨리고 순순히 타이르는 것이었다.

“새삼 너희들에게 삼강오륜을 얘기해봐야 소용없겠지.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부터 내려온 미덕도 무로 돌아갔다고 너희들이 지레짐작하는 것을 나는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너희들은 신시대가 어땡고, 신문화가 어땡고 하며 새로운 것을 방패로 내세우지만, 우리의 전래 미덕을 혁신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터. 이 미덕이야말로 영세불변(永世不變)하고 불명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기꺼이 단언하는 게다. 모두들 알겠느냐?”

“예.”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인철이 일어서려고 했다. 그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린 노인은,

“인철아! 왜 그러느냐? 얘기는 이제부터다…….”하고 꾸짖고는 또 말을 이어갔다. 모두의 얼굴에는 초조한 듯 안절부절함이 넘치시 워힌다. 아메리칸 기질의 수봉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지만, 오늘은 이제 막 도쿄에서 돌아온 아들 앞이라 꼭 참고 있었다. 손자인 인철도 발이 저려 오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며느리 성희와 딸 인임 자매는 이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다만 권 노인의 후처 소향만이 기생 출신인 만큼 책상다리에 익숙해 있는 탓인지 비교적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삼강오륜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서 실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친구끼리 서로 믿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어째서 케케묵은 것이냐? 이 미덕이 어째서 너희들 신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게냐? 너희들에게는 조상보다도 자기 만년필이나 모자가 훨씬 더 소중할 지도 모르지만, 조상에 대한 예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높은 끝난 게야. 임금에 대한 충성도, 친구에 대한 믿음도, 무(無)로 돌릴 게 틀림없어.”

인입은 가슴이 메스거리오고 가벼운 현기증마저 느껴졌다. 성희는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 증오가 교차하는 시선을 수봉에게 보내고 있다.

(워낙 당신이 기개가 없어서, 한 세기 전의 연극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거라구요.)

“나는 완고한 영감은 아니다.”하고 권 노인의 힐책은 멈출 줄을 모른다.

“나는 너희들의 식발도 학교도 허락했다. 서로 화합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칠거지악 의 하나인 조강지처와의 이혼까지도 허락했던 게다. 입이 있으니 말해 보거라. 조금만 더우면 곧 잠방이 한 장 달랑 걸치고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다는 게냐? 조상 사당의 다례(茶禮)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도 빨리 일어난다고 해서, 너희들 수명이 얼마나 단축된다는 게냐? 한번 대답해 봐라!”

한 시간 가까운 설교가 끝난 것은 아홉 시 경.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늘 아침의 죄—음력 1일, 15일 양일간의 조상 사당의 다례를 빠트린 죄값음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권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건넸다.

“이 자세 그대로 열 시까지는 조상의 영혼에 사죄하는 게다. 내가 일등 죄인이다. 나는 정오까지 계속하고, 오늘은 굶겠다!”

이런 말을 막 끝냈을 때, 적절한 시간에 몸종인 입분(立紛)이가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누구더냐?”

“어딘가 시골에서 왔다는 처녀입니다.”

“시골에서 온 처녀…….”

권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게는 그런 손님이 있을 리 없는데, 누구지? 너희들 누군가에게 온 것 아니냐?”

살았다 싶어, 모두들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인입아, 너희들 친구 아니냐?”

인입은 잠시 의아한 얼굴을 하다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나갔다 올게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인입은 이미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분명히 처녀인데…….”

입분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듯 흘겨보며,

“춘천의 용자(龍子)인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입분에게 싱긋이 웃음을 보이고는 뛰어 나가듯이 밖으로 나갔다.

“입분아, 어떤 여자느냐?”

“얼굴이 고운 분이었어요. 소복을 입고…….”

“소복을 입었다고? 모르겠군. 몇 살쯤 되어 보이더냐?”

“아가씨 정도의 나이였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것저것 묻다가,

“뭐, 좋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오늘은 실컷 환대하고 싶으니. 마침 고마운 때 와주었군.”

“작은사랑을 돌아 대문 밖으로 나가자, 정말이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처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넝쿨장미를 등지고 서 있었다. 얼핏 보아 무척이나 시골 처녀 같은 느낌은 들지만, 때 마침 막 피기 시작한 장미와 같은 키가 늘씬한 여자였다.

인임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가까이 다가갔다. 손님도 조금 다가왔다.

“저, 저는 이 집 사는 사람입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경북의 시골에서 왔습니다만, 권 선생님은 계신지요?”

“권 선생님이라면……제 부친이신 권수봉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자 손님은 잠시 주저하는 듯하다가,

“아니에요. 편안할 태(泰)에 심을 식(植)…….”

“아,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계세요.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인임은 조부에게서 벗어났다 싶어 밝은 얼굴이 되었다.

“마침 잘 와 주셨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상한 말을 다 한다 싶었을까. 손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희들은 아침부터 할아버지한테 꾸중을 듣고 있었거든요. 회초리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고마워요.”

손님은 가까스로 납득한 듯,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 고마우신 손님, 제가 안내하지요.”

주인이 이렇게까지 떠들어주어도 손님은 여전히 머뭇거리며,

“저, 실은 할아버님도 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만……. 저, 아버지께 전갈을 부탁받고 찾아온 터라…….”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올라오세요.”

인임은 손님을 몰아세우듯이 조부가 있는 큰사랑으로 안내했다. 일의 자초지종을 조부에게 전하는 것이 순서였지만, 찾아온 손님을 구실로 오늘의 별을 이 정도 선에서 일단락 짓고 싶었던 것이다.

여자 손님을 보고 먼저 놀란 것은 인철이었다. 손님도 그를 알아보고는 곧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누구신지? 나는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

권 노인은 자리에 앉은 채로 복도에 송구해하며 서 있는 손님을 바라보며 안경을 썼다.

“모르겠어.”

“저는 안대영의 여식입니다만…….”

“안대영 군의 따님—? 아, 그래요?”

권 노인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지만, 심하게 낭패스러운 기색을 감추지도 않았다.

이를 계기로, 모두들 자리를 떴다.

“그런가. 안대영의 따님이신가?”

노인은 감격하여 한번 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자, 올라오게.”

“예.”

손님은 암전하게 방으로 들어가 나긋나긋한 몸가짐으로 절을 올렸다.

“훌륭한 처녀가 되었구나. 그래, 이름은?”

“미연입니다. 아름다울 미(美)에, 제비 연(燕)…….”

“그래, 미연이라, 자네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군. 그래,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예.”하고는 손님이 갑자기 더듬거리며,  
“저, 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하고, 부친이 돌아가기 사흘 전에 간신히 쓴 편지를 권 노인 앞에 꺼내놓았다.

노인은 편지는 집을 생각도 않고 상반신을 불쑥 일으키며,  
“뭘, 죽었다구!”

“예.”

“그게 언제쯤이고?”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지난 달 15일이었습니다.”

“몰랐네. 알 도리도 없지…….”

권 노인은 크게 탄식했다. 늙은이의 얼굴에 눈물이 조용히 고였다. 그런가 싶더니 지그시 눈을 감고는,  
“안대영 군, 자네는 죽을 때까지도 나를 용서해주지 않았는가? 죽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오랫동안 권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다. 안경 아래서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다. 미연은 저토록 흐르는 눈물을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무심코 얼굴을 들자, 아까 보았던 청년이 못가의 풀을 뜯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인연일까? 저 사람이 이 집에 있으리라고는.”

웬지 꿈만 같았다.

가까스로 편지를 들고 다 읽고 나자, 노인은 완전히 기분이 달라졌다.

“자네 오라비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나?”

“예.”

“애석한 일이야. 머리가 좋은 아이였는데. 자네가 몇 살 때였더라?”

“다섯 살 때였다고 합니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죽은 아이라고 단념하셨더랬지요.”

“그럴 리는 없지. 살아 있을 게야. 어딘가에 살아 있어. 부친이 부탁해 왔으니, 내 집에 있도록 하게. 그러노라면 불쑥 나타나겠지. 자네가 있어만 준다면, 나도 부친에 대한 속죄로라도 있는 힘껏 돌

봐줄 테니.”

권 노인은 15년 전, 어떤 일로 친구인 안대영을 배신한 적이 있다. 이후 안대영은 몸의 자유를 얻게 되자, 강원도 춘천으로 기거를 옮겨 농사에 투신했다. 이 소식을 듣고 친구의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한 두려운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온 권은, 두 번이나 산속에 있는 안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만 안은 결코 그를 만나 주지 않았다.

세 번째는 편지를 보냈지만, 행선지 불명의 쪽지가 세 장이나 붙여진 채 돌아왔다.

그로부터 벌써 그럭저럭 15년이나 된다.

“어떻게? 내 집에 있어 줄 텐가?”

미연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아니면 어디 정해진 혼담이라도 있는 겐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연은 옆질러진 물이라도 주워 담듯 강하게 부정했다. 부정하면서도 언뜻 스쳐오는 듯한 유의 원망스런 눈이 떠올라 오싹해졌다.

## 향수

아무리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그런 때가 사람에게에는 종종 있는데, 최근의 미연이 그랬다.

‘바보 같이 모자라기는. 자기 나이를 스스로 헤아리고 있다니.’

그녀는 혼자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다.

나이뿐 아니라 무엇이든 그랬다. 미연은 청기와집의 일원으로서, 무성한 정원을 마주한 작은방에 있게 된지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오랜 세월 살아 익숙한 고향의 자기 방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낯설은 여행지에서의 처량한 여수(旅愁)에 사로잡혀, 먼 과거에 물어버린 터인 고향으로 달려가서는 홀로 눈물짓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걸까?’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는 이름뿐인 고향이 아니었던가. 논과 밭 모두 한 정보(町步)도 되지 않는 경작지는 소작을 내주었고, 집은 어머니 쪽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에게 주었고, 첫사랑인 유해성마저도 여옥에게 양보해버린 터인데—

‘그런 고향에, 이제 와서 나는 어째서 빈민해야 하는 걸까. 역시 그 사람이 단념되지 않는 것일까?’

미연은 유의 단정한 얼굴을 떠올리고는 불을 뿜는 듯한 그의 목소리에 지그시 빠져드는 것이다. 그리고 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언제나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런 날이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미연은 청기와집의 일원이 되었을 때부터 이 집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그들의 무기력함과 게으름, 아무런 주견(主見) 없는 생활에 다소 신경이 쓰였지만, 그 자신 그들의 생활을 리드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마저 드는 것이었다.

미연은 과거 1년간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는 커다란 파도와 더불어 살았다. 집안에 머물기는 했



지만, 강하고 늠름하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농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며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집은 사실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정과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 잠자리를 물리는 것은 빨라도 아침 9시, 아침 식사는 대개 11경이다. 아침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소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7시, 10시에는 권 노인을 시작으로, 수봉, 여자들, 이렇게 아침 식사만도 세 번은 있었다. 아침상은 또 각자의 방에서 받았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 후 정리를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12시가 넘게 된다. 곧 또 점심 준비를 하고 정리하고 나면 오후 3시, 이어서 저녁 식사다. 이만저만한 소동이 아니다. 어찌된 집일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녀는 종종 기차 시간표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상 깊었던 연선(沿線)의 몇몇 풍경으로 생각을 달리고, 시시각각 고향—유해성의 품에 다가가는 생각에 가슴 두근거리고 있는 자신.

‘차라리 돌아갈까.’

미연은 넋지시 그렇게 자신에게 응석을 부려도 보는 것이지만,

“죄악입니다! 미연 씨…….”

그렇게 말하던 여옥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독수리처럼 덮쳐와, 펄쩍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나는 이미 고향에 아무런 미련도 없어. 그 사람도 여옥 씨에게 남김없이 주었잖아.’

생각해보면, 텅없는 사랑이었다. 유가 부친을 찾아오던 2년 동안, 두 사람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을 말한 적도 없고 미래를 약속한 적도 없으면서도, 그러나 두 사람은 상대의 눈길에서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그리고 서로 깊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즈음, 덜컥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년도 되지 않아 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어, 상(喪)이 끝나기까지 의지할 곳 없던 그녀 앞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여옥이 나타난 것이었다.

— 미연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인해 위대한 비극의 단상으로 쭉쭉 떠밀려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청기와집’이 문득 그 비극의 무대라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미연은 말하자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자마자 먼 이국의 하늘에 내버려진 작은 새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16살 때 2년제 지방 실업학교를 나오고는 곧 집안에 틀어박혀 강요라도 받은 듯이 모친으로부터는 바느질을, 부친으로부터는 한학을 배웠다.

파란 하늘과 달, 양친의 얼굴, 그리고 한자책이 그녀의 유일한 세계였던 것이다.—그런 생활이 6년이나 계속되었다.

그녀가 경성에 와본 것도 두 번뿐이었다. 한번은 실업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온 터라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청기와집에 와서는 단 한번, 짐을 찾으러 먼 친척인 아주머니한테 간 것이 전부였는데, 그때도 한 시간 가까이나 헤맸을 정도다.

— 그러나 미연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청기와집의 생활과 분위기가 낯설고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우선 가족의 계통을 외우는 것만도 큰일이었다. 조부인 권 노인에게 수봉, 수진, 수영의 3남매가 있지만, 수봉만이 죽은 본처의 자식이고, 수진과 수영은 지금의 기생 출신인 소향의 배에서 낳았다. 손자인 인철과 인임, 인숙의 삼 남매도, 어쩐지 지금의 수봉의 처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닌 듯하고, 소학생만이 재혼인 성희의 자식 같다.—이들은 여러 가지 감정과 이해를 달리하며 서로 얽히고설켜 있었던 것이다.

“미연이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 훌륭하게도 고래의 미덕을 몸에 익히고 있구나. 감탄스럽다. 그 상태로 우리 집에 좋은 모범을 보여 주렴.”

권 노인이 그렇게 칭찬하는가 싶으면, 어디까지나 아메리카 기질인 그의 아들 수봉 교수는, “미연 씨는 좀 더 구습(舊習)에서 벗어나야 해.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무엇이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작은 항아리 속에 가두어 놓을 필요는 없지. 과감하게 날개를 펴고, 과감하게 자신의 세계를 펼쳐보라구.”하며 미연을 부추겼다.—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도 권 노인 앞에서는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수봉은, 서로 멸시하고 서로 증오하기조차 하면서 부친과 이질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연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인철의 존재이다. 그는 말했다.

“미연 씨, 당신은 지금의 현재 모습으로 좋습니다. 무엇이든 아버지의 양키 기질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해도 어머니나 누이의 양키 기질은 버거워하고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연은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머리가 혼란스러워져 오는 것이었다.

“장차 아버지는 후회할 겁니다.”라고 인철은 어느 날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어머니가 그런 행동하는 걸 보면 못마땅해 하니, 그런 식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지금 통하지 않지요.”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수봉 교수는 깊이 생각에 빠진 얼굴로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다. 책이라도 읽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양 주먹으로 턱을 꺾 채, 멍하니 공허한 시선을 허공으로 향하고는 언제까지고 사색에 빠져 있다. 별이 좋은 뒷마루에 등나무 의자를 내놓고는, 자취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담배 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도 있다.

“미연 씨,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부탁해요.”

교수의 처는 남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재빨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어찌된 집일까. 게다가 이 집에 왔더니, 웬지 모두 기력 없는 사람들뿐이고.’

정말로 썩썩한 사람은 인철 한 사람뿐인 것처럼 보였다. 그 이외에는 모두 얼굴에 달라붙은 파리로 인해 몹시 풀이 죽어 있으면서도, 손을 움직이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 언제까지나 파리로 인해 번민하고 있는—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청기와집의 가계가 상당히 기울고 있다는 것은, 이 집에 온 지 겨우 닷새밖에 되지 않은 미연에게조차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미연은 한눈에 금방 알 수 있었다.

큰집인 만큼, 열 너 다섯 명이나 되는 대가족이다. 그렇지만 모두들 이 무시무시한 사실에 눈을 감

고 있었다.

권 노인은 이미 칠순의 고령으로, 그의 노안은 과학의 위력으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대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침저녁 인사와 월 2회의 사당제례 외에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교섭을 갖지 않았다. 기생 출신인 후처 소향이 가야금을 켜는 사이사이 하루에 몇 번인가 얼굴을 내미는 정도인 것이다.

교수와 그의 처인 성희도 각각 각자의 방에 진을 치고 각각의 삶을 영위했고, 자식인 인철과도 웬지 모르게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소향이 낳은 자식인 수진, 수영 남매와 교수는 형제 사이지만 수진 남매가 자식인 인철과 동년배라 연령 차이 때문에, 수진과 인철은 삼촌 조카사이 사이지만 연령 차이가 없어서 또 서로 뜻이 맞지 않는 것이었다.

“삼촌인건 틀림없지만, 인철 오빠보다 한 살 아래예요.”하고 인임이 말하면, 소향은 자기 자식을 감싸며,

“나이는 적어도 삼촌은 삼촌이잖니?”하고 말하는 것이다.

“미연 씨, 당신은 우리편이라구요.”라고 인임 자매가 얘기하는가 싶으면, 소향은 또,

“미연 씨, 수진 남매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모두가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감싸 주어야 하는데, 괜찮죠?”

“예.”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계모는…….”하고, 이번에는 교수의 처인 성희가 도마 위에 오른다.

“계모는 말이죠. 할머니와 사이가 상당히 좋아요. 그럴 것이 두 사람 다 신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성격이 맞지는 않아도 그러저럭 서로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 삼촌에게 어디 좋은 점이 있다고 저렇게 감쌀까. 중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자 사고……어머, 내가 다 말해 버렸네.”

“그런 분이세요?”

미연은 잠깐 짐작이 가는 데가 있어서 무심코 이렇게 묻고 말았다.

인철과는 기차 안에서 만났고, 웬지 옛 친구 같은 기분이 들어 안심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 한번도 허물없이 말을 걸어오는 일도 없다. 그런데도 수진은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그녀에게 마치 허혼(許婚)이라도 한 듯한 말투로 얘기하곤 했다.

“집에는 젊은 여자가 너 다섯 명이나 있지만, 당신이 제일 예뻐요.”하고 말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뒤에서 어깨를 툭 치며 앞길을 가로막고,

“미운 사람.”하며, 눈을 흘기는 것이었다.

“예. 예. 그게 대단한 거죠. 자기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열네다섯 살 때부터 여자 따위를 사고 다녔지요. 불량해요. 당신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돼요!”

고용된 사람들도 각기 패가 갈려 있었다. 침모와 밥 짓는 노파는 소향과 성희에게, 몸종인 입분은 인임 남매에게 각각 예속되어 있다.

그리고 그저 그런 암투로 시종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성하게 풀이 자라도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

람이 없다.

이 집 분위기에 미연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툭 내던져진 셈이었다.

청기와집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미연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정원의 녹음은 푹푹 떨어지고, 빛나는 초여름의 햇살이 나뭇잎에 춤추고 있었다. 밤에 달은 늦게 돋았지만, 별은 빛났다.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어, 물릴 줄 모르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 깜빡 졸음이 찾아오고 만다.—그런 졸음에 빠져들 듯한 초여름 밤이다.

그러나 미연에게는 이 희망의 계절과는 다소 거리가 먼 울적한 날이 이어졌다. 고향을 떠난 이래의 나그네 심정은 조금 덜해졌지만, 처녀의 꿈을 머금은 고향에 대한 추억은 없애려 하면 할수록, 여름 구름처럼 어디에서랄 것 없이 솟구쳐 오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밤!”

그녀는 그렇게 외치고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산비둘기도 잠이 잘 안 오는 지, 푸드득푸드득 뒤척이고 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구구구 울고 있었다.

달밤인가 싶을 정도로 밝은 별밤이다. 별씨 꽤 늦은 시각인지, 청기와집은 고요하다. 다만 성희의 방에만 불빛이 환하다. 또한 유한부인(有閑夫人)들이 모인 것일까, 첩첩 꽤를 던지는 소리가 난다.

‘수봉 선생님도 어떻게든 하셔야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걸까?’

미연은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곧,

‘또 시작이야. 이제 그런 일에는 신경 쓰지 않을 작정이었는데.’하고 스스로를 꾸짖으며, 은행나무 그들의 그루터기에 걸터앉았다.

멍하니 있는데, 또 그녀의 생각은 오래 살아 정이 든 고향으로 내달린다. 동백 향기가 날아들어 더 더욱 고향 생각이 간절하다.

‘유 선생님은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럴 리가 없어!’

무슨 까닭인지, 그녀는 강하게 부정해보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쩌면 나 같은 건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날도 그 사람만 확실하게 나왔더라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

그런 기분이 들었다. 사실 그 냇가에서 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류했더라면, 이 또한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단념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런 기분도 드는 것이었다.

‘역시 그 사람은 나보다도 여옥을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 잠깐 악마가 씌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내게 눈을 돌렸지만, 일단 떠나가고 보니 뿌리 깊이 뿌리를 틀고 있던 여옥에 대한 사랑에 눈뜨게 될 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아.”

미연은 그러나 이내 다시 생각했다.

“좋은 일을 한 거야.”

선행이란 모두 이렇게 슬픈 것인지도 모른다. 나로서도 이렇게 슬픈데. 만일 내가 손을 떼지 않았

더라면, 여옥 씨는 지금쯤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바라시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희생에 있다, 희생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부디 안심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딸로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아갈 각오입니다…….

미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문득 무슨 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 때, 수진이 휘청거리며 다가온다.

“미연 씨, 여기에 계셨습니까?”

“예.”

미연은 용수철처럼 일어나,

“지금 돌아오세요?”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도, 몸은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아, 좀 피치 못할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취하고 말았네요.”

“그러셨어요? 그럼, 술 좀 깨셔야겠네요. 저는 이미 오랫동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는, 그의 옆을 지나가려고 하자,

“뭘, 괜찮지 않습니까?”하고, 수진은 가로막기라도 할 것처럼 불쑥 앞으로 나섰다.

미연은 언젠가 그가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송충이에 닿은 듯한 오한을 느낀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와 같은 전율이 몸속을 내달린다.

“아니요. 저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저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스스로는 힘껏 노력을 하고 있는 듯했지만, 혀가 꼬부라져 있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아주 잠깐.”

“제가 오늘밤은 상당히 피곤하니, 이번에는 그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몸을 피하듯 걸음을 옮기려고 했지만,

“아니, 기다려.”하는가 싶더니, 움켜쥐듯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만두세요. 보기 흉합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오해하고 있어. 놈들이 어차피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테니.”

“그런 말을……저는 오해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아요. 제발 이 손놓아 주세요.”

미연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아니, 놓지 않겠어. 이 한 마디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아. 이 청기와집에 서는 나를 왕따로 취급하고 있지. 내가 좀 불량할런지는 몰라. 그러나 나를 불량하게 만든 건 누구지? 우리 모자는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어. 그게 슬퍼서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지. 그런데 당신이 온 거야. 나는 당신에게만큼은 인간 취급을 받고 싶었어.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니까, 적어도 당신에게만큼은 내 이 외로움을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그런 당신마저…….”

수진은 그녀의 손을 놓고 은행나무에 머리를 갖다 대고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미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직 두근거리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조용히 뒤돌아섰다. 웬지, 자신도 울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저 사람만 비난하는 것도 나쁘다. 저 사람이 한 말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다.’

미연은 밤이 하얗게 썰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수진의 입장이라도 되고 보면, 저 사람처럼 비틀어 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째서 이 집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험담을 하기 전에, 좀 더 친절하게 해주지 않는 것일까? 좀 더 위로해준다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해도 남자가 돼서 저렇게 울 수 있는 걸까?

“민(珉) 오빠도 어딘가에서 저런 쓸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생각은 언제나 그렇듯이 생사조차 알 길 없는 오빠에게 가닿는 것이었다.

“수진 씨, 좋아요. 당신만 정신 차려 준다면, 제가 돌봐드리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수진은 그녀의 호의를 자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은 내 뜻대로 되었구나.”하고, 혼자 기쁨에 빠져 들고 마는 것이었다.

울기 시작하면 며칠이라도 울 수 있을 것 같은 무척 쓸쓸한 심경에서 미연이 완전히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젠 고향에는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인임 씨, 저는 오늘부터 정말로 맥의 사람이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결심이 서자, 인임 자매에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는 일요일 어딘가 소풍을 간다고 해서 훌 웃옷을 재단해 달라고 자매가 와 있을 때였다.

“새삼스럽긴. 언니, 저희들은 이미 진작부터 그렇게 믿고 있었는 걸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도 나는 실은 오늘 겨우 결심이 섰어요.”

미연은 사용하고 있던 가위질을 쉬며,

“어떻게 머물게 해주시겠어요?”

“한번 신중하게 연구해보죠.”

그렇게 말하고 인임이 밝게 웃으며,

“그럴 수만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도움이 되지요. 어딘지 미연 씨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아 저희들도 실은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미연 씨가 돌아간다면 예 친구의 영전에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구요. 게다가 오빠도…….”

인임은 차근차근 말하면서, 그녀의 눈을 슬쩍 쳐다보았다. 미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자신을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 주시겠어요? 저, 내일부터 일하게 해주세요.”

“일을 한다고요?”

자매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뭘든 하겠어요. 밥 짓는 일부터 바느질까지. 이 정도 규모의 가족이야 입분이 혼자서 충분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도 이상해요.”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청기와집 전통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상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일체 제게 맡겨 주세요. 그러면 입분이와 둘이서 모든 일을 척척 해 보일 테니까요. 그 대신, 여러분도 도와주어야겠지만…….”

“그런 일을 미연 언니가 감당하겠다고요?”

미연은 끈덕질 정도로 얘기했지만, 그녀들은 웃어넘기고 말았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니, 자기들도 지금까지의 생활을 단념하고 가능한 한 도와주는 상황으로 어찌어찌 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청기와 맥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시세로는 양반만으로는 어떻게든 안돼요. 열 명 가족에 고용인이 넷이나 짊어주세요.”

“얘기를 듣고 보니, 변명할 방법도 없네요.”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임아, 나도 끼워주지 않을래?”

인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연은 갑자기 약간 위축되어 얼굴이 달아올랐다. 인임이 가슴을 펴며,

안돼요! 미연 언니는 지극히 완고한 분이래, 할아버지께 승낙서를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킁킁 웃었다.

너무 그렇게 밍살스럽게 말하지 마라. 오늘밤은 좀 참석시켜 주라. 미연 씨,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가 싶더니, 인철은 벌써 끼어들었다.

저도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그만, 모든 걸 엇듣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은 미연을 향해 돌아서서 꾸뻑 머리를 숙이며,

미연 씨의 힘으로 한번 저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저희들이 협력할 테니까요. 인임아, 너희들도 팔 걷어 부치고 도와줄 거지?”

당신이 이 집에 오신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철은 기억도 아득한, 꿈길이라도 헤매는 듯한 눈빛으로 열정을 다해 말했다,

당신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습지만, 당신이야말로 신께서 이 청기와집에 보내주신 구원의 여신입니다.”

“인철 씨, 저는…….”

“아니, 아니,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미연 씨에게 아첨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돌아와 처음 알았습니다만, 유서 깊은 이 청기와집도 이미 막대한 돈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소작료로 들어오는 쌀만해도 이제는 얼마 안 되지요. 그것으로는 이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달 오백 원 이상 쓰고 있지요. 부엌일도, 빨래도, 바느질도, 정원 관리도 남에게 맡겨두고, 하녀 한 사람이라도 병으로 자리에 누워 버리면 모두들 태연하게 다시 하인을 들여오는—이런 식으로 살림을 해나갈 수는 없어요!”

인철은 화가 치미는 듯 말했다.

“당신의 기분은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있자니 뭔가 위로의 말이라도 해야 할 듯한 생각이 들어, 미연은 간신히 그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제 일이 년 느긋하게 공부라도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내일부터 일할 겁니다. 정원의 풀을 뽑고 쓰러질 듯한 담을 고치면서, 정말이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기와집에 달라붙어있는 고래의 전통 따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무위도식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부끄러운 전통!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좋지만, 한번에 삼사십 원이나 드는 제사를 일 년에 열두 번이나 지내게 하는 건 조상이 너무 무자비한 겁니다! 아무런 생산도 않는 자손에게 말입니다!”

“안돼요. 오빠.”

지긋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인숙이 위협하는 듯한 얼굴을 하며,

“그러면 할아버지 졸도하세요.”

“그럴 리가?”

인철은 내뱉듯 말을 했다.

“오빠는 집을 비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작년 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의 권유로 석유 장사인가를 시작하실 작정이셨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셨다고요. 가문에 먹칠하는 놈은 나가 버리라고요. 그런데 제사를……안돼요!”

“거의 이틀 동안 단식하셨어요.”

인입도 맞장구를 치며,

“지금 할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 것도 그 일이 있고 나서였어요. 그 연세에 이틀을 단식하셨으니, 약해지시고 만 거죠.”

인철도 과연 말이 없었다. 깊은 생각에 빠져 고민하는 듯한 침통한 표정을 짓더니,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하고 외쳤다.

“정말이지, 저는 의절당해도 좋습니다. 길바닥으로 쫓겨나도 좋아요. 저는 어디까지든 해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연 씨,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기차에서 우연히 마주 앉았던 당신이…….”

지나치게 흥분하여 뜻하지 않게 이런 말을 꺼내놓고서야 비로소 아직 여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인숙은 오빠와 미연을 노려보듯 하며,

“어머, 미연 씨와 기차에서 같이 있었어요? 너무해요, 오빠. 그런 얘길 지금까지 하지 않다니…….”

“그런가, 말 안 했던가?”

“안 했어요.”

인숙은 인입을 돌아보며,

“언니, 하지 않았지?”

인입은 난처한 듯 한 쪽 눈으로 동생을 제지하면서도, 흘끗 미연의 안색을 살피며,

“오빠는 건망증이 있으니, 인숙이 네가 참는 게 어떠니?”

“그래. 인숙아,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인철은 그 상황을 터무니없이 폭소로 얼버무리려고 했지만, 인숙은,  
“안돼! 안돼!”하고 억지를 부리는가 싶더니,  
“엄연한 사실을 숨긴 죄만큼 형제의 우의를 해치는 것도 없으니, 머리 숙이고 사과하는 게…….”  
“사과할 게. 이렇게…….”  
“그리고 광동특장요리(廣東特裝料理)와 두 종류 이상 진귀한 과일로 대접할 것.”  
“드디어 최후의 수단을 쓰는구나. 인숙이는 빈틈이 없다니까.”

삼남매의 폭소로 불길 속 완전히 궁지에 몰린 듯한 상황으로부터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된 미연은 숨이 막힐 정도로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설명할 것까지도 없이, 인철도 자신도 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었다. 그저 기회를 봐서 얘기할 작정이었지만, 그만 말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뿐이다. 계제가 나빠서, 그 우연한 사건을, 이 또한 우연히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 다 말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좋아, 한턱 낼 테니, 말해. 뭐가 좋을까?”

“아까 선언한 대로예요.”

“그렇까, 좋아.”

또 웃음소리가 폭발하고, 몸종인 입분이를 불러 놓고 남매간에 흥정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중에도, 미연은 웬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 깊이 숨겨온 처녀만의 비밀이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된 데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뭐 계획적으로 숨긴 것도 아닌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는 여기면서도, 그러나,

‘말하자, 말하자, 생각은 하면서도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 그건 이해해. 당신이라면 처음부터 숨기고 지내려는 생각 따윈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말하자, 말하자, 하면서도 과감히 말할 수 없었던—그 자체가, 물론 의식은 하지 않았어도, 마음 어딘가에 감추어두길 바라는 생각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한 명의 자기에게 추궁해보면,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거짓말! 거짓말! 이런 일을 인임 씨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쑥스러워진 거야. 그래서 모두들 앞에서 그런 말도 꺼내지 못한 게 아닐까.—그런 건 남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순서지…….’

심한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처녀의 입에는 광동 요리도 맛이 없었다. 기차에서 만난 사실을 숨겨온 ‘죄’는 맛있는 요리와 아침나절의 방울소리처럼 명랑한 웃음소리에 이제 완전히 녹아 버렸지만, 미연에게는 그 장소가 역시 참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기분에는 개의치 않고, 인철은 청기와집의 부흥안을 짜내는 데 몰두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뒤틀린 양반의식을 비난하고, 아버지의 무기력함에 분개했다.

“배는 분명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아버지는 양반의 배가 가라앉는다는 게 어쨌다는 거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버지는 배가 부서진 것을 시인하면서도 굳이 이러한 현실로부터 눈을 감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일하지 않는 자의 자손은 삼 대를 갈 수 없고 바보가 된다는 사실은, 의학자가 하나같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먹느냐 먹히느냐의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생활에 한정된 것만도 아닙니다. 사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나 대국의 사대사상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미국에만 의지하고 있지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인철은 이따금 미연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연도 훨씬 전부터 청기와집 사람들을 단념하고 있었지만, 인철의 밀어붙이는 추진력에는 얼마간 분발하는 모양새였다.

그 후로 인철은 종종 인임이나 인숙과 함께 미연의 방을 찾아가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에 몰입하곤 했다. 인철은 개개인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청기와집을 훌륭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의 가정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서슬이 대단했다. 전쟁은 국가만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바로서지 않으면 허사다. 지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내지만이 아니다. 청기와집 사람들은 매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연은 일부러 그와의 동석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가 원하는 협력에는 실행으로 응했다. 그녀는 물 길어 오는 일부러 장작 패는 일까지 묵묵히 정성을 다했다. 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운 터라 권 노인이 지은 시를 받아쓰는가 하면, 수봉 교수의 부탁에는 그의 처인 성희의 못된 짓도 동성(同性)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기꺼이 받아 주는 것이었다.

미연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때때로 엄습해오는 강력한 향수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할 거라고도 생각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남에게든 자신에게든, 자신이 인철에게 협력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만 여겨지고 싶지 않다는 변명의 구실만은 아닌 듯하다.

## 암투

3년 가뭄에 비 안 내리는 날이라고는 없다는 말은 옛부터 들어온 얘기지만, 미연이 경성으로 나가 맞이했던 첫 번째 여름이 바로 그런 여름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방사선이 지구를 향해 내리쬐다. 지구라는 덩어리가 진흙투성이가 될 때까지 다 녹여버리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을 기세였다. 지구도 견뎌내기 어려워 받은 열을 뿜어내고, 그 사이에 인간과 초목이 틈에 끼여 꼼작 못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때 동남풍이 나무끼며 어디에서랄 것 없이 잿빛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여기저기서 굵은 소나기가 내렸다. 그러나 북쪽 시가지의 먼지도 잠잠해지기 전에, 남쪽 시가지에서는 이미 한층 더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

그런 날이 거의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한낮 같은 때는 모든 생물이 숨을 죽인 듯한 정적에 휩싸이고, 마지막 비명이라도 올리듯 기름때미만이 목이 쉬도록 울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활짝 개인 여름 가뭄이 계속되던 여름 내내, 청기와집의 처마 밑에는 어느 때랄 것 없이 저기압이 떠돌았다. 까칠까칠하게 바싹 말라버린 열기와는 무뎠 거리가 먼, 질척질척한 장마철 같은 습기가 숨을 조일 듯이 꼭 차 있었다.

인철이 은밀하게 청기와집의 일대 혁신을 생각해 내고 있던 어느 날 아침, 봄부터 여름에 걸쳐 거의 누워 지냈던 권 노인은 여름날의 아침잠을 기분 좋게 탐내고 있던 집안사람들을 네 척이나 되는 긴 담뱃대로 두드려 깨웠다.

여름이라고는 해도, 5시 전이면 가까스로 날이 밝아오는 시각이다. 소학교에 다니는 손자인 인택의 아침 식사 시간도 아직 세 시간이나 남았고, 청기와집 사람들이 잠자리를 치울 때까지는 네다섯 시간이나 남아 있는 시각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미연조차 잠옷차림인 채로, 큰 사랑으로 끌려나왔을 정도였다.

“사당 다례일(茶禮日)인가?”

모두의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삼 일 전 15일에 다례를 지낸 터였다.

“오늘부터 이 청기와집 사람은 여름에는 오전 5시, 겨울에는 6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날 것을 명한다. 여자는 원칙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금하고, 남자도 그 누구든 밤 9시까지의 절대로 귀가한다. 나갈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내민다.—이 규칙이 최근 완전히 느슨해진 듯 한데, 앞으로 이 규칙을 어기는 자는 즉시 떠난다.”

오래 앓았던 노인의 어디에 그 정도의 기력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강경함으로 권 대감은 말을 계속했다.

“아침 식사는 여름에는 7시, 겨울에는 8시로 하고, 여자는 안방에서 남자는 내 방에서 함께 식사한다. 오늘을 끝으로, 하녀는 입분이 한 사람만 남고, 남녀 모두 가사 일을 분담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집안에 오는 일체의 손님은 우선 내게 얼굴을 내밀게 하고, 돌아갈 때도 주인과 손님이 함께 와 돌아간다는 인사를 하도록 한다.”

“됐다!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지.”

인철은 내심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의 진언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래, 모두 알았느냐? 싫은 사람은 나가거라! 알았으면 대답을 하고.”

“예.”

이 계엄령은 인철과 미연을 제외한 모든 청기와집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밥 짓는 일을 맡게 된 수봉의 처 성희는 일체의 외출과 손님맞이를 금지 당했고, 이복동생인 수진도 어쩔 수 없이 나다닐 수 없게 되었다. 수봉 교수는 주 2회의 출강 외에는 외출도 손님 내방도 거의 없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야외로 놀러가는 일이나 마작에 여념이 없는 성희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작년 말 무렵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최(崔) 청년 일행과 외금강에서 서로 만나 그곳에서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계획도 다 틀어져버렸다.

우리 안에 갇힌 소프라노는 솟아오르는 분노에 심한 두통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한 집안이 단란함을 뽐내었다. 그러나 그 단란함은 가장인 권 대감의 능름한 호령과 위압적인 감시에 의해 가까스로 만들어진 단란함이었다. 그 단란함은 언젠가는 상극(相剋)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암 덩어리를 내포한 단란함이기도 한 것이었다. 명령대로 아침 5시에는 잠자리를 치우고, 7시에는 마주대하고 서로 아침 밥상에 나란히 앉는다.

이 짧은 식사 시간도 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행의 시간이었다.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거나 웃는 얼굴로 잘 먹었다는 말을 나누는 것도 아닌 권 노인은,

‘식사할 때는 움직이지 말고 말하지 않는다.’